



HEAD OFFICE

1, Goedong-dong, Nam-gu, Pohang City,
Gyeongsangbuk-do 790-300, Korea

SEOUL OFFICE

POSCO Center, 892, Daechi-dong,
Gangnam-gu, Seoul 735-284, Korea

POHANG WORKS

5, Dongchon-dong, Nam-gu,
Pohang City,
Gyeongsangbuk-do 790-360, Korea

GWANGYANG WORKS

700, Gumho-dong, Gwangyang City,
Jeollanam-do 545-711, Korea

WWW.POSCO.CO.KR



2009 포스코 지속가능성 보고서

Posco 3.0

Global Symphony

2009 포스코 지속가능성 보고서



본 보고서는 삼림인증 목재로 만들어진 친환경 종이에 콩기름으로 인쇄되었습니다.



Symphony는 여러 관악기와 현악기의 조화로운 음색이 빛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그 절정의 순간에 가장 아름답고 열정적인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향한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에서도 우리는 조화와 열정, 도약과 창조의 Symphony를 경험합니다. 공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가치로 포스코 3.0 시대를 열어가는 ‘Global Symphony’, 그 아름답고 웅장한 소통의 이야기를 2009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특징

첫째, 2009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의 CSM 포럼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와 포스코경영연구소가 함께 개발한 중대성 평가 툴을 더욱 정교화하여 적용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미디어 조사를 해외까지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국내외 1,200명 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메일 서베이에서는 샘플링을 강화하여 이 해관계자별 관심 이슈를 정교하게 도출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이 런 활동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을 파악한 보고서를 작 성했습니다.

둘째, ‘경제 성과, 환경 성과, 사회 성과’로 이루어진 기존 툴을 지 속가능 성과 아래 ‘열린경영, 창조경영, 환경경영’으로 새롭게 구 성하였습니다. 이는 포스코의 경영 방침과 지속가능경영의 트리 플 버텨마인을 연결한 표현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활동을 신뢰 와 소통에 기반한 ‘열린경영’으로 표현하였고, 이해관계자들의 이 해를 돕고자 지면 구성 변화와 강약을 살린 지면 배치에 공을 들였 습니다.

셋째, ‘열린경영, 창조경영, 환경경영’으로 대표되는 지속가능 성 과의 지표들을 한 지면에 종합하는 색션을 도입하여 이해관계자 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콘텐츠에 따라 배치되었던 기존 지 표들을 한 곳에 모아 독자들은 필요로 하는 지표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기존 철강 산업 중심의 출자사 성과 보고를 포스코 패밀리 의 지속가능 성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보고 범위도 작년 8개 회사에 서 출자사 전체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포스 코와 모든 출자사들의 노력을 실었습니다. 2009 지속가능성 보 고서에는 포스코의 신뢰와 소통의 문화가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보고 프레임워크 » 2009 포스코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의 G3 가이드라인과 포스코 고유의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 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기재한 재무 정보, 기준, 정의는 국내 기업 회계 기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 포스코는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정 보를 담고 있습니다. 단, 기업지배구조 내용은 2010년 2월 26일 개최된 이사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 범위 » 본 보고서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포함 본사 및 서울사무소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 습니다. 출자사 관련 정보는 연결 기준이 아닌 개별 기준으 로 작성되었으며, 포스코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창조 경영’의 ‘주요 경영 성과’ 부분의 재무 정보는 포스코 개별 재 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 및 관련 정보는 2009 Annual Repor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배포 및 피드백 » 이 보고서는 한글판과 영문판으 로 발간되었습니다. 인터넷, 전화 등으로 개별적인 우편 신 청이 가능하며, 보고서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은 인터 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2009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 » 본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가 보고서와 제반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객 관적인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적 검 중 표준인 AA1000AS를 채택하여 기존 보고 원칙인 일관 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지키면서 그 위에 포괄성, 중대성 및 대응성을 보고서 작성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Website_ <http://www.posco.co.kr/homepage/sustainability/>
Download_ <http://www.posco.co.kr/homepage/sustainability/report/>
e-mail_ sustainability@posco.com
Tel_ 02-3457-0377 , 3457-1120
Address_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포스코 사회공헌실 CSM팀

CONTENTS

01 OVERVIEW

- C2 보고서 개요 및 특징
- 02 CEO 메시지
- 04 2009 Key Performance Indicators
- 06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07 중대 이슈 도출
- 08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10 지속가능경영

- 10 지속가능경영 체제
- 12 글로벌 포스코웨이
- 13 포스코 비전 2018
- 14 기업지배구조
- 16 기업윤리
- 18 공정거래
- 19 위험 관리 체제
- 20 지속가능경영 대외 평가

22 열린경영

- 24 직원
- 33 상생협력
- 38 사회공헌
- 43 지역사회

46 창조경영

- 48 경영 전략
- 49 기술 혁신
- 52 녹색성장 신사업
- 54 주요 경영 성과

56 환경경영

- 60 환경 시스템
- 61 환경 관리 활동
- 63 기후변화 대책
- 65 환경 성과

68 포스코 패밀리

- 68 글로벌 포스코
- 70 지속가능 성장 기반 확보

72 APPENDIX

- 72 독립 검증 보고서
- 74 용어 해설
- 75 설문서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2009년 한 해 포스코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미국발 금융 위기로 급속하게 위축되었고, 국내 경제 또한 수출 부진과 내수 급감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10년 전 외환 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철강 산업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사상 유례없는 감산과 판매 가격 급락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포스코는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원가절감과 함께 신속하게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였고, 불황 이후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성장 기반 확대와 더불어 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 미래 신성장산업 투자 확대,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 27조원, 영업이익 3조1천억 원으로 경쟁사 대비 양호한 경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09년은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2018년에 어떤 비전을 갖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를 새롭게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포스코는 창업기인 포스코 1.0 시대를 거쳐 성장기인 2.0 시대를 지나 이제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포스코가 일어나야 할 도약의 단계가 바로 포스코 3.0입니다. 그 목표는 2018년 매출액 100조원 달성과 함께 100년 영속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사업 영역(業)을 진화시키고, 활동 무대(場)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動)을 혁신함으로써 포스코 3.0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業)의 진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본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하여 마그네슘·티타늄·망간·실리콘·니켈·크롬 등 종합소재 메이커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또 IT와 에너지 분야 등 관련 사업도 적극 육성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 무대(場)를 확대하겠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돋움하였으며, 멕시코나 베트남에서 가동한 여러 설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캐나다·브라질로 이어지는 글로벌 사업 또한 더욱 구체화할 것입니다. 또한 포스코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인 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방식(動)을 혁신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의 DNA를 확립하여 경쟁에 당당하며, 경쟁을 즐기고, 경쟁으로부터 경쟁력을 얻어내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비·자본 등 유형자본을 획득하는 데 힘을 쏟았다면, 앞으로는 조직 간·구성원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무형자본을 확보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 소통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신뢰는 포스코의 아이덴티티이고, 그 기반은 소통입니다.

또 출자사·외주 파트너사·설비, 자재 공급사를 포함한 포스코 패밀리 경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오늘날 경쟁은 개별 기업만의 경쟁이 아니라, 서플라이체인 전체의 경쟁입니다. 상생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서플라이체인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포스코 3.0 시대는 포스코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자사, 외주 파트너사, 공급사, 고객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포스코 패밀리가 하나되어 함께 가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는 신뢰 관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으로 더욱 발전하는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회장 정준양

정 준 양



FINANCIAL
PERFORMANCE

주요 재무지표	2007	2008	2009
매출액 (십억 원)	22,207	30,642	26,954
영업이익 (십억 원)	4,308	6,540	3,147
ROE (%)	15.9	17.0	11.4
EBITDA (십억 원)	6,029	8,448	5,207
원가 절감액 (십억 원)	829	738	1,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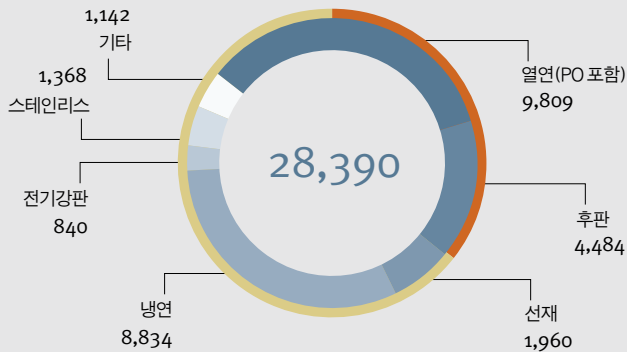
매출 및 주요 제품 판매 포스코는 2009년 철강 시장 위축과 심화된 경쟁 가운데 저가 원료 사용 및 제강 부산물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불황기에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질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시장에서는 전략 제품 판매율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하여 동남아 시장 및 기타 시장 수요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제품별 판매량

(단위: 천 톤)

■ 내수: 18,390

■ 수출: 10,047



KRW **100**
trillion

2018년까지

포스코 패밀리 목표 매출액

KRW **1,359**
billion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사상 최대의 원가절감과 비상경영 체제
강화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



SOCIAL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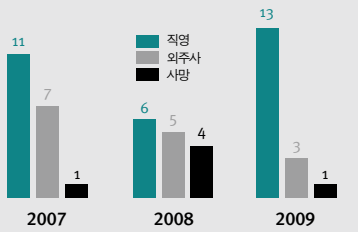
2009년은 국가적 이슈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포스코는 청년 인턴 제도를 운영해 총 664명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17^{hr}

포스코 직원 인당 교육 시간

Injury Free POSCO



재해 건수 2009년 중대 재해는 2008년 대비 3건이 줄어든 1건을 기록했습니다.

중대 재해: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장애인 및 여성 인력 채용 2008년 대비 35명, 2007 대비 99명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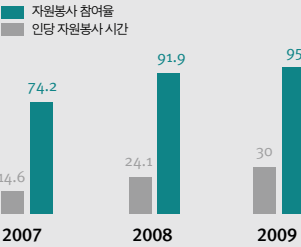
포스코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법적 기준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제도에 부응하여 여성 인력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Symphony of
Nature,
Human and Steel

사회적 소외 계층 지원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포스코하우징('09.12), 포스플레이트('10.1),
송도SE('10.4) 설립

367

2010년 소외 계층 고용 목표
(2010년 5월 기준 소외 계층 238명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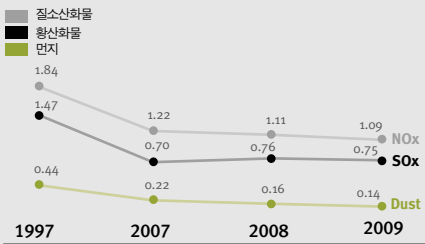


자원봉사 활동 전 임직원의 95%가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1인당 봉사 시간은 30시간에 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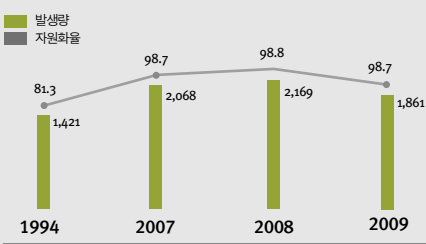
2004년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나눔의 토요일로 지정되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합니다. 2009년 월 평균 5,444명이 나눔의 토요일에 참여했습니다.



ENVIRONMENTAL
PERFORMANCE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배출 원단위가 2006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광양제철소는 SOx와 NOx의 배출 원단위가 60% 이상 저감되었습니다.



부산물 자원화 포항과 광양에 준공된 RHF공장은 제철 부산물을 이용해 연간 28만 톤(포항 14만 톤·광양 14만 톤)의 직접환원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9%

2.18('09) → 1.98('20)

CO₂ 배출 원단위 감축 목표 (t-CO₂/t-S)

현재 기용한 기술에 의한 감축 3%+
미래 혁신 기술에 의한 추가 감축 6%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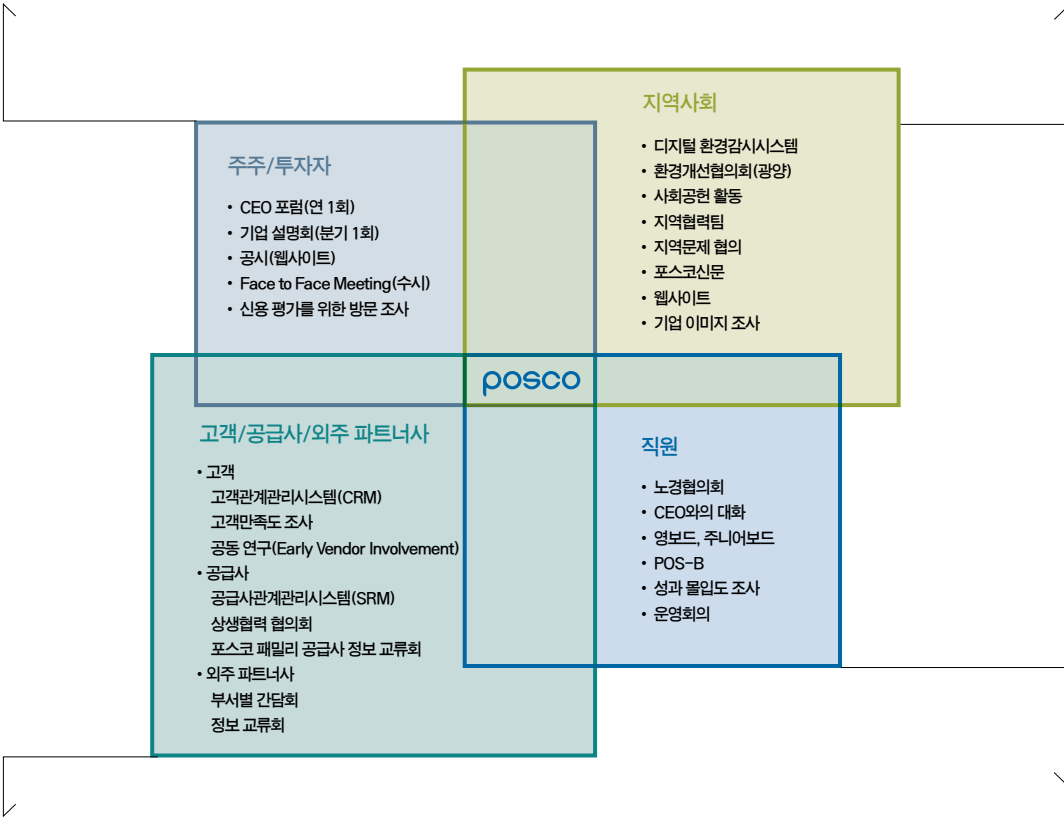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와 동반자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주주·투자자, 고객·공급사·외주 파트너사, 직원 및 지역사회 등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포스코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질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회사

포스코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고 유용한 경영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IR그룹을 별도로 운영해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년 1월에는 CEO 포럼을 통해 CEO가 투자자에게 직접 경영 실적과 계획을 보고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공시와 수시 미팅, 방문 조사 등 다양한 채널로 의견과 조언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회사

포스코는 지역사회의 자부심이자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는 전담 부서인 지역협력팀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으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감사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오염 수준을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지역사회와 밀착된 교류를 목적으로 포스코는 학교, 마을 등과 부서 단위로 자매결연을 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 래 하고 싶은 회사

포스코는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을 통해 고객의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 지원, 신제품 개발, 신규 시장 개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고객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고객을 방문해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고객 케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을 통해 영업 및 서비스 활동 전반에 걸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경영 혁신, 기술 개발, 인력 교류, 구매와 판매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여 공급사 및 외주 파트너사와 동반 성장을 추구합니다. 특히 포스코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실천사무국을 중심으로 Benefit Sharing(원가절감 수익 공유), 테크노 파트너십(맞춤형 중소기업 기술 지원), 금융 지원, 공동 연구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자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 하고 싶은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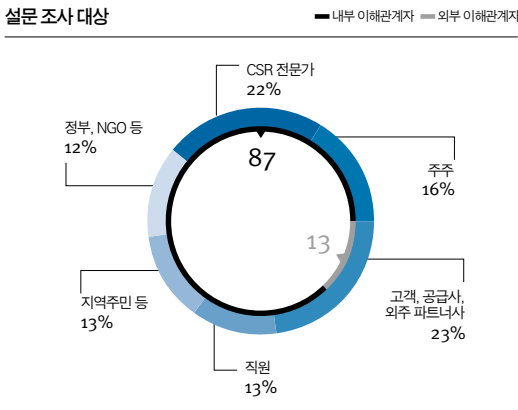
직원은 포스코 경쟁력의 원천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포스코 직원들은 본인이 직접 선출한 노경협의회를 통해 임금 및 근무 제도 등 중요 관심 사항을 회사와 협의하며, 이와 별도로 노동조합에서도 활동 중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CEO와의 조찬 간담회를 총 56회 실시하여 CEO와 직원이 긴밀하게 소통하였고, CEO가 직접 설명하는 비전, 경영 철학, 정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임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포스코는 영보드와 함께 2009년 새롭게 주니어보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한 익명게시판(POS-B)을 운영하고, 매년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과 공동으로 성과 몰입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 이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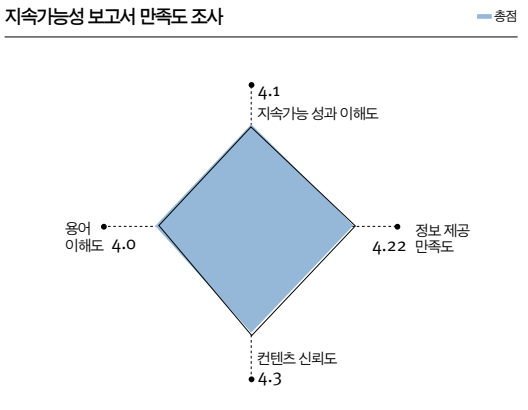
미디어 분석 과정

기사 검색	1차 분석	2차 분석
- 포스코+각 키워드로 검색 - 기사별 부문 이해관계자 기록 - 자료 통합	- 부문/이해관계자별 노출도, 긍정도 분석 - 노출 및 긍정 원인 파악	- 키워드별 노출도+긍정도 분석 - 키워드+이해관계자별 분석 - 주요 이슈 도출, 보고서 수록

설문 조사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만족도 조사



미디어 분석

포스코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미디어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경영연구소와 공동 연구에 나서, 국제 평가 기준과 포스코 특성을 반영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국내 미디어와 해외 미디어를 동시 분석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상반기에만 미디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국내 종합 일간지, 경제 일간지, 인터넷 뉴스 등 국내 언론기사 전체와 국제 뉴스 포털을 통한 전 세계 기사 등 국내 241건과 해외 39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된 유형별 분석 결과, 2009년에는 일반 부문 11%, 경제 부문 19%, 환경 부문 20%, 사회 부문 50%로 사회 부문의 노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2009년 노출된 국내 기사의 긍정도는 84%였습니다. 포스코의 경영 실적 향상과 정준양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 해외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계약 성사, 그리고 사회공헌과 상생경영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 변경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은 부정적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 미디어들은 포스코를 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매출 증대와 광산 지분 인수, 해외 사업 지역의 고용 창출 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2008년도 성과 향상과 인도제철소의 사업 승인 등이 긍정적 영향을 끼쳐 해외 미디어 긍정도는 2008년 68%에서 2009년 74%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실적 악화 우려와 감산 조치는 부정적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9p 참조)

이메일 서베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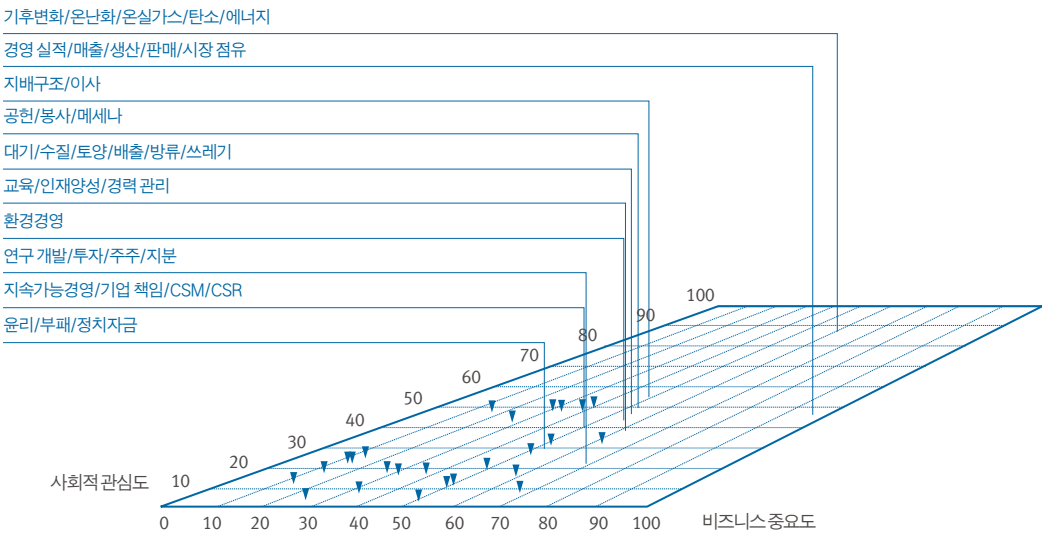
포스코는 2009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에 앞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수렴하고자 이메일 서베이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포스코의 내부 이해관계자인 포스코와 출자사 임직원을 비롯하여 고객 및 지역사회, 외주 파트너사, 주주 등 외부 이해관계자, 총 1500명이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신청한 독자와 국내외 전문가, 정부, 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문은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와 2009년 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할 포스코의 주요 이슈,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총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4%로 나타났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84%, 컨텐츠 신뢰도는 86%, 보고서 용어의 이해도는 80%, 지속가능 성과 이해도는 82%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문 조사 결과, 2009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불어 닥친 세계 경기 침체로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신사업과 같은 신규 성장동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지속가능경영과 기후변화, 사회공헌, 환경개선 성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2009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중요성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9p 참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사항과 기업 경영의 영향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스코는 2008년 자체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보고서 제작 과정의 개선 사항과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고서 제작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경영 활동에서 잠재적 영향도가 높은 이슈를 도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국제 규범, 가이드라인, SRI 평가 기준 등 지속가능성 일반 이슈와 미디어 분석 및 이메일 서베이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관심 이슈, 경영 전략과 KPI, 혁신 과제 등 포스코 비즈니스 이슈로 이슈 풀을 구성하여 이중 33개 이슈를 선정, 포스코에서 수립한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사회적 관심도와 비즈니스 중요도를 분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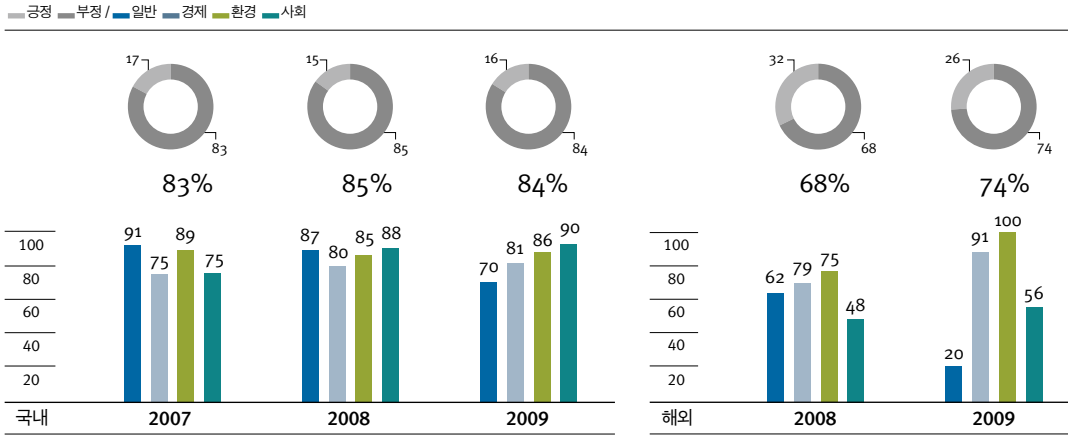
포스코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이슈 풀	중대성 차트	검증 보고서	보고서 발간 절차
이슈 확인	이슈 순위	리뷰	보고 프레임워크
내부 이슈 KPI/ 혁신 과제 정책/ 시스템	비즈니스 중요도 사회적 관심도	외부 전문가 검토 회계기관 검증 경영진 보고	발간 프로세스 정비
외부 이슈 미디어 분석 이해관계자 서베이 GRI/ SAM-DJSI CSM 포럼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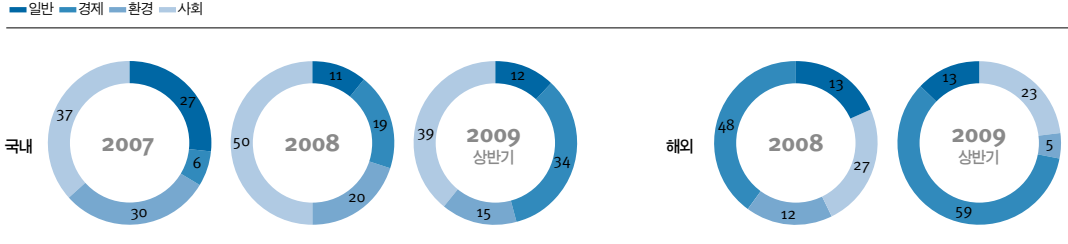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부문별 긍정도 변화 추이



부문별 기사 노출도 변화 추이



이해관계자별 높은 관심 이슈

구분	고객/공급사, 협력사	CSR전문가	정부	지역주민	주주	직원
지속가능경영						
SRI						
일반						
이해관계자 참여						
위험 관리						
국제규범						
신사업						
경영 실적						
R&D						
경제						
인원						
출자사 성과						
기업 가치						
임금						
원료						
환경						
녹색성장						
기후변화						
환경기술						
환경경영						
사회						
인재양성						
상생협력						
사회공헌						
노사관계						

2009년 주요 이슈 (단위 %)

기후변화/온난화/온실가스/탄소/에너지	74
경영 실적/매출/생산/시장 점유	73
지배구조/이사	53
공헌/봉사/메세나	51
대기/수질/토양/배출/방류/쓰레기	50
교육/인재양성/경력 관리	50
환경경영	49
연구 개발/투자/주주/지분	45
지속가능경영/기업 책임/CSM/CSR	45
윤리/부패/정치자금	44

지속가능경영 체제 10
글로벌 포스코웨이 12
포스코 비전 2018 13
기업지배구조 14
기업윤리 16
공정거래 18
위험관리 체제 19
지속가능경영 대외 평가 20

정도경영실/재무실/ERM반

Risk Management

내외부의 재무, 비재무적 리스크 모니터링과 내부 감사를 통해 포스코가 투명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속가능경영 > 위험관리 체제 p19

기업윤리실천사무국

포스코 패밀리 윤리적 기업 문화 구축

포스코 패밀리의 윤리적 기업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하여 윤리 실천 인프라 구축, 임직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합니다.

지속가능경영 > 기업윤리 p16

글로벌 HR실

글로벌 인재 채용, 육성, 지원

포스코의 미래를 짊어질, 글로벌 소양을 갖춘 인재를 확보, 육성, 지원합니다.

열린경영 > 인적자원 개발 p28



경영전략실 경영기획그룹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포스코의 경영 전략과 더불어, 지속가능경영의 필수 요소인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창조경영 > 경영전략 p48



상생협력실천사무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속가능 동반 성장

포스코와 출자사, 외주 파트너사를 포함한 포스코 패밀리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해 금융 지원, 기술개발, 교육 훈련에 걸쳐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합니다.

열린경영 > 상생협력 p33

전사안전실천사무국

재해없는 사업장 구현

포스코 패밀리의 모든 임직원이 재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선진화, 공정/설비 안전화, 안전 시스템 최적화라는 3대 전략 분야를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린경영 > 직원 p26

환경에너지실

환경경영과 기후변화 적극 대응

환경을 철강업의 윤리적 책임이라 인식하고, 환경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환경경영 체제를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환경경영 > 환경경영 시스템 p60

지속가능경영 관련 거버넌스 체제

위원회명(구성)	주요 이슈(운영 주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CEO/위원: 포스코 관련 임원, 출자사, 포스텍, 포스리, RIST 대표)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철강 기술, 신재생에너지(연2회)
상생협력협의회 (위원장: CEO, 중소기업 대표/위원: 출자사 대표 및 포스코 임원, 중소기업 대표)	포스코 상생경영(연2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경영지원총괄/위원: 포스코 관련 임원 및 출자사 대표)	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연1회)
포스코 안전위원회 (위원장: 탄소감사업부문장/위원: 포스코 및 출자사 안전부서장)	안전/보건(연1회)
환경에너지위원회 (의장: 환경에너지실장/위원: 포스코 관련 부서장, 주요 조업부서장, RIST 연구위원장)	환경 및 에너지(연2회)

다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철강 산업은 경제, 사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철강 산업의 특성을 인지하여 포스코는 창립 이래 환경 중시, 인간존중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합니다. 2003년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경영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선포하고 CSM팀(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Team)을 조직한 포스코는 이후 더욱 체계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그간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경영 이념과 접목시켜 지속가능경영의 영역과 가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취직하고 싶은 기업, 같이 일하고 싶은 기업, 투자하고 싶은 기업,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

성장의 힘을 축적해 나갑니다. 포스코는 ‘열린경영’, ‘창조경영’, ‘환경경영’을 토대로 창립 50주년이 되는 2018년, ‘3G(Global, Green & Group) 성장’을 통한 그룹 매출 100조원 달성, 철강을 기반으로 한 종합소재그룹’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현업 부서간 연계를 꾸준히 강화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합니다. 2010년 2월에는 2009 포스코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에 앞서 8개 유관부서가 참가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보고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전사적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 합의하여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지역협력팀

지역사회와의 소통

제철소 건립 때부터 지역사회와의 공존과 상생을 지속해 온 포스코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슈를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자매마을 활동 등 다양한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린경영 > 지역사회 p43

녹색성장추진사무국

철강 경쟁력 제고,
녹색 신성장동력 마련

현재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노력들을 녹색 신성장동력 발굴에 연결하여 철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합니다.

창조경영 > 녹색성장 신사업 p52



포스코는 과거로부터 이어온 포스코 고유의 문화적 강점을 계승하고 글로벌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 2007년 4월, 글로벌 포스코웨이(Global POSCO Way)를 정립하였습니다. ‘글로벌 포스코웨이’는 모든 포스코 패밀리가 공유해야 할 정신적 모델이자 행동양식으로 비전과 핵심가치,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할 핵심가치 실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일류기업에 걸맞은 일하는 방식과 기업 문화인 글로벌 포스코웨이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포스코 구성원들에게 탄탄한 구심점을 제공합니다. 또 다양한 경영 활동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전, 핵심가치 비전 ‘Creating Another Success Story’는 無에서 有를 만들어낸 창업세대의 성공신화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성공신화 2막을 쓰겠다는 포스코의 자신감과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 패밀리는 열린경영, 창조경영, 환경경영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의 확장, 활동 무대의 확장,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또 다른 성공을 힘차게 창조해 나갑니다. 핵심가치는 내일의 비전을 오늘의 현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가 가슴에 품고 실천해야 할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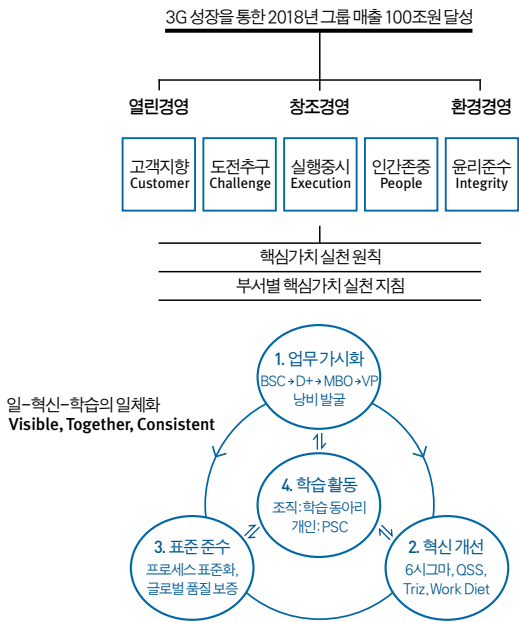
치 판단과 행동의 준거 기준입니다. 포스코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회사와 구성원이 지향할 바를 Customer(고객지향), Challenge(도전추구), Execution(실행중시), People(인간존중), Integrity(윤리준수)로 압축하였습니다. 5대 핵심가치는 과거 40년간 포스코인에게 내재된 철학을 계승·발전시켜, 인간존중과 윤리 준수 사상을 바탕으로 도전과 실행을 통해 고객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는 포스코를 키워왔던 정신적 자산을 글로벌 성장 확대 전략에 따라 전 세계 포스코 패밀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식화하였습니다.

핵심가치 실천 원칙 핵심가치 실천 원칙은 포스코 패밀리 전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핵심가치를 행동 강령 형식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조직과 개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 원칙을 말합니다. 포스코가 글로벌 선진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전, 핵심가치를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에 포스코는 2009년 12월, 핵심가치를 더욱 구체화하여 실제 업무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핵심가치 실천 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핵심가치 실천 원칙은 일·혁신·학습이 일체화된 포스코 패밀리 공통의, 고유한 일하는 방식입니다.

VISION

핵심가치 실천 원칙

“Creating Another Success Story”



원칙

고객지향 Customer

- 1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
- 2 고객과의 신뢰를 중시하고 고객과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 고객 섬기기111, MR
- 고객과의 신뢰, EVI

도전추구 Challenge

- 3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도전적으로 추구한다
- 4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

- D+, 도전 과제, 실패 용인
- Triz, 궁극통 기술

실행중시 Execution

- 5 업무를 드러내어 관리하며 끊임없이 낭비를 제거한다
- 6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표준화하여 반드시 준수한다
- 7 현장과 실행을 중시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

- VP, 6시그마, QSS, Work Diet
- 표준화, 학습 조직
- RAI, MegaY, Big Y

인간존중 People

- 8 열린 마음으로 개인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 9 적극적인 자기개발로 역량을 배양하며 일과 함께 성장을 추구한다
- 10 일상 업무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

- 열린 조직문화, 오픈 커뮤니케이션
- PSC, 통섭형 인재
- SAO 실천, 설비 안전(ILS)

윤리준수 Integrity

- 11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추구한다
- 12 환경을 윤리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친환경 기술 개발과 저탄소 생활화에 앞장선다

- 행동 준칙, 상생 추구 활동
- CO2 감축 기술, 금연, 자전거 타기

지속가능경영 체제 10
글로벌 포스코웨이 12
포스코비전 2018 13
기업지배구조 14
기업윤리 16
공정거래 18
위험관리체제 19
지속가능경영 대외 평가 20

포스코는 2008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가치 창출의 핵심인 철강 사업을 기반으로 에너지·건설 부문을 제2의 성장 사업으로 육성하는 비전 2018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9년 수립된 비전의 경영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2018년 '3G(Global, Green & Group) 성장을 통한 그룹 매출 100조원을 달성하고, 철강을 기반으로 한 종합소재그룹'으로 거듭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먼저 그룹의 사업 구조를 재조정하여 본원 사업인 철강 및 소재 부문을 Core Business로, E&C와 에너지, ICT, 화학 사업 부문을 제2의 성장 사업인 Growth Business로, 그리고 미래 신수종 사업을 Seed Business로 구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뒷받침하는 그룹 경영 체제를 새로이 정립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철강 사업의 글로벌 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그룹의 제2 성장 사업(Growth Business)과 신수종 사업(Seed Business)을 육성, 발굴함으로써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갑니다. 또한 과거 철강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그룹 차원의 미래 복합 성장 기반을 확보하여 100년 기업의 체질을 갖추게 됩니다.

먼저 본원 사업인 철강 사업 부문은 시장, 자원 및 현지 마켓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동유럽, 아시아, 극동 지역을 연결하는 'U' 라인과,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I' 라인에 투자를 추진하여 글로벌 생산 능력과 핵심 시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 및 철강 산업 주도권이 이동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철강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내 생산 기반 투자를 조속히 추진하고, Greenfield는 물론 M&A, Brownfield, Joint Venture 등 유연한 투자 전략과 추진 방안을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원료 최적 조달 체제 구축을 위한 개발 투자도 확대하여 글로벌 철강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시장에서는 4,000만 톤 규모의 최적 생산 체제와 이에 상응하는 판매 체제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경쟁 여건에서도 내수 철강 리더십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어 철강 사업에서의 경험과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포스코는 기초 및 혁신 소재를 망라하는 글로벌 종합 소재 Provider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 목표는 그룹의 보유 자원, 핵심 역량 및 Value Chain과 연계하여 철강 관련 사업 및 미래형 신소재 사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추진 실행력을 담보하고 최대 성과를 창출하여 달성할 것입니다.

철강, 소재에 이어 그룹의 제2 성장 사업군으로 육성되는 E&C와 에너지, ICT, 화학 사업 부문은 2018년까지 그룹 성장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E&C 부문은 포스코건설을 주축으로 프로젝트 플레닝 중심의 EPC와 운영·보수를 아우르는 PEPCOM 체제를 구축하고 독자 기술을 개발, 접목시킴으로써 Global Top 20 규모의 Contractor로 도약할 것입니다. 에너지 부문은 보유 역량 사업인 Gas & Power를 강화하여 성장 기반으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녹색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ICT와 화학 부문에서는 그룹 미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진출했던 사업을 통합·보강하여 포트폴리오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룹 내 부문간 협력과 그룹 사업의 공동 수행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특히 중동, 아프리카 및 극동 지역에서 원료 개발 및 에너지, 건설 등 '패키지 딜형' 글로벌 사업도 함께 전개하여 그룹사의 동반 성장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본원 사업과 제2 성장 사업을 뒷받침하고 향후 포스코 100년을 이끌 성장동력을 확보할 신수종 사업으로는 소재 사업과 함께 해양 사업, 플랜트 사업, 조선 및 자원 확보 사업을 주목합니다. 포스코는 이들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보유한 핵심역량을 활용해 녹색 신성장 사업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철강 연관 분야 등의 기업 M&A를 이행하여 신수종 사업군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그룹 운영 체제 정립 포스코는 그룹 포트폴리오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룹 운영 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그룹 경영 체제는 그룹 차원의 전략 체계를 일차시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직 구성 및 활동, 통합자원관리시스템 운용, 이에 더하여 그룹 경영의 근간이 되는, 하나된 기업 문화가 유기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토대로 포스코는 그간의 성과를 뛰어넘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도약하는 '포스코 3.0 시대'를 만들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포스코 중심의 성과 창출과 기업 문화를 넘어 이제 그룹 전체의 성과를 최적화하는 운영 체제로 비전과 전략, 브랜드를 공유하며, 조직 문화 및 일체감을 중시하는 그룹 문화를 정립해 하나된 포스코 그룹(One POSCO)을 완성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그룹 내 인력 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포스코 패밀리 꿈의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룹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패밀리 구성원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2018 경영 목표를 달성하여 포스코의 비전인 'Creating Another Success Story'를 새롭게 써 내려가겠습니다.

포스코는 기업지배구조의 비전과 원칙을 표명한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의거하여 이사회와 독립성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이사회는 사내이사 5인과 사외이사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운영해 이사회 의제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독립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채택하여 주주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였으며,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과 경영진을 대표하는 CEO를 분리하여 이사회와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진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CEO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CEO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정을 신설, 준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이 사 수를 총 15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여 이사회와 보다 효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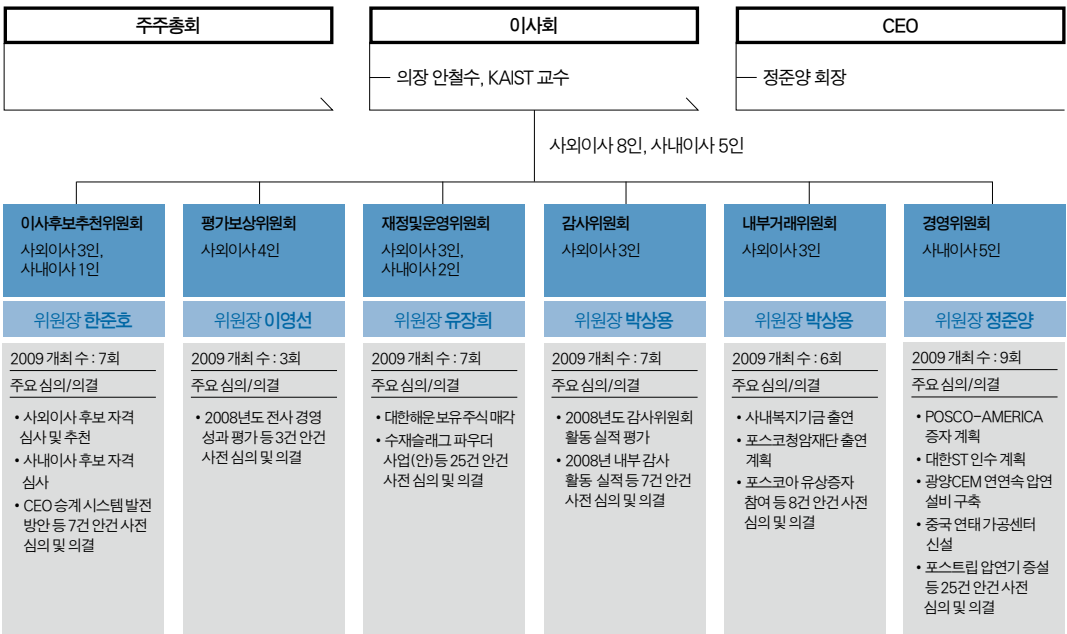
인 운영을 꾀했습니다.(사외이사 9명, 사내이사 6명 → 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5명)

주주 구성 2009년 12월 말 기준, 포스코의 총 발행 주식 수는 87,186,835주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이 가운데 16,514,756주는 ADR 62,994,368주로 뉴욕, 런던,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말 기준, 상위 5대 주주가 발행 주식의 18.8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포스코 이사회는 독립적인 사내이사 5인과 사외이사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하여 최종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외이사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각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으로부터 선임 예정 이사의 3배수를 제안받고, 이후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하여 후보를 추천하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0년 2월 26일에 있었던 4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한용

이사회 및 주요 역할 구성



지속가능경영 체제	10
글로벌 포스코웨이	12
포스코 비전 2018	13
기업지배구조	14
기업윤리	16
공정거래	18
위험관리 체제	19
지속가능경영 대외 평가	20

부사장(前 포스코ICT 사장), 포스코 오창관 부사장, 김진일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으며, 신규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2009년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안은 2010년 경영 계획, 그룹사 통합/개편 계획,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 계획, 연말 이웃 돕기 성금 출연 등이었습니다.

2009년 포스코 이사회는 총 7회 개최되었으며, 출석률은 97.1%이었습니다. 이중 사내이사 출석률은 97.6%, 사외이사 출석률은 96.7%이었습니다. 사외이사별 참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1~2월 재직자인 서운석, 박영주, 박원순, 허성관 사외이사의 출석률은 100%였습니다. 2009년 3~12월 재직인 김병기, 박상용, 손욱, 안철수, 유장희, 이창희, 한준호 사외이사의 출석률은 100%였으며, 이영선, 제프리존스 사외이사는 각각 80%, 86%였습니다.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총 6개가 있으며,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는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어 이사회와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합니다.

이사 및 임원 보상 사외이사 및 상임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09년 주주총회에서는 한도액을 전년과 동일한 60억 원으로 유지하였으며, 실제 지급액은 58억 원이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기본 연봉, 성과 연봉,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기본 연봉은 이사회에서 직위별로 결정한 기준 금액을 따릅니다. 성과 연봉의 지급률은 이사회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밖에 이사의 보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평가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포스코는 성과 연봉 제도를 시행해 경영진의 보상과 경영 성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성과 연봉의 지급 기준에 의하면, CEO의 성과 연봉은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종합한 전사 경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CEO를 제외한 상임이사와 집행임원은 전사 경영 성과 평가 및 CEO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연봉이 지급됩니다.

포스코 사외이사 구성 (2010년 3월 기준)			
구분	성명	주요경력	전문위원회 활동
사외이사	안철수	現KAIST 교수, 現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
		前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사장	평가보상위원회
	손 욱	前농심회장, 前삼성인력개발원 사장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박상용	現연세대 경영학과 학장, 前한국증권연구원장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유장희	現동아시아경제학회 회장, 前이화여대 대외 부총장	재정및운영위원회 위원장, 평가보상위원회
	한준호	現삼천리 대표이사 부회장, 前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재정및운영위원회
	이영선	現한림대 총장, 前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병기	前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前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재정및운영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이창희	現서울대 법학부 교수, 現한국세법학회 국제이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내이사	정준양	대표이사 회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최중태	대표이사 사장	재정및운영위원회, 경영위원회
	박한용	부사장(前 포스코ICT 사장)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오창관	부사장	경영위원회
	김진일	부사장	재정및운영위원회, 경영위원회

포스코 윤리 실천 활동의 특징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 임직원이 일상에서 윤리 실천을 자연스럽게 체화한다는 것입니다.

포스코의 윤리 실천 핵심 키워드는 ‘지속 교육’, ‘일벌백계’, ‘리더의 솔선수범’입니다. 특히 리더의 솔선수범과 관련하여 포스코는 누구보다도 CEO가 직접 나서서 윤리 실천의 장점을 강조합니다. 포스코의 CEO는 윤리규범 준수 서약일과 윤리규범 선포일에 윤리 관련 CEO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윤리 실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관련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에서 윤리 실천 인프라를 끊임없이 접하여 윤리적 기업 문화를 체질화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 및 캠페인 윤리 실천을 기업 문화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임직원의 건전한 윤리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포스코는 고유의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합니다. 2003년부터 매년 리더 계층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당 2시간의 윤리적 리더십 강화 교육,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과정인 ‘찾아가는 윤리교실’, 거래처의 윤리 실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거래사 설명회’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매년 20시간 분량의 e-러닝을 전 직원이 필수 과정으로 이수합니다. 또 2005년부터는 부서 단위로 1년 주기의 부서별 윤리 실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포스코 임직원들은 윤리 실천 학습과 토론을 실시하고, VP(Visual Planning) 방법을 통한 윤리적 리스크 발굴 및 예방 활동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 출자사와 외주 파트너사가 같이 보는 기업윤리 웹진 ‘올바름!’을 월 1회 발간하고, 윤리를 테마로 한 팝업 창과 화면보호기를 운영하는 등 윤리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윤리 실천 인프라

포스코는 다양하고 앞선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여 효과적인 윤리 실천에 노력합니다. 특히 업무를 시작함에 앞서 온라인으로 ‘윤리 규범 준수 서약’을 다짐하여 매년 윤리 실천 의지를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비윤리적 행위 예방과 건전한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되는 ‘비윤리 행위 신고보상제도’를 2004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첫째, 임직원의 비리·품위 손상·사회적 지탄 행위, 둘째, 회사 손실을 초래하는 직원의 고의나 태만 행위, 셋째, 우리 회사와의 거래 관련 제반 불이익 등입니다. 상담 및 신고는 회사 홈페이지 윤리상담실과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직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가능합니다. 포스코는 상담과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누적 상담 건수는 540여 건, 연 평균 100여 건 내외로 안정적인 상담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3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선물 반송센터를 운영하여 명절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선물 안주 고 안 받기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켰습니다. 접수한 선물 중 반송하지 못한 물품은 양로원 등 사회시설에 기탁하고, 불가피하게 기탁하지 못한 물품은 사내 온라인 경매를 통해 처분하여 거둔 수익금 전액을 사회봉사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반송 처리한 선물은 총 550건이며, 7차례의 사내 경매로 거둔 수익금은 모두 680여 만원입니다.

포스코 기업윤리 연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6.2 포스코 윤리규범 선포 7.23 기업윤리상담센터 설치 8.15 윤리규범 실천 지침 제정, 시행 8.25 ~ 9.1 선물반송센터 최초 운영 8.1 윤리실천특별약관 시행	8.24 비윤리 행위 신고보상제도 시행	1.3 범포스코 전 임직원 대상 윤리규범 준수 서약 실시 6.10 부서별 윤리 실천 프로그램 킷 오피 12.13 제4회 '기업윤리 대상' 수상	2.28 2006 '존경받는 기업·기업인 대상' 수상 7.27 기업윤리 온라인 웹진 'Ethics Digest' 발간 8.24 윤리위원회 구성 및 첫 회의 개최 12.7 포스코 윤리 실천 프로그램 제6회 투명사회상 수상	7.12 비즈니스 워크지 선정, 가장 존경받는 아시아 기업 9.28 ECOA 연례 컨퍼런스 포스코 사례 발표 10.16 윤리규범에 성희롱 내용 신설 등 일부 조항 변경	2.14 한국 윤리경영대상 최우수 종합 대상 수상 6.5 사회공헌 온라인 웹진 '함께하는 세상' 발간	3.5 승진 축하 화환 사내 경매 실시 4.21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존경받는 기업·기업인 대상' 수상 8.31 윤리 딜레마 사례 해설집 발간

지속가능경영 체제	10
글로벌 포스코웨이	12
포스코 비전 2018	13
기업지배구조	14
기업윤리	16
공정거래	18
위험관리 체제	19
지속가능경영 대외 평가	20

2009년부터는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외부로부터 받은 축하 화환도 경매에 부쳐 총 1,600여 만원의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윤리 실천이 형식적 제도와 학습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의 신분증 뒷면에는 “지금 하는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시간과 권한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회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업윤리자가 진단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내 엘리베이터나 로비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윤리 경구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 실천 확산 포스코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윤리경영을 확산시키고자 당사 신규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윤리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거래 기업은 필수적으로 윤리설명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004년 이후 윤리설명회에 참여한 회사는 930여 개이고, 2009년에는 100여 개사에 이르렀습니다. 또 모든 계약서에는 윤리실천특별약관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윤리 행위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가 주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리 실천을 통한 인권 보장 포스코는 윤리를 실천해 인권 보장과 인간존중의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장, 인간

존중과 관련 지어 윤리 실천의 키워드는 배려와 상생, 신뢰입니다. 이는 윤리규범 기본 책무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윤리 실천의 기본 대상인 이해관계자를 생각할 때,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함께 성장, 발전하는 것이 포스코의 신념이자 철학입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철학이 이념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용적, 효과적인 제도와 캠페인 활동으로 연결시켜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 보장과 인간존중에 위배되는 행동, 사례를 접수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윤리 홍보 수단인 사보와 웹진, 팝업 창 등을 통해 다양한 윤리 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구체적 상황을 중심으로 윤리 딜레마 사례 해설집도 발간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인권 보장 차원에서 성희롱 예방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행동 지침 제5항에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성희롱 예방 e러닝 과정을 만들어 교육에 힘쓰며 성희롱 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 딜레마 사례 해설집

2009년 9월 발간한 '윤리 딜레마 사례 해설집'은 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윤리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지침을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 사례집을 포스코와 출자사, 외주 파트너사 전 임직원에게 배부했다.



포스코는 200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기업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켜 왔습니다. 2003년 6월 포스코는 윤리규범을 선포해 최고경영자의 자율 준수 의지 및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매년 초 전 임직원들로부터 윤리규범 준수 서약을 받습니다. 2004년부터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는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CP 운영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에 신설된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출자사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48건의 안건을 심의·보고하였고, 전담 조직으로 2004년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자율준수협의회 판매, 구매, 외주 등 공정거래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는 정기 회의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율준수 관리자의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산하부서는 공정거래 실무를 총괄하는 공정거래 실천 리더를 선임하여 협의회 위원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한편, 부서별 자율 점검 및 상담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2002년 개설한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e-러닝 과정은 2008년 대폭 개선되어 2009년까지 임직원 수료자 총 31,490명을 배출했습니다. 포스코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외 전문가를 초청한 실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신입사원, 승진자, 판매·구매 등 사내 유관부서, 출자사 등 계층별, 부문별 1,066명이 총 30회에 걸쳐 집합 교육을 받았으며, 매년 자율 준수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개설된 포스코 공정거래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자율 점검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판매, 구매, 외주 등 7개 핵심 부서를 자율 점검 필수 부서로 지정하여 자율 점검 체계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웹사이트의 주된 기능인 ‘부서별 자율 점검 및 상담 체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 감독 체계입니다. 공정거래 유관부서의 실무자들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관 업무를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사내 전문부서와 미리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포스코는 2009년부터 그룹 전체 공정거래 활동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포스코 공정거래 웹사이트를 출자사 통합 공정거래 사이트로 개편하여 운영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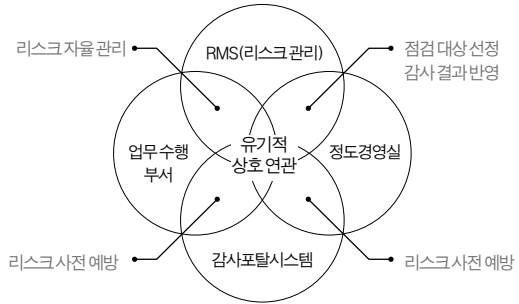
2009년 활동 성과 2009년에는 기업 집단 차원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하고 내부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출자사의 공정거래법 준수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사내 팝업 창 게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편람 발간, 배포 등 공정거래 확산 활동으로 임직원들의 지속적 관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더불어 포스코는 출자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도 지원합니다. 2009년 기준, CP를 운영 중인 출자사는 총 14개사입니다. 포스코는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자율 준수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공정거래 실천 리더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공정거래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Fair Trade Academy’도 연 4회 개최하여 범포스코 차원의 자율 준수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등급 평가에서 포스코 출자사들은 우수한 성과(AA등급 2개사, A등급 3개사, BBB등급 1개사)를 거두었습니다. 포스코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 평가에서도 최우수(A+) 등급을 획득하여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 2010년 포스코는 포스코 패밀리 차원에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를 더 확산시키고 CP 내실화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법 위반 행위의 철저한 예방과 점검 활동 강화, 자율 준수 실행 네트워크의 활성화, 출자사 CP 도입 및 운영의 내실화로 CP를 패밀리 차원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점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공정거래 자율준수교육 로드맵’을 수립해 직급별, 부문별, 출자사별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 위반 리스크가 높은 부문은 주기적인 점검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출자사를 대상으로 분기 1회 ‘Fair Trade Academy’를 개최, 실무 담당자의 업무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출자사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현황					
	~2003	2006	2007	2008	2009
	포스코건설	포스코강판	포철기연(현 포스코플랜텍)	포스틸	포스에이씨
	포스데이터(현 포스코CT)	포스콘(현 포스코CT) 포스렉(현 포스코램텍)	포철산기(현 포스코플랜텍)	포스메이트	포스코파워
	포스코특수강	삼정피엔에이	-	-	SNNC
회사 수(누계)	3개사	7개사	9개사	11개사	14개사

지속가능경영 체제	10
글로벌 포스코웨이	12
포스코 비전 2018	13
기업지배구조	14
기업윤리	16
공정거래	18
위험관리체제	19
지속가능경영 대외 평가	20

리스크 관리 체계도



현업 자율 예방 체제 구축 포스코는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4년, 전사 위험관리시스템인 RMS(Risk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전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프로세스별로 리스크를 설정, 평가하여 등급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RMS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경영 환경에 따른 리스크 갱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 감사 활동을 연계해 업무 수행 부서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리스크를 항상 조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리스크 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RMS를 기반으로 부문별 감사포탈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소수의 감사 담당자가 전사 리스크를 직접 모니터링하는 업무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포스코는 리스크 관리의 기초가 업무수행 부서임을 인식하고 포탈시스템을 업무 수행 부서에 개방, 업무 수행 단계에서 리스크를 관리하여 사전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포스코의 위험 관리 체제는 한 번 더 진보했습니다. 포스코는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업무 수행 부서 책임자에게 메일로 즉각 통보하여 더 큰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08년과 2009년, 2년에 걸쳐 구축된 이 시스템은 총 110개의 이상 징후 정보를 구매, 영업, 투자, 정비, 조업 부문 현업 부서에 제공하여 현업 부서 스스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상 징후 정보는 업무 책임자가 중점 관리해야 할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됩니다. 이 시스템은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도경영실에서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사례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 현업부서 리스크 자율 예방 체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합니다.

* SOX(Sarbanes-Oxley)법: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기업회계개혁법. 회계 부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허용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미국의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단체)

내부 감사 강화를 통한 위험 예방 포스코는 감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사 업무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동일한 리스크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리스크 예방 프로세스 및 업무 개선 위주의 경영진단형 감사를 강화하고 비윤리 행위자를 더욱 강력히 징계하여 180여 건의 지도, 개선 등 행정 조치와 110여 명의 징계, 경고 등 인사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2010년 포스코는 포스코의 글로벌화에 맞추어 해외 출자사 경영 진단을 확대하며, 예방 감사, 지도 감사로 리스크 발생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감사 후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리스크 재발을 방지할 것입니다. 특히 비윤리 행위 발생 예방과 리스크 관리 수준 고양을 위해 현업부서에 감사사례집을 배포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신입 관리자, 해외 근무자를 대상으로 사례 교육을 2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접촉이 잦은 부서를 대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윤리 항목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작성하게 하여 VP(Visual Planning) 시간에 활용하였습니다.

재무 보고 내부 통제 한국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포스코는 2003년 12월 공시 및 내부 통제에 대한 CEO/CFO의 인증 절차 수립 및 공시위원회 운영 등 재무 보고 과정의 내부 통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4년부터 내부 통제 활동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OX법*상 2006 회계연도부터 외부 감사인의 입중 감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2005년 3월,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평가시스템도 구축 완비하였습니다. 또 2006년부터 외부 감사인의 인증 감사를 수행하여 재무 보고 산출 및 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재무 보고 내부통제시스템은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COSO**와 미국 SEC에서 제시하는 ‘Standard Control Activity Framework’를 이용하여 10개 부문의 중요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업무 위험을 평가하였으며, 통제 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또 연간 단위로 내부 통제를 평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전 부문을 동시에 접속해 내부 통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웹 포탈 평가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내부통제평가시스템 내부 통제 운영의 효과성 평가는 현업무를 이해하는 독립부서의 검증요원이 담당하여 경영진 인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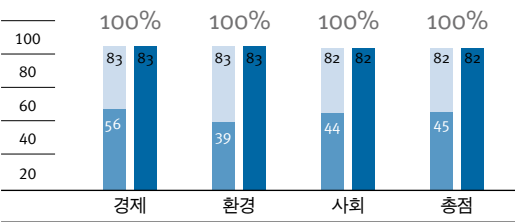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 대외 평가

포스코는 2003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가능경영 활동 전반과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업의 명성 모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포스코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인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SAM-DJSI)'에 2005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강업계 최고 점수로 3년 연속 Sector Leader에 선정되었습니다. 또 Sector Leader 중 75점 이상 기업에게만 수여하는 Gold Class에도 2008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환경적 리스크가 높은 철강 부문에서 5년 연속 DJSI 기업으로 선정된 사례는 포스코가 처음이며, 특히 2009년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 속에서도 포스코는 우수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 평가에서는 17개 평가 항목 중 7개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 2008년도 79점보다 3점 상승한 82점을 획득했습니다.

SAM-DJSI 평가 결과

(단위: 톤) — 철강업계 최고점 — 철강업계 평균 — 포스코 점수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 최고점 대비(%)	100	100	100	100	100
환경 최고점 대비(%)	90	92	92	98	100
사회 최고점 대비(%)	96	100	100	100	100

2010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다보스 글로벌 100대 기업에 포스코는 국내 기업 최초로 선정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Wall Street Journal 및 Fortune Global 500에서도 각각 존경받는 한국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Forbes 200대 기업에도 2년 연속 편입되는 등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능률협회는 6년 연속 포스코를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하였고, 전국경제인연합은 포스코에게 2009년 존경받는 기업 및 기업인 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DJSI Korea의 지속가능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한편, 한겨레경제연구소 2009 CSR 우수기업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활동 전반에 관한 종합 진단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8 포스코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한국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 및 LACP(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 보고서로 선정되어 보고서의 품질과 신뢰도를 국내외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의 수상 내역

'09.2.23	한국능률협회, 가장 존경받는 기업 (2위) 6년 연속
'09.3.16	Fortune Global 500,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강 기업 (5위)
'09.4.9	Forbes, 글로벌 200대 기업(153위), 2년 연속
'09.4.21	전국경제인연합, 2009 존경받는 기업 및 기업인 대상
'09.5.22	Wall Street Journal, 존경받는 한국 기업 Top 3, 4년 연속
'09.9.29	한국능률협회 글로벌 녹색경영대상 지속가능성보고서 부문 우수상
'09.10.14	한국표준협회+GRI,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우수상
'09.10.20	한국생산성본부 DJSI Korea, 지속가능성 우수기업상
'09.10.28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 Professionals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 Spotlight Awards 지속가능성보고서 금상
'09.12.16	한겨레경제연구소, 2009 CSR 우수기업 시상, 종합 대상
'10.1.27	다보스 포럼, 글로벌 100대 기업, 대한민국 최초 편입
'10.2.18	ERISS+경향신문, 2009 지속가능성지수 (2위) 2년 연속

샘-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SAM-DJSI)



DJSI는 금융 정보 회사인 다우존스가 지속가능경영 우수 기업의 기업 가치 변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DJSI는 다우존스 글로벌 인덱스에 포함된 세계 2,5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우존스는 스위스의 샘(SAM) 연구소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의뢰하고 있으며, 샘 연구소는 미디어 조사와 이해관계자 분석, 그리고 광범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SAM DJSI 회원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샘 연구소는 회원사로 선정된 기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례 재평가를 통해 평균 10~15%의 기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주식이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ing)' 기금에 우선 투자 대상으로 추천됨에 따라, 회원사들은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리라 기대됩니다.

포스코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 포스코 3.0에 담겠습니다

포스코의 이름으로 달성하지 못한 목표는 없습니다.

포스코의 역량으로 꿈꾸지 못할 미래 또한 없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 패밀리, 포스코 임직원,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열린경영, 창조경영, 환경경영을 공감, 실천하며

포스코가 추구해야 할 모든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포스코 본업인 철강업을 바탕으로 자원, 에너지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고 조직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포스코 3.0으로 가는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22 열린경영

- 24 직원
- 33 상생협력
- 38 사회공헌
- 43 지역사회

46 창조경영

- 48 경영 전략
- 49 기술 혁신
- 52 녹색성장 신사업
- 54 주요 경영 성과

56 환경경영

- 60 환경경영 시스템
- 61 환경 관리 활동
- 63 기후변화 대책
- 65 환경 성과

68 포스코 패밀리

- 68 글로벌 포스코
- 70 지속가능 성장 기반 확보

사람과 세상을 향해
열린 사회를 만듭니다.
포스코의 이름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더 깊게 소통합니다.

포스코 패밀리가 합심하여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복에 앞장섭니다. 사람을 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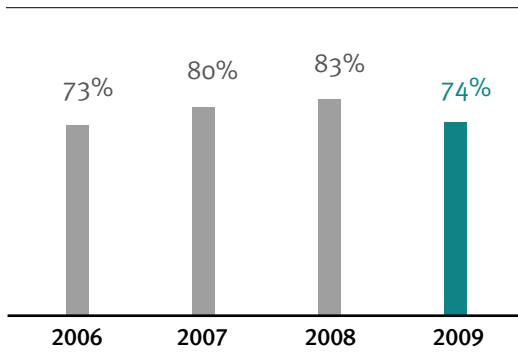
포스코는 SAM-DJSI 3년 연속 철강 부문 최우수 지속가능기업, 5년 연속 글로벌 우수기업, 다보스포럼 Global100에 선정되었습니다.



임직원은 포스코 패밀리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동시에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포스코는 포스코 임직원과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며 그들의 니즈에 귀 기울입니다. 인적 자원 개발 체계, 합당한 보상 체계, 복리후생제도 등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이 창조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포스코 패밀리의 경쟁력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는 임직원의 안전 보건과 인권 보장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직원과의 의사소통

최근 4개년 성과 몰입도 추이



포스코는 2003년부터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과 공동으로 직원 성과 몰입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포스코 임직원들의 성과 몰입도는 2008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포스코 직원들의 성과금 감소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원과의 열린 소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경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오픈커뮤니케이션사무국을 신설하여 신뢰와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갑니다. 포스코는 올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개선 분야를 도출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층 및 부문별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과 팀 파워 향상 활동, 간담회 개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과 몰입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직원과의 의사소통 기구

●**노경협의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1997년 11월 17일 출범한 포스코 노경협의회는 근로자 위원과 경영자 위원, 각 10명씩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직원의 복지 증진 및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직원대기구입니다. 노경협의회는 생산성 향상, 성과 배분, 고충 처리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하고 경영층과 정기,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회사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직원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경협의회 조직 체계는 전사협의회, 제철소협의회, 부문협의회, 부(실)협의회, 공장(과)협의회로 구성되어 총 418명의 노경협의회부·공장 위원들이 각 단위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경협의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회사 경영 현황과

정책 등을 설명하고, 고충 사항 등 직원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사와 직원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갑니다. 노경협의회는 매년 다양한 활동으로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2009년에는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여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고철 좁기 운동 등 각종 경비 절감 활동을 통해 회사 경쟁력 증진 및 위기 극복 노력에 힘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노경협의회는 적극적인 현장 활동 및 워크숍 등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층에 직원 정서를 전달하며 애로 사항 해결에 앞장서는 등, 직원과 함께 호흡하는 직원대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제5대 노경협의회는 2009년 10월 16일, 직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위원 10명과 부·공장 위원 418명을 선출하였고 ‘상생, 봉사, 참여’라는 3대 모토 아래 2009년 11월 17일부터 3년 임기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노경협의회는 앞으로도 직원 건의 사항 및 애로 사항에 귀 기울이고, 직원 복리 증진과 회사 발전을 목표로 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회사 내 성숙한 소통과 신뢰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많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오픈커뮤니케이션사무국** 포스코는 2010년 2월 1일, 회사의 상하·수평·내외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포스코 3.0 신뢰 문화를 구축하고자 오픈커뮤니케이션사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오픈커뮤니케이션사무국은 회사 주요 정책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리더와 직원들의 신뢰와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 4월에는 포스코 패밀리 차원에서도 신뢰와 소통의 문화를 확산,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4개 분과가 모인 포스코 패밀리 오픈커뮤니케이션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의사소통 채널

●**영보드** 영보드는 젊은 직원들이 회사 전략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경영층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 1999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참여 대상을 출자사 직원들까지 확대하였으며, 2009년 영보드의 운영 범위는 해외 법인을 포함한 포스코 패밀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09년 영보드의 대표 활동은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 구축을 위한 Speed Management 도입, 미래 신성장 아이디어 발굴 등 총 4건의 과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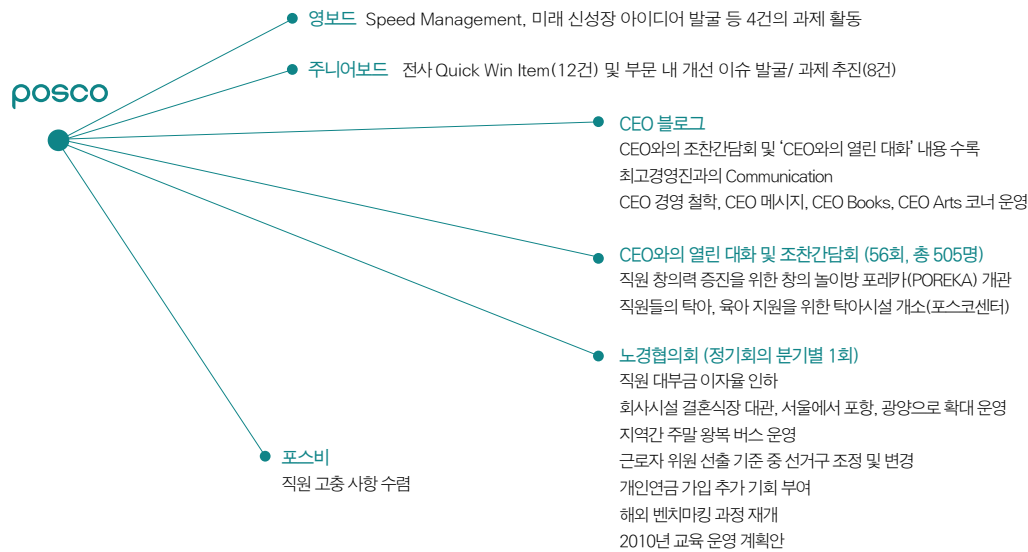
●**주니어보드**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주니어보드는 영보드와 달리 부문별로 총괄직 이하 직원 8~20명으로 이루어진 의견 개선 전달 기구입니다. 부문 차원에서 조직간 벽을 넘어 열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고,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활기찬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주니어보드의 역할입니다. 2009년 상반기에는 총 12건의 Quick Win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로열티 높은 N세대 만들기’, ‘Relationship Marketing 이론에 기반한 포스코 마케팅 활동 향상 실행 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각 현업으로 연계되어 개선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스비** 포스비(POS-B)는 직원들이 회사 관련 내용을 토론하고 업무 고충 및 개인 생활도 상담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에 개설된 공간입니다. 업무 관련 상담을 등록하면 해당 부서에서 확인 및 답변하며 이를 업무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포스비는 최고 경영자까지 열람이 가능하여 직원과 경영자 간 수평적 의사소통 기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CEO와의 열린 대화 및 조찬간담회 실시** 포스코는 매년 연말, 회사의 혁신 페스티벌인 IF(Innovation Festival)의 특별 세션으로 ‘CEO와의 열린 대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스코, 계열사 및 외주 파트너사의 계층 대표 직원들이 CEO와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개진하는 신뢰와 소통의 장입니다. 대화 현장은 사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특히 CEO와의 열린 대화는 2010년부터 CEO와 직원들의 직접 소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월례 행사로 진행합니다.

2009년에는 정준양 회장 취임과 더불어 ‘CEO와의 조찬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CEO와의 조찬간담회’는 CEO와 직원이 직접 소통하며 VOC를 청취하고 회사의 비전, 경영 철학, 정책을 CEO가 직접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총 56회에 걸쳐 505명이 참석한 이 행사의 성과는 풍성합니다. 포스코는 창의적 조직 문화와 개인 역량 개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09년 9월, 창의 놀이방인 포레카(POREKA)를 개설했으며 PSC(Personal Score Card)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제안을 수렴하여 2010년 3월, 직원들의 탁아, 육아를 지원할 전문 탁아시설을 포스코센터에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 CEO와의 조찬간담회는 그 대상을 포스코 패밀리사까지 확대하여 진행합니다.

COMMUNICATION CHANNEL



안전 '안전'은 포스코 모든 임직원들의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갑니다. 사람의 실수나 기계의 고장에도 몸이 다치지 않는 Safety Dream Factory를 실현합니다.

●**전사안전실천사무국 발족** 포스코는 2009년 7월 전사안전실천사무국을 발족하여 포항, 광양 등에서 부문별, 지역별로 추진하던 안전 보건 활동을 포스코 사업장 내 출자사, 외주사를 포함해 포스코 패밀리 차원으로 통합하고 최적화하였습니다. 이제 포스코는 모든 포스코 사업장 내에서 통합된 안전 보건 관리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안전 활동을 추진합니다. 먼저 전사안전실천사무국은 출자사와 외주사의 토론과 의견을 수렴해 포스코 패밀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포스코 안전 신념, 안전 슬로건, 10대 안전 철칙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Injury Free POSCO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eople, Technology, System 차원에서 '안전 의식 선진화', '공정/설비 안전화', '안전 시스템 최적화'라는 3대 전략 분야를 설정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 의식 선진화** 안전 의식 선진화 분야에서는 직원들과 대화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여 근원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SAO(Safety Act Observation)를 정착시킵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계층별 교육 훈련 및 전문가 양성 등 역량 향상 활동과 SAO 수준 진단 및 연도별 정기 SAO 경연 대회 등 저변 확산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합니다. 또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할 때 QSS 혁신 활동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 테마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설비 안전화** 공정/설비 안전화 분야에서는 RFID, CCTV,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 안전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등 Fail Safe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 작업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고, 가동중인 설비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접근,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근원적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정지중 및 가동중 설비출입관리시스템, ILS(Isolation Locking Syste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 최적화** 안전 시스템 최적화 분야에서는 포스코 안전 진단 Tool(Posco Safety Rating System)을 개발, 적용하여 포스코 차원의 맞춤형 안전 진단 및 체계적인 개선, 변화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직책보임자별, 조직별 안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안전 방재 시스템을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의 안전 보건 경영 방침을 전파하고 안전 성과 분석 및 안전 전략, 안전 신기술 및 지식을 공유하는 포스코안전위원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또 월간 단위의 안전 관계자 워크숍 및 안전 영상 간담회를 통해 안전 관리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성과**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09년 중대 재해*는 2008년 대비 3건이 줄어든 1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재해는 협착, 충돌 및 격돌이 주를 이루며 16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설비 가동 상태뿐만 아니라 정지 상태에도 설비에 대한 ILS를 확대 적용하여 향후,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 포스코 안전 관련 제도, 시스템 및 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p74에 있습니다.

보건

●**직원 건강 관리 체계** 인간존중은 포스코의 핵심가치 중 하나입니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건강 상태 유지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직원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건강증진센터는 노동부가 공식 지정한 일반건강진단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입니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검진 결과를 건강관리시스템에 자동·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시스템의 건강 검진 데이터는 항목별로 분석되어 건강 이상 및 건강 이상의 초기 징후가 발견된 직원을 위한 질병 악화 예방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건강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산업 의학전문의와 건강 상담도 실시하고,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식식이습관 및 운동 처방도 받습니다. 아울러 포스코는 직원의 체력 증진을 위한 자체 피트니스센터와 직원 및 직원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실을 사외 심리상담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형분석기, 디스크 감압치료기, 디스크 재활치료기 등 시설을 갖춘 물리치료실도 포스코 임직원들의 건강한 체형 관리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돕는 건강 복지 인프라입니다.

●**건강 증진 운동** 2009년도 포스코의 건강 증진 운동은 정준양 신임 CEO의 저탄소 녹색성장 의지를 반영한, 임직원들의 Green Life 실천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포스코 전 직원(서울포스코센터,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을 위해 Health-Up 추진반이 신설되었으며, 금연, 식습관 등 전사 차원의 건강 증진 및 Green Life를 실천할 계획을 수립하고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직원의 건강 관리 및

직원 24
상생협력 33
사회공헌 38
지역사회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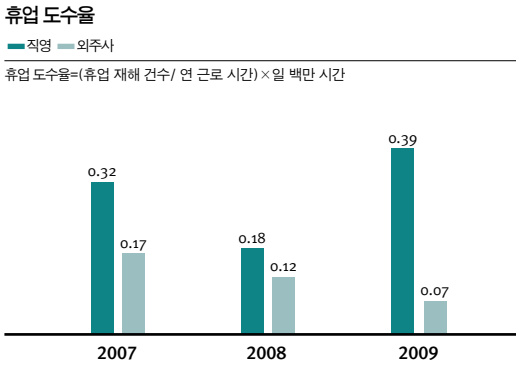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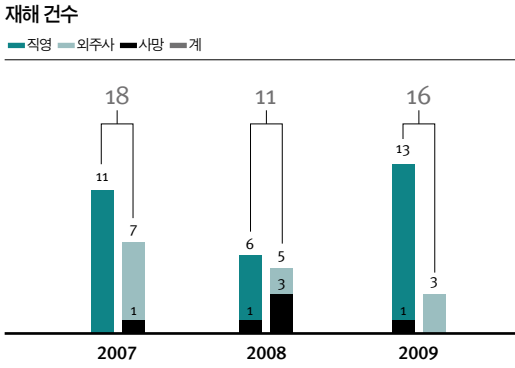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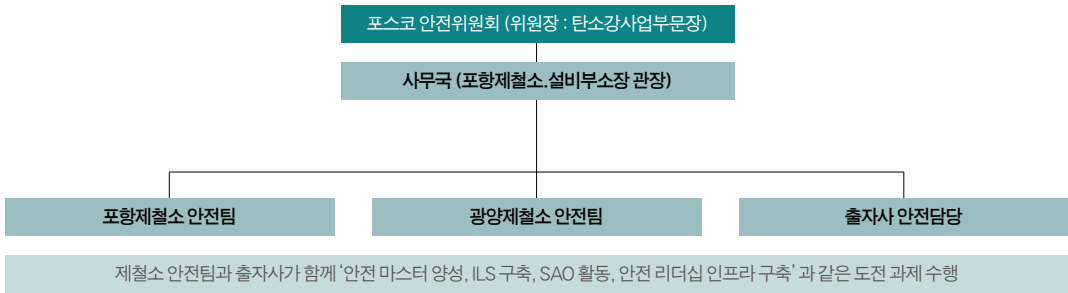
증진을 위하여 KPI(Key Performance Index)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금연 100% 달성, 비만 저감 및 고혈압, 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등을 예방해 건강한 직원의 비율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임직원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환경보호, 에너지 절감과 병행하여 직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식습관 개선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저열량, 저염도 위주의 건강식단 코너를 개설하고 CO₂를 많이 발생시키는 육류 대신 채식을 제공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스트레칭 동작을 개발해 매일 오후 3시 30분, 전사적인 '스트레칭 타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 관리**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려면 작업 공정별 건강 장애와 불쾌감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 요인을 예측, 측정,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노동부로부터 '작업환경저체 측정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포스코 건강증진팀은 매년 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및 분석 정도 관리'에 참가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철소 전 공정의 소음, 분진 등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여 직원들의 작업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들 측정 결과를 작업환경관리시스템에 누적 관리하여 부적합한 작업 공정을 발굴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 교육** 포스코는 '산업 보건'을 주제로 한 e-러닝 강좌를 실시하여 포스코와 출자사 임직원들의 보건 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총 9차 과정으로 운영된 e-러닝 '산업 보건' 강좌는 포스코와 패밀리사 및 분사 법인 직원을 포함하여 총 1,590명의 임직원들이 수강하였습니다. '산업 보건' 강좌는 건강 증진, 건강 진단, 산업 위생, 개인 위생 보호구, 건강 장애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 주제별로 다양한 산업 보건 교육 자료를 작성 등록하여 수강생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안전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도



통합의 시대, 융합의 시대에 포스코는 인문학, 자연학의 구분 없이 통합적이고 열린사고를 실천하는 '문(文)·리(理)통섭형' 인재를 추구합니다. 인재 확보부터 육성, 교육, 지원에 이르기까지 문(文)·리(理) 통섭형의 창조적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포스코는 사회, 국가적 이슈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글로벌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재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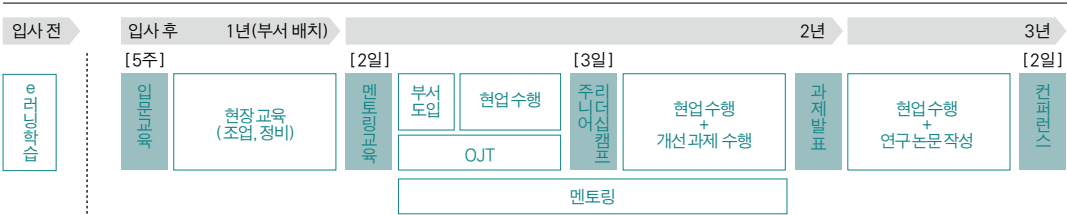
●채용 시스템 포스코는 입사 지원 시 학력 및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만의 면접 방식인 '구조적 선발 기법'을 통해 지원자의 분석력, 기획력,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구조적 선발 기법은 'Assessment Center(평가 센터)' 방식에 기초한 것으로 지원자들의 현재 능력뿐만 아니라 입사 후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한 면접 기법입니다.

●채용 활동 2009년 포스코는 회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국내외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력사원 채용, 국내 MBA 인력 채용, 해외 전문 인력 채용 등 채용 대상과 방식을 확대, 신설하였으며, 학부 산학장학생 제도를 도입해 우수 인재를 조기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부 산학장학생 제도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두루 갖춘 '문(文)·리(理) 통섭형' 인재를 선발·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 대상은 학부 3~4학년입니다. 2009년도 선발된 산학장학생은 총 105명으로, 포스코는 학기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제철소 견학을 지원하는 등 이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장학생들이 인문, 경영, 기초과학에 걸쳐 본인 전공과 다른, 다양한 학교수업을 받아 문(文)·리(理) 통섭형 소양을 기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은 국가적 이슈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포스코는 청년 인턴 제도를 운영해 총 664명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인재 육성 체계 포스코는 회사 비전을 함께 달성해 내는 전략적 인재를 육성합니다. 회사는 구성원들이 필요한 핵심역량

인력 현황				
(2009.E 기준)				
	2006	2007	2008	2009
직원 수	17,523	17,307	16,707	16,458
포항	7,103	6,774	6,249	5,851
광양	6,345	6,272	6,075	6,023
본사/기술연구소/사무소/기타	4,075	4,261	4,383	4,584
기술직(남/녀)	16,050	15,821	15,281	14,905
	(15,943 / 107)	(15,698 / 123)	(15,098 / 183)	(14,703 / 202)
사무직(남/녀)	1,473	1,486	1,426	1,553
	(1,217 / 256)	(1,221 / 265)	(1,149 / 276)	(1,256 / 297)
사무직 여직원 비율	17%	18%	19%	19%
연봉계약직	39	58	57	79
월봉축탁	5	5	2	2
채용	468	387	455	665
퇴직	1,952	576	1,003	1,045
정년퇴직	274	346	509	459

신입사원 역량 개발 지원 체계



직원 24
상생협력 33
사회공헌 38
지역사회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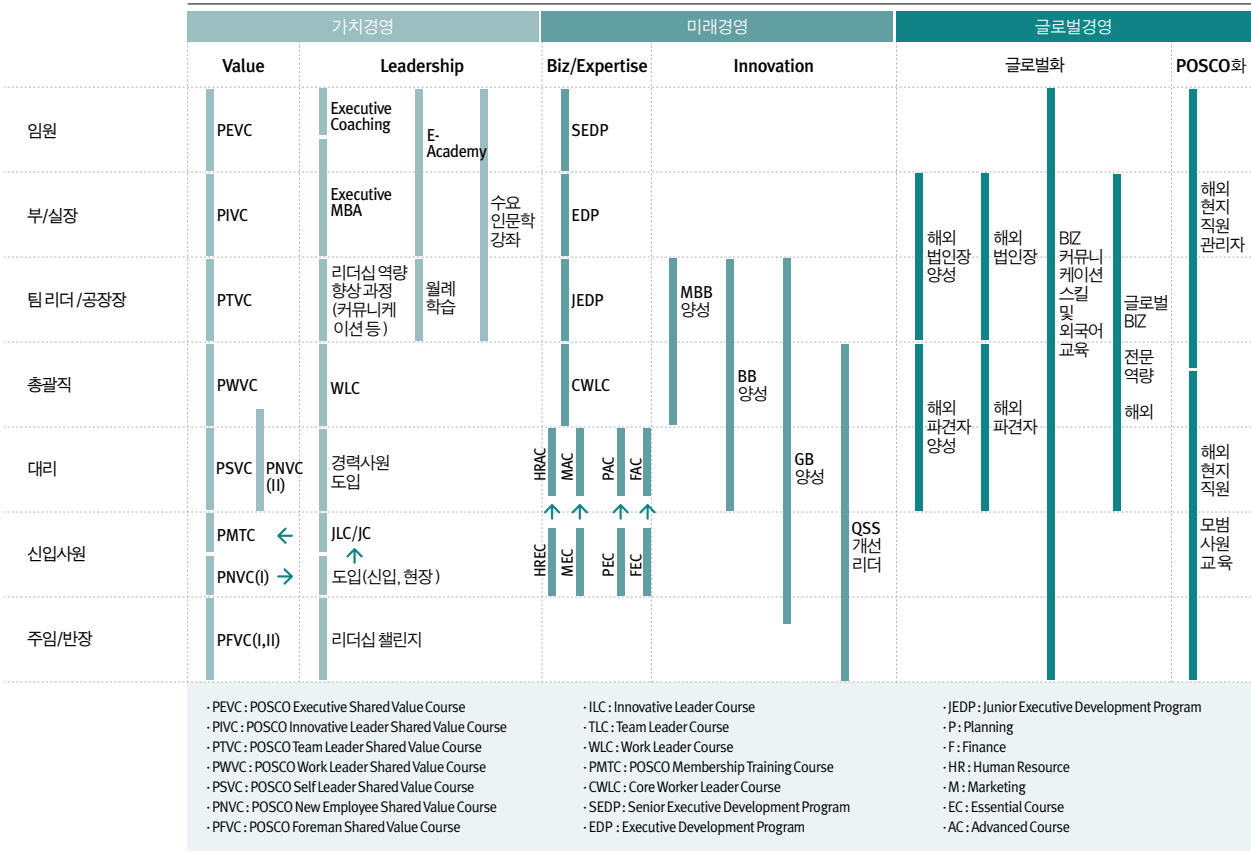
을 개발하고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기반의 평생 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임직원들의 가치를 높이고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신입사원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교육을 실시하며, 직무별 전문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컨소시엄 교육 사업으로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의 동반 역량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문(文)·리(理) 통섭 역량 확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려면 본인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의적 혁신 인재로 성장하려면 타 분야의 지식과 역량도 함께 축적해 통합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문(文)·리(理) 통섭형 인재'를 목표로 신입사원을 육성합니다. 입사 전부터 입사 후 1년까지 포스코 신입사원들은 근무할 부서에 직접 배치되지 않고 제철소 부서 순회 교육 등을 이수합니다. 또 입사 1년 시점, 부서에 배치된 이후 2년까지는 '신입사원 역량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받아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습니

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뛰어난 역량과 업무 성과를 보인 직원을 대상으로 핵심 인재 Pool을 형성하여 우수 직원의 경우, 국내외 유학, 지역 전문가 과정, 해외 지역 파견 근무 등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전문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직책 보임자 리더십 향상 포스코는 비전 2018달성 및 포스코 3.0 추진 전략에 요구되는 핵심 인재와 글로벌 차세대 리더를 그룹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해 신입자 교육, 리더십 스킬 향상 교육, 차상위 직책자 양성 교육 등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외 이슈 사항을 공유해 직책 보임자의 통섭 역량과 리더십 스킬을 향상시키고자 사외 인사 특강 중심의 토요 학습, 월례 학습, 수요 인문학 등을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사내 Executive MBA를 개설하여 경영층의 통섭적 경영 능력도 함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차원으로 진행되는 이들 프로그램은 직책 보임자 및 경영층의 전문 지식과 경영 실무 능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 체계도



교육 자원 체계

● **패밀리 차원의 교육 확대** 포스코는 교육 대상을 기존 포스코 임직원에서 포스코 패밀리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포스코의 교육 혜택을 받은 이들은 출자사 및 외주사 직원 173,000명을 포함하여 총 709,000명입니다. 특히 신입사원에서 임원까지 포스코그룹의 전 계층은 계층별 신입/향상 과정 및 신입사원 교육 등을 통하여 포스코의 新경영철학을 공유하였습니다. 또 포스코는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에게도 주입/반장 리더십, QSS, 6시그마 교육을 제공해 그들의 역량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임직원들이 주로 활용하던 e-Learning 시스템 또한 점차 확대되어 출자사와 외주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 현지 직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e-Learning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 운영될 계획입니다. 2009년 12월 말 기준, 총 495개 과정 중에 핵심가치와 직무에 관련된 e-러닝 68개 과정은 중국어, 영어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해외 법인 현지 직원들을 위한 e-러닝 과정이 300개까지 확대 개편, 운영될 예정입니다.

● **자기주도형 학습 체제 정착** IT를 기반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포스코는 2000년부터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e-러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e-러닝 시스템은 가치 공유, 리더십, 직무 전문, 글로벌, 교양 문화 등 5개 분야 477개 과정을 개설해 179,110명의 학습자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과정을 제공하고 학습자 편의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습 성과 향상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는 국내 최초로 노동부 주관 e-러닝 부문 최우수 기관에 6년 연속 선정되어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직원 스스로 자신의 연간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교육 니즈를 상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수한 교육 결과를 PSC(Personal Score Card)와 연계하여 역량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통섭형 창의 인재 육성** 포스코는 직원들의 창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Triz, 상상 창의캠프 등 창의력 개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riz교육은 Triz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경영 접목 사례 교육 등 세 차례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에는 Triz대학을 신설하고 3단계 수준별 양성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창조경영 역량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상상 창의 캠프 또한 시나리오 Planning과 같은 창의적 발상 기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현업에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

였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는 계층별 문(文)·리(理) 통섭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도 실시합니다. 포스코 임원·직책 보임자를 대상으로 신설, 운영되는 수요인문학강좌는 직책 보임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 및 통섭 역량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Action Learning 중심의 직책 후보자 양성 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주무~대리, 총괄직~부관리직, 관리직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문(文)·리(理) 통섭 e-러닝 과정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 **소통과 신뢰의 노사 관계 형성** 오픈 커뮤니케이션 및 노사 관계 역량 향상을 위해 공장장 128명을 대상으로 경청, 질문, 칭찬/피드백, 갈등 관리 등 4대 핵심 스킬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37회에 걸쳐 벽 없는 조직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토요/월례 학습, 분기별 교육, 직책보임자 평생 학습 활동 등을 지원해 포스코 패밀리 차원에서 경영 이슈를 공유합니다. 2010년 포스코는 화합과 신뢰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중점 배양할 목적으로 계층별, 부서별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향상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외주 파트너사 전 계층을 대상으로 노사 관계 역량 향상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혁신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성과** 2005년 6시그마 도입 이후 포스코형 6시그마를 개발·운영하면서 지속적인 경영 혁신 활동을 추진해 온 포스코는 성공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 리더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포스코는 다양한 의식 교육의 장점과 포스코 고유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변화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자발적 QSS 참여 확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2008년 혁신 캠프, 2009년 도전 캠프 등 변화 관리 프로그램에 참석한 인원은 총 48차수에 걸쳐 1,714명에 달합니다.

직책별 인당 평균 교육 시간

(단위: hr)

직책	인당 교육 시간	
	2008	2009
부장	89	144
팀 리더	144	210
파트장	285	284
반장	308	309
일반 직원	285	310

직원 24
상생협력 33
사회공헌 38
지역사회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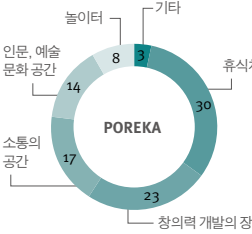
2009 교육 실적

	2006	2007	2008	2009	비고
교육 인원(명)	608,094	571,968	518,808	535,193	
인당 교육 시간(hr)	333	304	278	297	집합 104, e-러닝 193
*만족도(점)	4.44	4.46	4.46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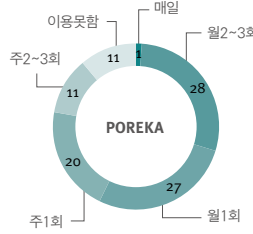
* 미래창조아카데미(구 인재개발원) 주관 집합 과정 및 e-러닝 과정의 학습 내용, 학습 방법, 강의 스킬 등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창의력 증진, 포스코 창의 놀이방 포레카(POREKA)

포레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포레카 이용 빈도



*서울 직원 대상, 346명 응답



새 왕관이 진짜 손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라는 왕의 명을 받은 아르키메데스. 그는 목욕탕에서 넘치는 물을 보고 성분이 다르면 동일한 중량이라도 부피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내고 '알았다'는 뜻의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여기서 유레한 '유레카'와 포스코를 결합(POSCO+EUREKA)한 '포레카(POREKA)'.

포스코센터 동관 4층에 위치한 포레카는 2009년 9월 2일 개관된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창의력 증진에 앞장서며 포스코의 창조경영을 실현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동안 포레카는 사내 동호회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며 동호회 모임과 강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직원들 역시 휴식과 창의적 아이디어, 팀워크를 목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포레카를 이용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포레카 이용을 비롯, 창의력 증진을 위해 C-time (Creative & fresh time)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누구나 근무 시간 중 매월 최소 네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두 시간은 부서 단위로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에, 나머지 두 시간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이용합니다. 포레카에서는 인문 예술 창작 프로그램, 프렌드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2009년 10월 직원(346명 응답)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포레카의 전체 만족도는 95%에 육박했습니다. 포스코는 포레카를 통해 직원들이 더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갖고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과 기술 개발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기여하며, 나아가 포스코가 지향하는 창의적 인재와 조직의 모습으로 발전해나가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철강 기업으로 거듭난 포스코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경영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모든 사업 내용에서 국제 노동기구의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금지 규정과 차별 금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모든 직원에게는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침해 여지를 최소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08년 국내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포스위드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장애인 고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제도에 부응하여 여성 인력 채용을 확대해 나가

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에 포스코의 핵심가치와 윤리 강령을 정착시키고 인사 제도, 인력 운영 및 HR 관리 전반에 글로벌 표준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경영 및 노동 환경, 문화까지 고려한 HR Set-up과 Management가 가능한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사업장의 HR 운영 전반에 인권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적용하여, 인사 운영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글로벌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인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HR 포럼을 개최하여 포스코 패밀리 전체의 HR 담당자들이 모여 인권 관련 이슈를 포함한 Global HR 제도 및 패밀리 의식 등을 활발하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및 여성 인력 채용 현황

	2006	2007	2008	2009
여직원	363	388	459	499
총괄직 이상 여직원	34	42	46	66
장애인(포스코)	241	247	240	235
(포스워드)	-	-	79	128

보상과 복리후생

포스코는 대리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와 경영성과금 제도를 통해 회사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상을 강화합니다. 특히 경영성과금 제도는 영업이익의 5.5%를 직원에게 배분함으로써 경영 성과 향상 시 직원 보상 상승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1991년 4월부터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 증대를 꾀합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개인별 선택형 복리후생 제도, 경조금, 위문금 지급,

자녀 장학금, 의료비 지원, 주택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선택형 복리후생 제도는 매년 지급되는 일정액의 포인트를 레저 시설 이용, 학원 수강 등 직원들이 희망하는 후생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 2002년부터 운영하는 신(新)우리사주 제도는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증가된 기업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말 기준, 우리사주 조합 지분율은 3.06%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출연 금액	66.6	50.8	53.6
출연 누계	531.4	582.2	635.8

상생협력

포스코의 상생경영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포스코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신뢰를 우선시하라”는 정준양 회장의 경영 철학에서 보듯, 신뢰는 포스코 상생경영의 핵심입니다. 포스코는 2005년 6월 신설된 중소기업 지원 전담 조직을 2008년 11월 상생협력실천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였고, 2009년 2월부터 이를 다시 회장 직속 부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 상생경영의 기본 방향을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일관된 상생협력 추진, 상생협력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기업 문화로서 상생협력의 체질화로 설정했습니다.

포스코는 주요 출자사가 참여하여 상생협력 전략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상생협력협의회를 연2회 개최하며, 2005년 개설된 중소기업 상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소기업 경영 현안 해소를 돕기 위해 7,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상생협력 활동은 포스코 패밀리 협력 네트워크의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POSCO Group Supplier Code of Conduct)을 제정, 2010년 6월부터 포스코와 거래하는 전 공급사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은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포스코의 상생협력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인권, 안전, 환경, 윤리, 품질경영, 보안 및 사회공헌에 이르는 7개 부문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행동규범은 포스코그룹과 거래를 희망하는 공급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의 자격 요건입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관련 중소기업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중소기업 핵심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전체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POSCO Group Supplier Code of Conduct) 주요 목차

구성 항목	주요 내용
직원의 기본 인권 존중	자발적 취업 / 아동 근로 금지 / 차별 금지 / 근로 시간 / 임금 / 인간적 대우
안전 및 보건	작업 환경 / 산업 안전
환경	유해물질 / 폐수 고형폐기물 및 대기오염 /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윤리 및 공정거래	비즈니스 청렴성 / 윤리실천특별약관의 준수 / 공정거래 준수/ 신뢰 문화 구축
영업 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대외비 정보의 관리와 보호 / 지적재산 보호
품질경영	품질 관리 / 변경 관리 / 공급사 상호간 품질 관리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상생협력 / 사회공헌

상생협력 추진 노력

1999~2004	'99~ 중소기업 50억원 이하 공사 발주 제도 중소기업 공동 연구 과제 외주 파트너사 처우 개선 '03~ '03.6 중소 고객사 CRM 시스템 도입 '03.7 철강사 최초로 SRM 시스템 도입	'03.7 대·중소 그린 파트너십 구축사업 '04.7 국내 최초 Benefit Sharing 도입 '04.10 네트워크론 시행 '04.11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기관 선정 '04.12 중소기업 구매 대금 전액 현금 결제 시행
2005~2007 '05 - 포스코: 대통령표창(협력대상) '06 - 포스코: 은탑산업훈장(협력대상) '07 - 포스코: 국무총리표창(협력대상)	'05.6 상생협력전담조직 신설 '05.6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참여 '05.9 출자사 상생협력위원회 운영 '05.9 협력기업지원펀드 조성 '06.7 특허상담센터 운영 '06.8 보유 특허 기술 이전 사업	'06.9 테크노 파트너십 시행(포항) '07.4 테크노 파트너십 확대(광양) '07.7 에너지 절약 상생협력 사업 시행
2008 '08 - 포스코건설: 국무총리표창(협력대상) 협력사: 대통령 표창(협력대상)	'08.5 중소기업 신입사원 도입 교육 '08.6 공급사 컨설팅 시행 '08.7 경영 덕터제 도입 '08.8 QSS 혁신 활동 지원 '08.9 테크노파트너십 활동 성과 발표회 '08.11 World Best, World First 육성 지원	'08.11 상생협력실천사무국 신설 '08.11 상생협력 특별펀드 협약 체결 '08.12 민관 공동 R&D펀드 협약 체결 '08.12 범포스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2009 '09 - 포스코: 최우수기업(공정거래협약)(행평가) 포스코: 대통령표창(아름다운 동행상) 포스코건설: 국무총리표창(아름다운 동행상) 포스코: 동탑산업훈장(협력대상) 협력사: 동탑산업훈장, 대통령 표창(협력대상)	'09.1 장·설비 투자자금 저리 지원 '09.1 상생 보증 프로그램 협약 체결 '09.3 Job World' POSCO 협력기업채용관 개설 '09.4 Supply Chain 혁신지원단 발대식 '09.5 범포스코 상생협력협의회 개최 '09.7 외주 파트너사 환경경영 지원	'09.8 공급사 안전 관리 컨설팅 시행 '09.9 포스코 패밀리 Network Loan 시행 '09.11 포스코 패밀리 상생협력 페스티벌

기술 개발 부문 주요 상생협력 추진 현황

테크노 파트너십(맞춤형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 포스코는 2006년 9월 포스텍(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테크노파크와 함께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 기술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문단은 신일인텍 등 포항 지역 중소기업 37개사와 ‘테크노 파트너십(Techno Partnership)’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말 기준, 총 75개사에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기술자문단은 7개의 지원 기관이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박사급 전문 인력도 661명에 달합니다.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은 기술자문단으로부터 수준 높은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제공받음은 물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험 연구 설비도 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문단 활동은 전문 인력이나 기술,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및 민관 공동 R&D펀드 100억 원 조성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할 때 중소기업청이 개발비(최대 5억원)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일정 기간 구매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포스코는 2005년 6월 중소기업청과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월 시범 과정을 시작한 이래 2009년까지 총 63개 과정을 발굴 ·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중소기업청과 민관 공동 R&D펀드 협약을 체결하고 R&D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2009년 6개 과정을 발굴 ·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술력 향상과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고 포스코는 기자재의 안정적 조달과 성능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바로 포스코가 지향하는 상생협력의 모델입니다.

테크노 파트너십 운영 현황

참여 기관	포항: 포스코,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
	광양: 포스코, 전남테크노파크, 순천대학교
참여 인원	3,424
기술 자문	1,685
시험 분석	657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연도별 과제 추진 수 (단위: 건)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구매조건부 과제	1	13	24	11	14	63
민관 공동 R&D펀드	-	-	-	-	6	6

포스코 보유 특허 기술 이전 활성화

●**특허상담센터 운영** 포스코는 보유중인 특허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해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상담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특허상담센터는 기술 이전 상담, 특허 정보 서비스, 특허 교육 등을 시행해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상담은 포항, 광양 지역별 상담센터에 전화, 우편, 이메일, 혹은 직접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특허상담센터에서는 2008년 28건에 이어 2009년에도 60건의 기술 이전 상담, 특허 정보 조사 제공 및 직무 발명 상담, 특허 교육 지원 등에 대한 특허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포스코 보유 특허 공개 및 지적소유권 지원** 포스코는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대해 공급사로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포스코 보유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특허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steel-N.com에 접속하여 대상 특허를 조회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2009년, 중소기업 22개사 28건이 이러한 기준을 적용받아 기술 사용료를 면제받았으며, 현재 118개사 172건의 기술 이전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동 특허 출원 시 소요 비용 지원** 포스코와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하여 특허 출원을 필요로 하는 기술은 출원, 등록 및 권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포스코가 부담합니다. 2008년 7개사 8건에 이어 2009년에는 25개사 29건의 공동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발주 현황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발주 물량	311.4	433.0	316.3
*2009년 생산량 감소로 총 발주 및 중소기업 발주 물량 감소			

연도별 포스코 인증 공급사 현황

	2007	2008	2009
인증 공급사 수	25	26	31
인증 품목	36	40	43

포스코 인증 공급사(PCP) 수출 실적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거래 금액	129.4	202.0	280.4
공급사 수	18개사	19개사	19개사

구매 협력 부문 주요 상생협력 추진 현황

Benefit Sharing 활동 2004년 7월부터 실시한 Benefit Sharing 제도는 공급사와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사는 자율적 개선으로 기업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비용을 절감합니다. 포스코는 품질을 개선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원가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과제 수행으로 발생된 재무 성과에 대해 최대 3년간 성과 발생 금액의 50%를 보상함은 물론, 장기 계약 체결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 이 제도에 참여한 공급사는 총 476개사로 개선 과제 917건, 총 2,361억 원의 재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포스코는 이 가운데 성과가 검증된 325억 원을 233개사에 보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6시그마, QSS(Quick Six Sigma), 등 혁신 Tool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 지원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경영 컨설팅** 경영 취약 부문 애로 사항 해결 지원: 포스코는 성과 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공급사 중 컨설팅 희망사를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산, 품질, 기술, 환경, 경영 관리 등 공급사가 원하는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포스코 MBB(Master Black Belt) 및 사내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3개월간 공급사 취약 부문의 애로 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는 포스코 및 그룹사가 거래하는 중소기업 12개사가, 2009년에는 22개사가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공급사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포스코 공급망의 전체 수준을 높이는 포스코의 상생협력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QSS 활동 컨설팅** 포스코 QSS 혁신 활동 전파: QSS(Quick Six Sigma) 활동 컨설팅은 현장 혁신 활동 경험을 공급사에 확대 · 전파하여 중소기업의 제조 현장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포스코 QSS 컨설턴트는 공급사의 주요 공정 작업 표준 정립, 원자재 · 제품 재고 관리 효율화, 공간 재배치 등 낭비 제거, 5S, My Machine 등의 활동을 전개합니다. 낭비 요소를 줄이는 능력을 공급사에 심어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QSS 활동 컨설팅은 2008년 6개사 시범 실시에 이어 2009년 27개 공급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경영 닥터제** 대기업 전직 경영자의 맞춤형 멘토링 : 경영 닥터제는 대기업 전직 CEO 및 전문 경영인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중소기업 경영 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전경련 경영자문단이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경영 닥터제는 특히 경영 전략, 인사 관리, 마케팅 등 대기업이 자문하기에 민감한 분야를 담당하여 경영 컨설팅, QSS 활동 컨설팅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8년 6개월 만에 3개사의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도 참여 희망 기업 8개사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발주 물량 지원 포스코는 중소기업 발주 가능 품목을 발굴하고 기자재를 국산화해 중소기업 대상 발주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포스코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 거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활동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일본제철, TKS, 상해보강 등 해외 우수 제철소와 실시하는 기술 · 구매 교류회에서 포스코가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회사와 제품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 지원

●**포스코 인증 공급사 제도 운용** 2005년부터 시행한 포스코 인증 공급사 제도는 인증 파트너로 선정된 공급사를 세계적 기술력과 품질을 확보한 전문 품종 공급사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공급사 선정 기준은 2년 연속 해당 소싱 그룹 SRM 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10억 원 이상의 입고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선정된 포스코 인증 공급사는 포스코의 e-Procurement Portal, 포스코신문 등을 통해 홍보와 우선 협상권 부여, 계약 우대, 각종 보증금 납부 면제 등 그룹 차원의 우대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해외 철강사, 설비 공급사와 연계하여 판로를 지원받고 토요 학습 참여 기회도 제공받습니다. 인증 공급사는 Benefit Sharing 과제를 비롯한 상생협력 활동 전반에 걸쳐 높은 참여도를 보일 뿐 아니라 기업 성장 측면에서도 월등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World Best, World First 품목 육성 지원** 이는 우수 공급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그 공급사를 세계 일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Supply Chain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면 포스코에서 구성한 지원 그룹(CFT)으로부터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테크노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지원, 경영 닥터제, QSS 등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 컨설팅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시까지 최대 3년간 공급권을 갖는 등 적용 가능한 모든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2009년에는 서울엔지니어링의 Tuyere Nozzle 등 22개사 37개 품목이 선정되었습니다.

금융 지원 부문 주요 상생협력 추진 현황

중소기업 구매 대금 전액 현금 지불 포스코는 거래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04년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모든 공급사의 결제 금액을 규모에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명절에는 주 2회 지급(납품 3일 이내)에서 명절 1주일 전부터 매일 지급으로 자금 지급 주기를 조정합니다. 또한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2, 3차 협력 회사에도 상생협력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거래 중소기업이 2, 3차 협력회사에 현금성 결제 조건을 시행하면 공급사 성과 분석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구매 대금 지불 조건의 개선을 유도합니다.

협력기업 지원 펀드 및 Network Loan 운영 포스코는 2005년 9월 기업은행·대구은행에 정기에금을 가입한 이후, 이를 재원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협력기업 지원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거래 관계가 있는 외주 파트너사, 고객사, 공급사는 이 펀드를 기반으로 시중 금리보다 1~2%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금융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포스코는 2008년 11월, 신한은행·우리은행과도 협약을 체결하고 펀드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협력기업들이 거래 실적을 근거로 구매 대금 입금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Network Loan 제도도 2004년 10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 부문 주요 상생협력 추진 현황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예정자 양성 교육과 재직 근로자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직업 훈련 컨소시엄에도 포스코의 역량은 투입되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 컨소시엄은 포스코의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 시설, 기자재를 활용해 인력 양성부터 기술 지원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09년, 집합 교육 42개 과정은 11,963명, e-Learning 교육 46개 과정은 16,407명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했습니다. 2009년에는 포항, 광양, 서울에서 포스코와 외주파트너사, 중소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총 12회 교양 문화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매월 1회, 경영 환경 이슈와 트렌드 학습을 중심으로 포스코는 교육 분야에서도 상생 발전, 협력의 정신을 실천합니다.

상생협력 특별 펀드 포스코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1월, 신한은행·우리은행과 2,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특별 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대출을 시작하였습니다. 상생협력 특별 펀드는 포스코가 저금리 예금을 가입하고, 이와 동일한 금액을 은행이 기금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 한도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말 기준, 상생협력 특별 펀드를 활용한 대출 금액은 708억 원에 달합니다.

상생 보증 프로그램과 포스코 패밀리 Network Loan 포스코는 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과 1:1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총 20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보증배수(16.5) 내에서 중소기업에 전액 보증, 은행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대출하도록 돕는 상생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009년 9월부터는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포스코 패밀리 Network Loan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매 대금 지불 현황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구매 대금 현금 지불 규모	4,556.8	4,900.5	3,372.9

*2009년 생산 감소로 구매도 감소

프로그램별 중소기업 대출 현황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협력기업 지원 펀드	135.9	180.9	214.0
Network Loan	64.6	65.4	50.6
상생협력 특별 펀드	—	28.9	70.8
상생 보증 프로그램	—	—	203.1
포스코 패밀리 Network Loan	—	—	7.6

고객만족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은 고객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객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포스코는 매년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고객만족도를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설문지와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는 조사는 주문 처리, 납기, 제품 품질 등 9개(해외 8개) 항목, 7점 척도 측정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09년, 국내 239개 고객사와 해외 165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스코는 국내 82.7점, 해외 71.6점의 고객만족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포스코는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객 직접 방문, 교육 등 종합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 대고객 서비스 활동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다 상세한 고객사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고객사를 직접 방문하여 VOC를 상세하게 청취하는 조사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VOC는 현업으로 활발하게 연계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영업담당자가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제고하고 고객 가치 향상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온라인 e-러닝 과정과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개발하여 2010년 1월부터 개설된 e-러닝 과목, ‘CRM과 고객 가치 경영’은 포스코 임직원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 가치를 향상시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에 도입한 고객 서비스 교육은 ‘기본 소양 교육’과 ‘비즈니스 매너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487명과 50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더불어 포스코는 e-Transaction을 통해 검사 증명서 등 모든 제품의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게 제공합니다. 포스코는 제품 판매와 홍보에 관련된 모든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제재 건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추라”

2009년 3월 2일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취임 후 첫 출근지로 포스코센터의 사무실이 아닌 조선사, 즉 고객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철강, 조선업계 간 벽을 허물고 고객중심경영을 본격화하려는 CEO의 노력이자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선박 건조용 강재인 후판의 최대 고객사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준양 회장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고객사와의 견고한 신뢰,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와 포스코가 세계 조선 산업과 철강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창립 이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후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내 조선 산업이 세계 1위로 성장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또 국내 조선사들의 고질적인 후판 수급 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준공을 목표로, 광양제철소에 연산 200만 톤 규모의 후판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고객만족도

(단위: 점)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 고객사	82.1	79.0	82.3	89.0	82.7
해외 고객사	67.8	66.7	68.9	75.5	71.6

직원 24

상생협력 33

사회공헌 38

지역사회 43

철을 통해 인류 사회의 번영을 이끕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기업 시민이 되고자 합니다. 1968년 창사 이래 포스코는 공존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회공헌으로 인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살리고, 인재에게는 배움 기회를, 소외 계층에게는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임직원들은 사회봉사에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0년 포스코는 꾸준히 추구해 온 사회공헌정신을 패밀리사로 확장하여 보다 큰 영역에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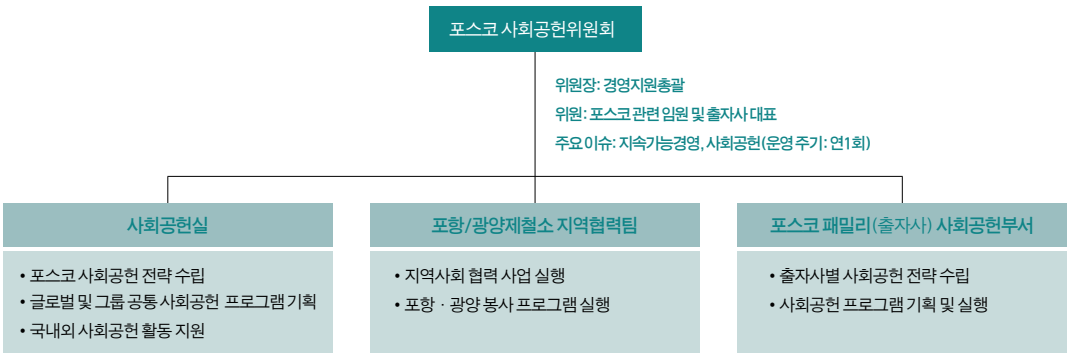
사회공헌 비전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 정착으로
글로벌 지속성장 지원 및 기업 가치 제고



포스코 패밀리 사회공헌 엠블럼 및 활동 체계 2009년 포스코는 사회공헌 슬로건과 엠블럼을 선정하였습니다. 직원 대상 응모와 경영층 리뷰, 협력기관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선정된 슬로건과 엠블럼은 포스코의 창립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환경 중시, 인재 중시, 지역사회 중시 이념을 반영합니다. 함께 어우러진 자연, 인간, 철을 손이감싸 안는 형상, 지구라는 테두리 속에 자연과 인간, 철이 함께 하는 모습의 엠블럼과 ‘자연과 인간, 철이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은 포스코 패밀리 임직원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여러 활동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상징적 표현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체계



사회공헌 활동 중점 영역



사회공헌 활동 전략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 봉사 활동 강화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경쟁 열위의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자립 지원
- 해외 사업 지역에 적합하고 현지화된 사회공헌 활동 추진

사회공헌 비용

(단위: 백만 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소계	80,833	86,383	96,521	127,839	125,017

직원 24
상생협력 33
사회공헌 38
지역사회 43

‘제철보국’의 꿈으로 시작한 포스코는 철의 힘으로 ‘교육보국’을 이루고자 합니다. 과학 리더, 글로벌 리더, 지역 리더, 나눔 리더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국민 모두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포스코청암재단 풍요롭고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1971년 제철장학회로 시작해 포스코장학회를 확대 개편하여 2005년 출범한 포스코청암재단은 2,000억 원의 기금을 활용하여 ‘아시아 펠로십’, ‘차세대 인재 육성’,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3대 전략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과학 분야, 교육 분야, 봉사 분야 리더들에게 청암상을 시상하며, 우리나라 기초 과학자들을 세계 수준의 과학 리더로 키우기 위한 청암 과학 펠로십, 아시아 학술 문화 네트워크 확장과 지역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포스코 아시아 펠로십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고등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포스코 셋별장학,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스코 비전장학 등으로 지역사회 차세대리더를 양성합니다.

포스텍(POSTECH: 포항공과대학교의 새 이름) 포스텍은 소수 영재들을 지식과 지성을 겸비한 국제적 수준의 고급 인재로 양성하고, 그들의 연구 결과를 사회에 전파하여 국가와 인류에 봉사할 목적으로 1986년 설립된 국제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산학연 협동 연구 모델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상,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학 11개 전공학부, 대학원 17개 전공학부, 69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19개국 71개 대학과 자매결연한 포스텍은 2006년 개교 20주년을 맞아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표로 ‘POSTECH비전 2020’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 1971년 포스코교육재단은 교육보국의 정신 아래 자주인, 도덕인, 창의인 육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포항과 광양의 자립형 사립고 2개교를 비롯해 15개의 유치원, 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교육재단은 설립 이래 우수교사를 적극 유치하고 교과 교육과 더불어 특기 적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성균관대학교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제18회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에서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3개 초·중학교는 최우수학교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는 한국 학생과학탐구올림피아드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으며 1회 대회부터 18회 연속으로 최우수학교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포스코교육재단은 초등학생들에게 기초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미래 기초 과학도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포스텍과 공동으로 제3회 노벨꿈나무 과학캠프를 개최하는 등 수준 높은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포스코청암재단

	사업 내용	비고
포스코 청암상	창업자의 업적 기념 및 창업정신 확산	’06년 제정
	시상 부문(상금 2억): 과학상, 교육상, 봉사상	’09년 3회 시상
	2009년 수상자: 과학상 - 남홍길(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 교육상- 선린인터넷고등학교 & 천광호 前교장 / 봉사상- 압둘 사타르 에디(에디재단 대표)	매년 3월 시상식
포스코 아시아 펠로십	아시아 국가의 상호 이해 증진과 교류 협력 확대	
	주요 사업 : 아시아 학생 한국 유학 장학(75명, 12.7억) / 아시아 지역전문가 양성(50명, 6.9억) 아시아 우수대학 장학(294명, 2.0억) / 아시아 인문사회 연구, 포럼 지원(25명, 7.3억) / 아시아 문화지 발간 지원(3억)	
청암 과학 펠로십	국내에서 연구하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분야의 기초 과학자를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09년 1기 선발
	’09년 박사 과정 10명, Post-doc 9명, 신진 교수 11명 등 30명 선발	매년 30명 수준 선발 지원
	지원 규모: 박사 과정: 25백만 원(년), 선발 후 3년간 지원 / Post-doc: 35백만 원(년), 선발 후 2년간 지원, 신진 교수: 35백만 원(년), 선발 후 2년간 지원	
포스코 셋별장학	포항·광양 최우수 고교생, 전국 수학 영재 장학	
	지원 규모: 연간 300명(현재 255명 지원중) * 매년 1학년의 4% 이내 100명 선발	’06년부터 선발
	지원 내용: 3년간 매년 장학금 150만 원 지원 * 우수대학 입학 시 격려금 5백만 원 지원	’10년부터 2학년 선발 지원
포스코 비전장학	이동복지시설 출신 우수 대학생 장학	’06년부터 선발
	지원 규모: 연간 100명- ’06년 60명, ’07년 76명, ’08년 34명 선발	
	지원 내용: 대학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포스코는 1998년부터 패밀리사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년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정 기탁 부분은 국내 주요 NGO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두 곳과 미소금융 세 곳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스틸 하우스 건축, 환경 나눔 공모전**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기술인, Modular 공법으로 2006년부터 Modular House를 지어 소외 계층의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주거연대와 협력하여 300명의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를 Modular 공법으로 시공하고 12월 13일 오픈하였습니다. 또 2회까지 진행된 POSCO-UNEP 환경 나눔 공모전을 통해 사회 소외 계층의 복지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아이디어를 모으고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회적기업 설립** 포스코는 이미 2008년 1월 국내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포스위드’를 설립 하였습니다. 포스위드는 장애인 고용률을 2009년 50%까지 확대하였고, 2012년에는 6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소외 계층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자립적 생활인으로 세운다는 목표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2개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포스코 사회적기업

포항 포스에코하우징(POS Eco Housing)

- 대상 업종: 본업인 철강업과 연관되고, 보유 자원과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영속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친환경 스틸 건축 사업 (대기업의 본업과 연계한 최초의 사회적기업 사례)
- 사업 범위: 스틸 하우스 건축 + 철골,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스틸 벽체 제작, 시공 + 스틸 트랜치 커버
- 공장 건립 부지: 포항시 흥해읍 축천리(포스코 ICT(구 포스콘) 연료전지공장 부지 내 2,500평)
- 고용 계획: 50명(2012년까지 150명)
- 설립 일정: 공장 착공식(2009년 12월 16일), 공장 준공 및 가동(2010년 4월)

광양 포스플레이트(POS Plate)

- 대상 업종: 광양 신후판공장 시편 가공 및 제품 창고 관리 작업
 - 시편 가공 분야: 가스, 전기, 컴퓨터 응용 밀링 및 선반기능사 등 31명(취약 계층 19명)
 - 창고 관리 분야: 천정 크레인 운전 등 53명(취약 계층 31명)
- 고용 계획: 84명(취약 계층 50명)
- 설립 일정: 사무동 착공 및 준공(2010년 2월~5월), 후판공장 가동(2010년 7월 말)

이웃 돕기 성금 기탁 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총 기탁 금액(’98~’09): 559.5억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포스코 패밀리	70억	70억	80억	100억	100억	100억

●**메세나**〉**헬로 아트캠프, 미술 심리 치료** 저소득층 아동들의 예술 감수성 발달과 정서 안정을 위해 포스코는 사랑과 정성을 나누었습니다. 헬로 아트캠프는 포스코가 한국메세나협의회와 함께 포항과 광양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2009년과 2010년 시행한 예술 캠프입니다. 4차에 걸쳐 2박 3일 동안 아이들은 국악,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한자리에서 체험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와 포항 지역 아동센터에서 6개월 동안 진행한 미술 심리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의료**〉**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 구순구개열 아동 수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으며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가정 이웃들을 돕고자 포스코는 서울대 의대 의료진이 진행하는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와 얼굴성형정보연구소의 해외 안면기형 아동 무료수술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에는 키르키즈스탄과 라오스에서 구순구개열 아동 5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문화**〉**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교육**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해 새 삶을 시작할 베트남 여성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포스코는 UN인권정책센터,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자립 지원**〉**포스코 미소금융** 포스코는 2009년 12월 24일 포스코미소금융재단 1호점(서울 강서구 까치산시장)을 시작으로 2010년 1월 2호점(포항시 죽도시장), 3호점(광양시 광양읍 상설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미소금융은 소득이나 신용 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사업입니다. 빈부 격차의 심화, 일자리 부족 등 서민들의 가중된 어려움과 사회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포스코는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금 대출 서비스를 위해 12월 18일 포스코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한 포스코는 2009년 100억 원을 비롯해 향후 10년간 총 500억 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 미소금융재단은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하기 어려운, 개인 신용 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대출 한도 5000만원, 금리 연 4.5%)를 제공합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6개월~1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사업뿐 아니라 서민 계층의 사회적·심리적 자립 지원을 목표로 사내 변호사를 활용해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창업 실무와 사업 운영 노하우를 가르치는 상인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원 24
상생협력 33
사회공헌 38
지역사회 43

세게인, 창조인, 실행인의 인재상을 실현하는 포스코는 직원을 열린 사고와 행동으로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사회와 이웃에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임직원의 봉사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4년 봉사 활동 참여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봉사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9년 9,617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100시간 이상 봉사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포스코 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2003년 창단한 포스코 봉사단에 가입되며, 2005년 9월부터는 자원 봉사 e-러닝 교육 과정과 교육용 CD를 통해 체계적인 나눔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09년 전 임직원의 95%가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1인당 봉사 시간은 30시간에 달했습니다. 2010년 포스코는 직원 봉사 문화를 해외 법인과 패밀리사로 확장하여 포스코 패밀리 모두 1인당 연간 30시간(포스코 35시간) 이상 봉사하는 나눔의 기업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2003년 창단된 포스코 봉사단을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으로 개편하여 패밀리 차원의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나눔의 토요일’로 지정하여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합니다. 2009년 ‘나눔의 토요일’에 참여한 직원들은 월 평균 5,444명입니다. 열두 달 동안 여러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테마 봉사에도 임직원과 가족들의 활발한 참여는 이어집니다. 또 봉사단원들은 사외 출강으로 받은 강사료와 글을 기고하여 받은 원고료로 사회봉사기금을 마련합니다. 2009년 기부액 4600여 만원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바로 세우기’, 저

소득층 척추 측만증 청소년 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공장 부서에서 자매결연한 마을의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회사 인트라넷 사회공헌시스템에서는 부서별로 봉사그룹을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봉사 실적, 봉사 수요처 정보 등을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패밀리 사회공헌 포스코는 출자사, 공급사, 해외 법인이 참여하는 패밀리 사회공헌 활동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총괄과 포항, 광양의 제철소장, 출자사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사회공헌 노하우를 공유하며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사랑 나누기 헌혈 활동은 2009년 2,627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재난재해 긴급 구호 키트 3,000개를 제작하여 전남과 부산의 폭우 지역, 대만 태풍 지역, 인도네시아 지진 지역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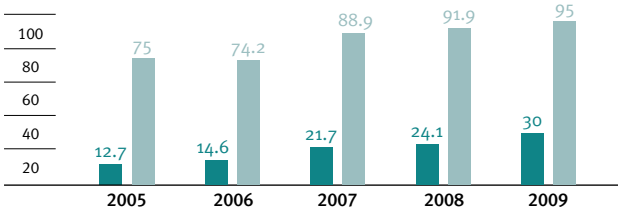
2009년 11월에는 포스코와 22개 출자사, 109개 외주 파트너사, 31개 주요 공급사(PCP, POSCO Certified Partners; 포스코 인증 공급사) 임직원 4만 1천여 명으로 구성된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이 창단되었습니다. 봉사단 창단을 기념하여 임직원과 가족들은 이웃 돕기 김장 봉사를 실시해 김치 3천 포기를 청암요양원과 반곤 가정 350여 세대, 12개 지역아동센터, 무료 급식소,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봉사 활동 마일리지 인증자 현황 (누적, 가족 포함)	임직원 기부 현황
(단위: 명)	(단위: 명, 천 원)

	2006	2007	2008	2009
100시간	1,014	2,505	5,319	7,672
300시간	138	327	915	1,185
500시간	66	158	400	587
1000시간	22	49	110	173

자원 봉사 활동 현황

(단위: 시간, %) ■인당 자원 봉사 시간 ■자원 봉사 참여율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

*출:출자사/ 외:외주 파트너사/ 공:공급사





포스코는 해외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과 청년들이 글로벌 나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동시에 현지 직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Beyond)/ 청년 봉사단 포스코는 대학생들의 봉사정신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07년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Beyond’를 창단하였습니다. 2009년 5월, 40개 대학에서 선발된 제3기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Beyond 100명은 7월, 광양 소외 계층을 위한 집 짓기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과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6개월여 준비 기간을 거쳐 인도네시아 판갈렝간(Pangalengan)에서 본격적인 문화 교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해비타트 인도네시아와 함께 집 8채를 지어 현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랑의 집 짓기 활동에는 대학생 봉사단원 외에도 포스코특수강, 포스코ICT 등 포스코 패밀리 사회공헌 담당자들과 포스코 청암재단의 인도네시아 장학생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사회공헌의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포스코는 베트남 하띠이성에 있는 장애인재활센터, 한베협력센터, 외상대학교에도 10명의 청년 봉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기증한 컴퓨터 40대 등 전산 기자재를 활용하여 소외 계층에게 IT 교육과 한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전략 지역 공헌 활동 /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포스코는 글로벌 활동의 일환으로 해외 SCM기지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멕시코,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총 다섯 국가, 여섯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니즈를 파악하여 아동, 빈곤층, 무의탁 노인 등을 돕는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해외 전략 지역 공헌 활동			
지역	법인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멕시코 푸에블라	MPPC	차코 소녀의집	아동 보육 및 무상 교육
인도 푸네	IPPC	Happy House	AIDS아동 보육 시설
중국 청도	CQPC	청양 자선총회	빈곤층 주거 환경 개선
중국 불산	CFPC	진춘진 양로원	무의탁 노인 복지 시설
말레이시아 라왕	MKPC	공장 인근 빈민촌	빈민촌 지역 기반 시설
태국 춘부리	TBPC	사랑의 집 짓기	집 짓기 봉사 참여

지역 사회

제철소를 설립한 1968년 당시 인구 7만, 재정 3.2억 원의 작은 도시 포항은 2009년 인구 51만 명, 재정 1조 328억 원의 국제적 철강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2의 제철 도시 광양도 1981년에는 인구 8만, 재정 59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인구 14만, 재정 4,241억 원으로 전라남도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지역사회 발전을 포스코의 발전으로, 지역민의 삶과 행복지수의 향상을 포스코의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포스코의 성장이 곧 지역민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숙은 포스코 지역사회공헌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지역사회

지역주민과의 소통 포스코는 지역사회의 성실한 기업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포항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포스코에 대한 호감도 및 지역 협력 사업 성과 분석’과 2009년 광양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협력 사업 평가 및 호감도 조사 연구’를 통해 포스코는 지역 니즈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는 등 기업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또한 양 제철소에 지역협력팀을 두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합니다. 지역협력팀은 지역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교육 장학 및 학술 진흥 지원 사업, 자매결연 및 사원들의 자원 봉사 활동과 소외 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 지원을 주관합니다.

자매마을을 1社1村 등 자매결연 활동 포스코는 신뢰와 소통으로 지역주민과 상호 교류하며 유대를 강화하고자 1988년 4월 광양 하광마을을 시작으로 포항 116개, 광양 112개, 서울 7개 마을, 학교 및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포항 및 광양 지역에 주요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포스코의 중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포스코는 안정적 사업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반 시설을 조성해 수익을 환원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가 투자한 주요 시설물은 포항 환호 해맞이공원, 문화예술회관, 포항테크노파크, 축구전용구장, 광양커뮤니티센터, 전남

테크노파크 등입니다. 이들 시설물은 지역주민들의 문화 행사 장소, 관광명소가 될 뿐 아니라, 각종 행사 유치를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환경타워와 형산 발전소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형산강 산책로와 포스코로에 점등 거리 등을 조성하는 등 제철소 주변을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들 인프라를 활용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매년 포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균형 발전 포스코는 지역사회 발전 선택이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배분되는 균형 발전을 지향합니다. 포항, 광양, 서울에 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를 두어 임직원들의 봉사 활동이 지역사회에 골고루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포항 제철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9월부터 연간 9천만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나이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지원하려는 조치로, 재래시장 상품권은 죽도시장, 효자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시에 내는 지방세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광양제철소의 지방세는 광양시 전체 세입의 57%에 이릅니다. 현재 포항시와 광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53.3%, 48.1%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포항 지역 쌀 팔아주기 활동을 통해 8억 4천만 원 상당의 쌀 1만 9천 포(20kg)를 구매하였으며, 광양제철소는 6억 4천만 원 상당의 쌀 1만 5천 포(20kg)를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6회째를 맞이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시 승격 6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북부해수욕장 개막식에 73만 명, 형산강 체육공원 폐막식에 50만 명 등 123만여 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환경 보전 노력

포스코는 지금까지 설비 투자액의 10%에 달하는 3조 4,500여 억 원을 환경 관련 설비에 투자했습니다. 또 운영비로 연간 3,500억 원을 책정하여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제철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9년 11월에 스킨스쿠버 전문 봉사단인 ‘포스코 클린오션(Clean Ocean)봉사단’을 창단하여 포항과 광양 인근 강과 바다에서 수중 정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포스코 클린오션(Clean Ocean)봉사단은 회사 차원에서 친환경 전문 봉사 그룹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광양제철소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쉼터 기능 공간을 제공하고자 중마동과 도촌쌔지공원에 ‘포스코기업공원’을 준공하였습니다.

체육 문화 발전 노력 포항에 1980년 건립된 ‘포항 효자아트홀’, 광양에 1992년 건립한 ‘광양 백운아트홀’은 지역 문화 육성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 문화 시설은 지역주민은 물론, 임직원들의 문화적 욕구도 충족시킵니다. 아트홀 건립 시기에 맞춰 포항시와 광양시는 지역 연고의 프로축구단인 포항스틸러스와 전남드래곤즈를 창단하고 각각 관중 2만여 명과 1만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축구 전용 구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기반으로 이회택, 최순호, 홍명보, 황선홍, 이동국 등 한국 프로축구의 간판 스타와 50명 이상의 국가대표를 배출했습니다. 포스코는 스포츠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 포스코센터도 1층 로비 아트리움을 활용하여 매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포스코는 매년 초, 연간 콘서트 일정을 잡아 홈페이지 및 포스코센터에 게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티켓을 무료 배부합니다. 포스코의 대표적인 메세나 활동이자 도심 속 문화 페스티벌로 자리 잡은 포스코센터 음악회는 2009년에도 1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2009년 6월에는 포스코센터 음악회가 100회를 맞아 특집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밖에 포스코센터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문화 샘터, 포스코미술관은 2009년 다양한 장르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문화 혜택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2004년 5월부터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도 참가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공연은 상반기, 성균관대·이화여대·고려대·서울여대에서, 하반기 명지대·중앙대·국민대·공군사관학교에서 8,000여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행사를 표방하는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은 금년새와 유라시안 필하모닉이 직접 캠퍼스를 찾아가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는 클래식 공연입니다.

사회복지 향상 노력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각각 2005년과 2006년부터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9년 말까지 각 제철소는 39세대와 66세대의 주택을 보수하였습니다. 포항은 2009년 한 해 동안 해도동,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 수급 세대 7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수리, 도배, 누수 방지, 싱크대 교체 등을 진행했습니다. 포스코는 소외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포스에코하우징(POS Eco Housing)을 설립하고, 201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2009년 12월에 공장을 착공하였습니다. 포스에코하우징은 친환경 스틸 건축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스코와 국내 기업들이 후원하고 전경련이 주관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광양시 어린이집’을 2009년 9월 착공하였습니다. 광양시 어린이집은 보육실, 장난감 대여점, 도서관을 갖춘 2층 건물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포스코 패밀리의 봉사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 지역별 출자사와 외주 파트너사, 공급사가 참여하는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을 창단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포항, 광양에서 각각 발대식을 가진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은 패밀리 임직원 1천여 명이 참가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교육 발전 노력

●**지역 청소년 체험 학습 프로그램** 포스코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포항과 광양제철소 인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인근 63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은 철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활 속에서 철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입니다. 또한 포스코의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이 강사로 나서는 ‘주니어공학교실’은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의 원리를 가르치고 응용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 주니어공학교실은 포항 송도, 송림, 대해, 청림, 인덕초등학교 등 제철소 인근 5개교 학생 540명과 오지학교 100명 등 640명을 대상으로 32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도르래, 압전소자를 이용한 꼬마 병정 만들기, 자기부상열차 만들기 등 한국공학한림원이 개발한 실습 위주의 과학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세 과목을 진행한 주니어공학교실에는 포항제철소 엔지니어 12명, 기술연구원 연구원 9명 등 21명이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1993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에 포항과 광양 지역 학생들을 초청하여 ‘어린이 철강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영덕에서 ‘Great People, Great World’란 주제로 개최된 제17회 철강캠프에는 포항 지역 63개교 초등학생 450명이 참가했습니다. 3일씩 2차에 걸쳐 진행된 캠프에서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은 공동체 생활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양에서는 광양, 하동, 남해 지역 초등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체험 활동과 또래 집단의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 교육계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매결연 현황							
(2010년 1월 기준)							
구분	결연 현황				수혜 주민(명)	결연율(%)	
	마을	학교	단체	계		인구 대비	행정 대비
포항	110	-	6	116	413,996	80.6	29.6
광양	86	15	11	112	36,992	26.4	31.8
서울	7	-	-	7	-	-	-
계	406	15	17	235	450,229	69.1	-

지방세 납부 현황		
(단위: 십억 원)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09년 지방세 납부액	91.8	85.6
지역 전체 세입 (포항, 광양)	290.0	149.7
비율	31.6%	57.2%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명	참여자	수혜자	효과
포스코 나눔의 집	직원 부인/ 지역주민	사업 지역 내 결식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주민	무료 식사 제공으로 지역 결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사랑의 공부방	포스코 직원	저소득층 밀집 지역 청소년	학습 지도, 심리 상담 등 생활 지원을 통해 아동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들의 애함심 고양
집 고치기 사업	포스코 직원	가옥 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세대(매월 두 세대)	지역주민 생활 개선과 직원들의 지역사회 이해 / 결속력 강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포스코	광양 지역 장애인 단체	리프트카, 보행 보조기 등 보조기구를 지급해 장애인 편의 도모 및 임직원 자긍심 고취
자매결연	포스코 부서 단위	지역마를 단위 공동체	부서별로 1개 마을과 결연함 지역-회사 간 의사소통 원활화 및 숙원 사업 해소
의료 봉사 및 헌혈	포스코 직원	의료 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 주민, 수혈 필요자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 진료 및 처방으로 의료 불균형 해소 / 수혈 필요자에게 헌혈 증서 기부

창조적 미래를 향해
전략과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포스코의 기술로
혁신적 제품,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최고의 철강 기술과 환경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는 포스코는 녹색성장 신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며 미래를 한층 더 앞당깁니다.

세계 경제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스코는 매출액 27조원, 영업이익 3조 1천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09년 세계 경제는 실물 경제 침체로 극심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또한 내수 및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철강 산업은 사상 유례없는 감산과 판매 가격 급락을 경험했습니다. 하반기에 일시적 수요 증가가 있었으나 회복세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포스코는 원가절감과 비상경영 체제 강화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 27조 원, 영업이익 3조 1천억 원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비상경영 체제 강화로 경제 위기 극복 역량 제고 2009년 상반기에 창사 이래 첫 감산이라는 시련을 맞은 포스코는 하반기 수요 회복 조짐에 맞추어 증산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는 등 탄력적 조업 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이 품질을 보존하는 선에서 극한적 원가절감 활동을 추진하여 1조 4천억 원의 절감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도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국내외 시장 유지 및 신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조강능력 및 원료 개발 투자로 경쟁력 강화 국내에서는 광양 4고로 개수 완료 및 후판공장 투자, 포항 신제강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기강판공장 증강, 하이밀 전기로 합리화 및 CEM(Compact Endless Cast-Rolling Mill) Process 개발 등을 통해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인도 오리사주 제철소 부지의 용도 변경을 승인받고,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합작 건설 MOU를 체결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멕시코에는 연산 40만 톤 규모의 CGL공장을, 베트남에는 연산 120만 톤 규모의 냉연공장을 준공하였고 북미에 API 강관공장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성장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World Best, World First 고부가가치 제품을 총 81종 개발하여 경기 침체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저원가 고품질 생산을 위한 공작통 기술 141건을 정립해 수익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호주 철광석 개발업체 Jupiter Mine 지분 16.7%를 확보하고 모잠비크 Revuboe 석탄광산 지분 인수를 추진하여 원료 수급을 안정화했습니다.

녹색경영 강화로 미래 성장 기반 확보 제철 산업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철 부산물을 철강 원료로 재활용하는 RHF(Rotary Hearth Furnace)공장을 신설하고, 연산 50만 톤 규모의 합성 천연가스(SNG: Synthetic Natural Gas)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색성장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신소재 사업인 티타늄 Slab 및 마그네슘 제련공장 투자를 카자흐스탄 현지 업체와 공동 추진하는 등 미래 성장 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패밀리 고유의 일하는 방식 정착 포스코 패밀리의 동반 성장을 위해 포스코는 VP(Visual Planning)와 QSS(Quick Six Sigma) 등 포스코 고유의 일하는 방식을 외주 파트너사와 공급사를 포함한 포스코 패밀리로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창의 놀이방인 포레카(POREKA)를 개관하여 임직원의 창의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천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를 운용하고 포스코 미소금융재단을 출범시키는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경영 활동에 힘입어 포스코는 SAM-DJSI로부터 3년 연속 철강 부문 최우수 지속가능기업, 5년 연속 글로벌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으며, 포브스가 선택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국내 1위에 올라섰습니다. 국가 환경경영대상 전문대상, 월스트리트저널 선정 한국 최고기업 2위 등의 결과도 글로벌 포스코의 위상을 한층 높인 쾌거였습니다.



기대, 그 이상의 미래를 창조하는 혁신적 기술 개발 포스코는 2009년 철강 산업의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도 세계 최우수 제품 개발과 공정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술 선도기업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창의적 기술 개발로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도전 과제 62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저가 연원료 증사용, Scumless 냉간압연 기술 등 141건의 공작통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세계적 기술 리더십을 확보함은 물론, 전사적으로 1조 4천억 원의 원가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CO₂ 저감을 위한 조업기술 개발 및 고효율/저원가 제강 프로세스 구축 2009년 전기로에서 고철 용해시 전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기술 개발 활동으로 제강 용선비를 76%까지 낮추었으며, 포스코의 독창적인 전로 조업 방법을 적용해 부원료 사용량을 기존 절반 수준으로 줄여 용강 제조원가를 낮추었습니다. 또한 고효율 조업을 위한 전로 - 정련 - 연주 간 1:1:1 직결 조업 프로세스를 구축해 공정간 Lead Time을 30% 개선,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자동차용 초경량 고강도강판 개발 가속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 2009년 상반기에 2냉연 합리화를 통한 6스탠드를 도입하고 초고강도강 생산 가능 설비를 구축하여 TWIP강 등 초경량화 소재 개발을 가속화하였으며, 결함 제로화를 위한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또한 도요타향 GA 340BH급 외판 등 총 57개 Part의 양산, EVI 전시회(10월)를 통해 '2010년 10만 톤 공급 기반 만들기'를 추진하여 고객 중심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고자 혁신 기술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고, Main Supplier로서 입지를 구축하며 미래 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급 API강재 양산 기술 개발 API강재 판매량은 2008년 대비 49만 톤이 증가한 131만 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포스코는 열연 Hot-final 생산 강재 판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주요 에너지 회사와 기술적, 상업적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후판 API강재도 -20℃ 저온인성 보증용 API-X80 강재를 개발하여 4,000km에 이르는 러시아~동유럽 파이프라인에 공급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해저 파이프용 극후물 41mmt 강재의 선행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STS 연연속 냉연 준공 및 냉연제품 75만 톤 생산 체제 구축 STS 부문은 제품 구조를 열연에서 냉연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STS 연연속 냉연은 연산 40만 톤 규모로 4스탠드의 Z-Hi Mill로 구성된 TRM 압연설비와 중성염 산세 전처리설비가 갖추어진 APF(Annealing Pickling Finishing)로 이루어졌습니다. poStrip 박물소재는 연연속 냉연 공정과 조합, 저원가 혁신 공정으로 가까운 시일 내 개발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전기강판 제품 라인업 강화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차세대 기술 제품으로 많은 수요가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상품입니다. 또 포스코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터용 최고급 Hyper 제품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국내외 자동차 회사에서 적용 및 시험 추진 중입니다. 자동차 모터용 고품성 무방향성 전기강판 신제품 개발 등 포스코의 EVI(Early Vendor Involvement) 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기능 열연재 제조 기술력 향상 기술 개발 Supply & Application Chain 강화와 함께 고객사와 더 폭넓게 윈윈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유 기술인 연연속 압연기술의 안정화를 꾀하고, 급속 냉각장치인 HDC(High Density Cooling)를 전 열연공장에 설치 운용하며, Bar Cooler를 자력 개발, 설치하여 강종 단순화 및 저합금 고강도강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판 제품 및 기술 개발 가속화 2009년은 고강도 EH47 제조 기술 개발로 선급 인증 획득, 고효율 EGW 용접 재료 국산화 등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2010년 7월 가동 예정인 광양 후판공장에 적용될 압연 및 냉각 고유설비 및 수식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되는 기술과 노하우는 광양 후판공장의 설비 운영 최적화와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후판 제품 생산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선재 제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09년 하반기 냉간압조용 선재 제품은 표면 흠 검출률이 일본 경쟁사보다 낮아 고객사의 높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2012년 세계 글로벌 자동차용 소재 공급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조업 기술 개발과 선도 적 신제품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고기능 냉연재 생산 능력 강화 LCD TV의 Back Cover용 강판을 개발하고 양산 공급과 향후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고유 브랜드인 GI-ACE강판의 판매를 확대하고 조업성이 우수한 고강도 내후성강(YP ≥ 700 Mpa)을 개발하여 장척의 컨테이너에 적용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고객사와 EVI 활동을 강화하여 LED TV용 제품을 개발하고 환경친화형 표면 처리 신 프로세스를 구축 할 계획입니다.

FINEX 상용화 기술 개발 포스코는 신기술인 FINEX의 상용화를 이끌어 친환경 조업 기술의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성형탄에서는 비제철용 석탄인 발전용탄(Steaming Coal)의 일정량 배합 사용에 성공하는 등 저가 연료로 사용을 증대할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향후 건설되는 200만 톤 급 FINEX 설비의 건설 물량은 현존하는 150만 톤 설비 물량의 70% 수준까지 간소화될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Strip Casting 고유 제품 및 HR박물 상용화 기술 개발 시동 지난 한 해 실수요 고객사로 304, 316, 301강에 대하여 3,000톤 판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현재 연속주조 공법으로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고탄소 Martensite계 강종 개발과 압연부하강인 고합금/Duplex계 강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박물 HR(1.5t) 제조 기술을 정립해 연연속 냉연 단압재 제조 범위를 확대하여 프로세스 단축과 원가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예정인 #2 IRM이 추가 설치되면 poStrip 재의 형상, 실수율 및 품질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환경친화제품 개발 포스코는 생산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에너지 사용 최소화, 사용 단계에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재활용을 염두에 둔 폐기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기능 신제품과 공정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4종의 환경친화제품을 개발한 이후, 2009년 현재 환경보전, 에너지 절감, 장수명화 부문에서 누계 231종의 환경친화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환경친화제품 개발이 전체 제품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6%이며, 2001년에서 2009년까지 개발된 환경친화제품의 2009년 판매량은 400만 톤이었습니다.

●**후판 극지 해양구조용 YS 345Mpa급 강판** 포스코가 개발한 극지 해양구조용 YS 345Mpa급 강판은 기존의 일반 해수 온도(-10℃) 환경 대비 극지에 가까운 지역의 온도(-40℃) 환경에서도 우수한 파괴인성 성능을 보이는 제품입니다. 해양구조물은 통상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추, 생산, 정제 하는 구조물로 해상에 한번 설치되면 20여 년간을 보수없이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재료 내 작은 크랙이라도 발생되어 진전될 경우, 구조물에 치명적으로 작용하여 구조물 전체가 붕괴되어 석유 등 대형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재는 주변 환경 온도가 저온일수록 인성이 열화하여 취성 크랙이 쉽게 발생되

환경친화제품 개발 현황				
	2006	2007	2008	2009
환경친화제품 개발 비율(%)	83	76	88	76
환경친화제품 강종 수	19	28	36	29
누적 수주량(톤)	1,143,111	2,130,498	2,795,779	4,082,389

로 강재 제조 Mill에서는 보다 저온에서도 파괴인성이 보증되는 제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후판 해양구조용강의 인지도는 세계 해양 시장에서 경쟁밀 대비 낮아 제조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번에 개발한 극지용 해양구조용강을, 해양 구조물 제작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의 극지 프로젝트에 적용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이로써 해양 시장에서 포스코의 기술력 인지도는 향상되리라 기대됩니다.

●**냉각탑용 고내식 HG 극후도금 제품** 고내식 HG극후도금 제품(도금량 725g/㎡ 이상)은 기존 냉각탑 Case용 소재로 사용되던 FRP가 인체 및 환경유해성 문제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제조, 폐기가 금지되는 추세이기에, 이러한 FRP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입니다. 또한 건축물 장수명화에 따른 냉각탑의 수명이 향상되고 도심 인텔리전트 빌딩 건물 옥상에 설치되므로 외관상 미려함도 요구됩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저소음, 고효율의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냉각탑 Case를 Steel 소재로 전환하여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FRP 대비 고객사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공급재(도금량 600g/㎡ 제품) 대비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 결과, 내식성이 2배 이상 우수하여 도장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포스코는 고내식성 극후도금의 판매량 확대를 위해 파형강판, 교량 Tray 등으로 용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3원 합금계 고내식강을 개발하는 등 시장 요구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보강재용 CR/CG 980DP 강판** 포스코는 자동차 강판 차체 경량화에 대응한 고강도/고연신 강판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CR/CG 980DP는 최근 차체 경량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엄격한 안전 기준에 당면한 자동차 회사

의 니즈에 부합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적용 용도와 특성에 따라 저YS형 980DP 강판과 고YS형 굽힘가공성, 용접성이 우수한 980DP 강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590DP, 780DP 대비 20~40% 의 강도를 확보하여 기존 대비 얇은 두께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차체 경량화를 통한 연비 향상 이 가능합니다.

기존 590DP, 780DP를 대체한 Sill side, Bumper Beam 등 보강재 도고강도 두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Seat rail용에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가공성을 필요로 하는 부품으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초고연신 980DP 강판을 개발 중입니다.

●**방향성 전기강판 Cr-free 장력코팅 제품** 방향성 전기강판 Cr-free 장력코팅 제품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RoHS)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코팅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기존 방향성 절연 코팅제에는 Cr 성분이 4.0wt% 함유되어 있어 환경 규제(Cr+6 규제) 논란이 일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Cr을 제외한 기타 성분 조성을 최적화하여 Cr을 배제하면서도 코팅밀착성과 내식성을 기존 Cr-base 코팅제 대비 동등 이상 개선한 Cr-free 코팅제를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이 제품으로 포스코는 EU 등 전 세계 방향성 전기강판 시장 다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막장력을 강화하여 재질특성의 향상뿐 아니라 점적율, 밀착성, 내식성까지 개선된 신규 Cr-free 장력코팅 제품은 고절연성이 요구되는 중, 대형 전력 용변압기 용도로 적합하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적용 규격과 용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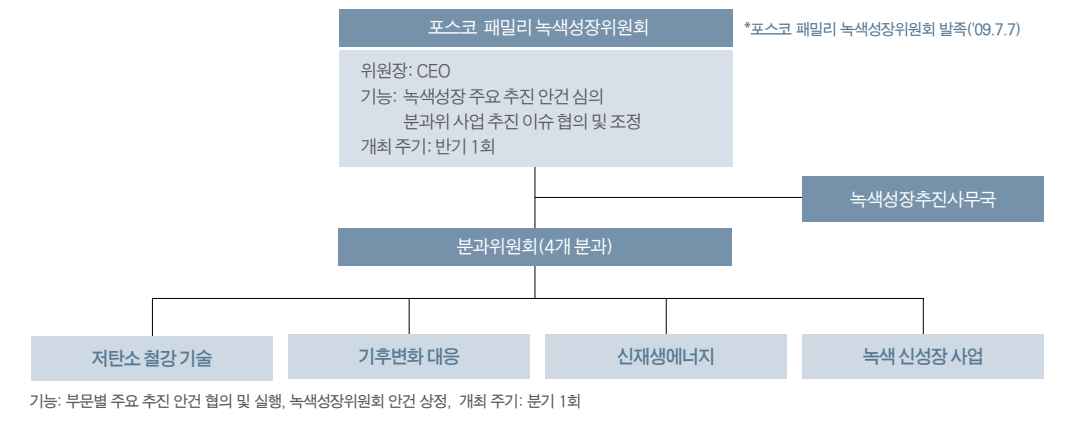
환경친화제품 유형		
	주요 기능	2000~2009년 개발 건수
환경보전	환경 유해물질 미함유, 인체 유해요소 차단, 소음·진동 감소, 배기가스 정화 성능 향상	34
에너지 절감	자동차 경량화, 공정/열처리 생략 제품, 에너지 효율 향상, 가공성 향상	159
재활용 향상	내부식성 향상 및 장수명화, 내구성 향상	38

포스코 패밀리 녹색성장 마스터 플랜



Green Steel, Green Life, Green Partnershi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 대책 부문(p63)을 참조해 주십시오.

포스코 패밀리 녹색성장 추진 체계



저탄소 녹색성장은 인류의 지속가능을 이끄는,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단 석탄에 의한 철광석 환원 과정이 불가피한 철강 산업의 특성상, 철강업계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새로운 요구는 에너지 집약 산업인 철강업계에 위기가자 또 다른 기회입니다. 포스코는 에너지 절감과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철강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고효율 철강재 개발·보급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며, 녹색사업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찾아 새롭게 도약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함은 물론, 녹색성장을 통해 포스코 2018 비전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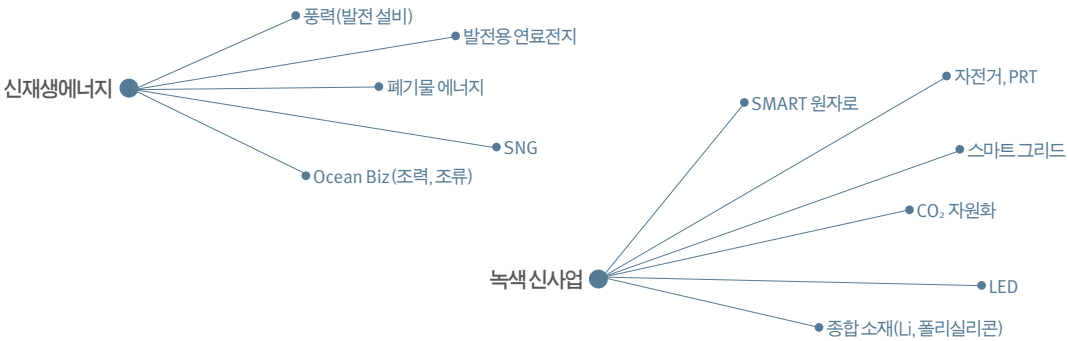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포스코는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이 철강업의 윤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녹색성장을 통해 포스코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Green Business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 마련

포스코는 패밀리 차원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풍력, 폐기물 연료화, SNG (Synthetic Natural Gas)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그리드, CO₂ 자원화 및 종합 소재 분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GREEN BUSINESS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 사업 발굴 및 육성, 2018년 Green Business 부문 매출 10조원 달성



●**발전용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중의 산소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어 일반 화력 발전에 비해 발전효율이 높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화력발전 대비 평균 63% 수준으로 친환경 에너지 설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포스코파워는 2009년 11월 인천 LNG 복합 발전소에 2.4MW급 발전용 연료전지 설비를 준공한 것을 포함해 전국 11개 지역에 총 23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포스코 또한 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에 준공된 연료전지공장에서 연간 50MW(2008년 9월 준공) 규모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기존의 발전 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큼니다. 포스코는 포스코파워, 포스코ICT를 중심으로 제3세대 연료전지 개발 및 연료전지 국산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입니다. 포스코건설은 2008년 12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과 평창군 봉평면에 걸쳐있는 태기산 일대에 총 발전용량 40MW급 (2MW 급 설비 20기)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를 시공한바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6만 3천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풍력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여수시, 고흥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 해상에 약 6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연료화** 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 사업은 기존에 소각, 매립되던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화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발생되

는 열은 수요처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하수 슬러지를 건조, 성형한 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보조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하는 생활폐기물 연료화(RDF: Refuse Derived Fuel) 등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생활폐기물 에너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전문회사인 '포스코이앤이'를 설립('09.8.21)한 데 이어 2009년 11월 16일 국내 최초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 발전 사업자로 확정되어 부산광역시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3월 열병합발전소를 착공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에서 수거한 하루 900여 톤의 생활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금속류는 재활용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발전용 연료로 사용해 시간당 2만 5천kW의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연간 160억원의 전력 판매 수입과 12만 5천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으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SNG (Synthetic Natural Gas, 합성천연가스)** 합성천연가스 사업은 저가의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한 후 정제 및 합성 공정을 거쳐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청정 연료화 사업으로 천연가스와 성분이 동일해 고유가 상황에서 고정장이 예상되는 미래 산업입니다. 포스코는 2013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합성천연가스 생산 설비를 준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가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대신 저가의 석탄을 사용함으로써 연간 약 2,0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및 주요 제품 판매 포스코는 2009년 경기 침체로 철강 시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액은 소폭 감소한 26조 9,539억 원, 영업이익률은 11.7%를 기록하였습니다. 철강 시장 위축과 심화된 경쟁 가운데 기존 시장에서는 전략제품 판매율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하여 동남아 시장 및 기타 시장 수요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주요 재무지표				
	2007	2008	2009	
매출액 (십억 원)	22,207	30,642	26,954	
영업이익 (십억 원)	4,308	6,540	3,147	
당기순이익 (십억 원)	3,679	4,447	3,172	
영업이익률 (%)	19.4	21.3	11.7	
ROE (%)	15.9	17.0	11.4	
EBITDA (십억 원)	6,029	8,448	5,207	
EBITDA Margin (%)	27.2	27.6	19.3	
자본총계 (십억 원)	24,503	27,784	30,951	
부채비율 (%)	24.4	33.3	29.2	

제품별 판매량 (단위: 천 톤)					
	2007	2008	2009		
			전체	내수	수출
열연(PO 포함)	10,264	10,700	9,809	6,089	3,720
후판	3,831	4,593	4,484	4,072	412
선재	2,018	2,020	1,960	1,453	507
냉연	9,607	10,416	8,834	4,594	4,240
전기강판	907	932	840	421	419
스테인리스	1,609	1,306	1,368	671	697
기타	1,345	1,198	1,142	1,090	52
계	29,581	31,166	28,437	18,390	10,047

자산 보유 현황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유형자산	현금성자산	8,768	13,693
	매출채권	3,566	3,722
	재고자산	1,895	3,559
		21,725	6,416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8,165	23,340
	유형자산	13,202	8,633
자산계	30,493	14,466	16,646

주가 동향			
	2007	2008	2009
주가(원)	575,000	380,000	618,000
시가총액(조)	50.1	33.1	53.9
EPS(원)	48,444	58,905	41,380
PER(배)	11.9	6.5	14.9

이해관계자별 경제 활동 포스코는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한다는 인식하에 이해관계자와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본 가치를 창출하는 구매, 생산, 판매 과정뿐 아니라 정부 세금, 자본 제공자에 대한 배당금과 이자,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포스코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매 비용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원료비	10,347	16,772	13,887
재료비	1,308	1,648	1,569
외주용역비	1,350	1,504	1,467
매출액 비중 (%)	58.6	65.1	62.8

배당금 현황 (단위: 원)			
	2007	2008	2009
배당률 (%)	200	200	160
주당배당금	10,000	10,000	8,000
중간배당금	2,500	2,500	1,500
주당순이익	48,444	58,905	41,380

이자 비용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이자 비용	103	143	289
이자 수익	126	191	208

인건비 지급 내역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고정성 급여	930	954	929
퇴직충당금	135	240	-2.2
변동성 급여	177	323	181

*포스코는 전 임직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최저 임금 기준 충족/ 신입사원 급여 최저 임금 대비 428%(현장 신입사원(상주)의 이론상 1년 연봉을 2009년 인당 평균 근로 시간으로 나눔)/ 성별에 따른 기본급 차이 없음

연금 지원 금액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국민연금(회사 부담금)	333	326	317
개인연금 보조금	84	84	85
개인연금 수혜 인원(명)	12,763	13,491	13,084

세금 납부 현황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내국세	6,442	5,276	11,453
지방세	1,082	1,355	1,919
관세	85	75	101

인류의 녹색 터전을 향해
환경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포스코의 신념으로
녹색 세상을 가꿉니다.

지구 환경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인류의 사명입니다. 포스코는 체계적인 환경경영 체제를 운영하여 환경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9년 환경 설비 투자금은 2,971억 원으로 총 설비 투자의 10%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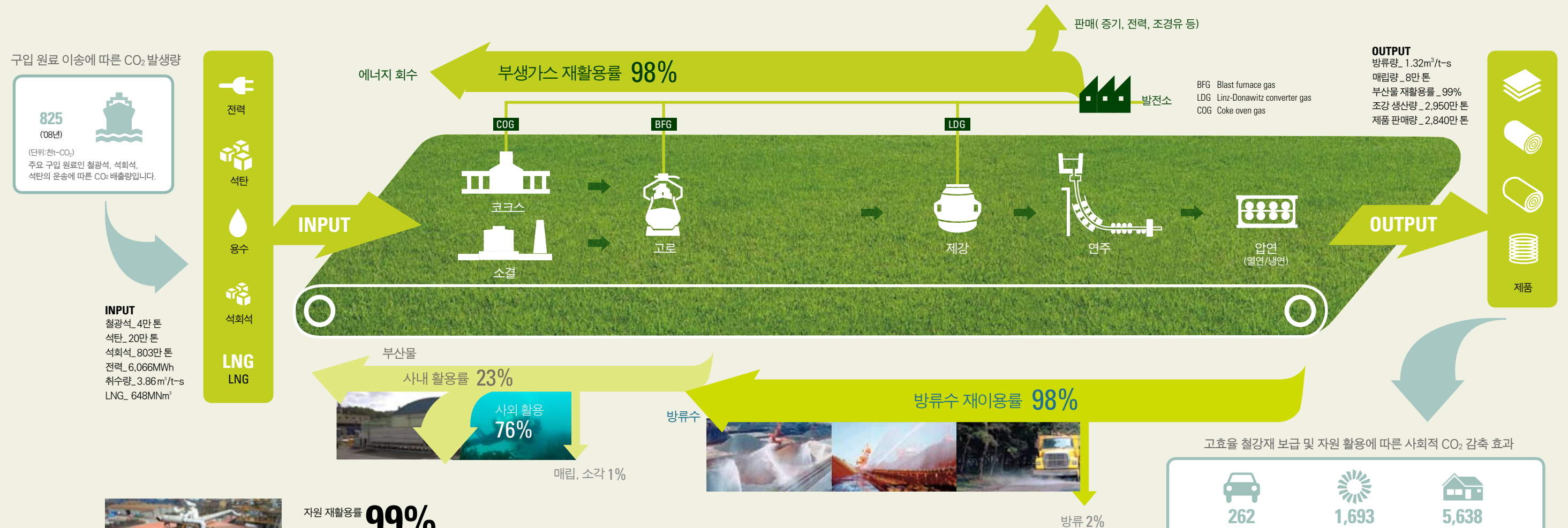


포스코는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포스코는 제철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의 98% 를 열풍로, 열처리로, 코크스로 등 공정에서 재활용하였습니다. 용수는 각 공장에 설치된 폐수처리 설비에서 1차 처리 한 후 98% 이상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배수종말 처리 설비에서 2차 처리 후 일부는 제철소 내 도로 청소와 원료 아드의 먼지를 억제하는 살포수로 재활용되며, 그 외에는 인근 해역으로 방류됩니다.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슬래그, 더스트, 슬러지 등은 도로 골재, 비료용,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 총 1,861만 톤의 부산물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99%인 1,837만 톤을 재 활용하였습니다.

에너지 재순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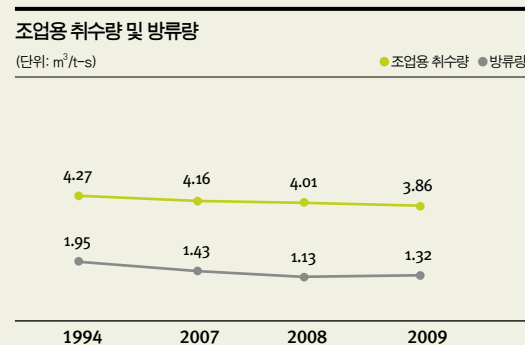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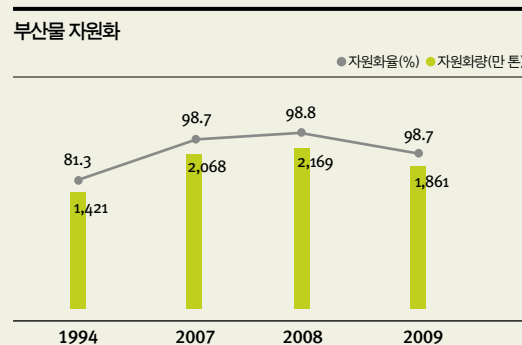
69%

포스코는 조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잉여 부생 가스는 자가발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본사,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사용한 전력량 중 69%를 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한 자가발전과 코크스 건식 소화설비(CDQ: Coke Dry Quenching), 고로 노정압발전설비(TRT: Top Gas Pressure Recovery Turbines) 등 에너지 회수 설비와 LNG복합발전 설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였습니다. 나머지 31%에 해당하는 전력은 외부에서 충당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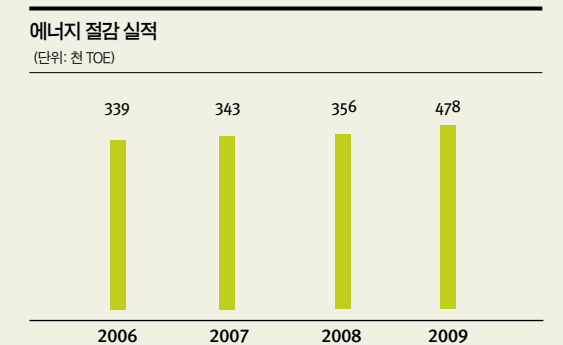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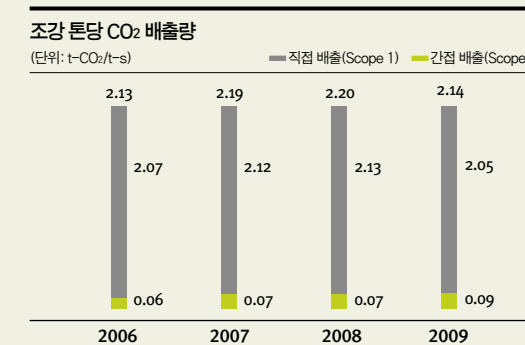


99%

포스코는 부산물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담 조직인 '부산물 수익성 향상 Mega-Y' 활동을 통해 철성분 및 탄소 성분이 함유된 부산물을 제철 공정에 활용하고 기존에 매립 처분되던 산업부산물로부터 유가 금속을 추출해 스테인리스 공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합철부산물 처리설비(RHF)를 준공하였습니다. 이는 집진 더스트와 슬러지를 연간 28만 톤 처리하는 설비로 철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로부터 유효 자원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설비입니다.



* 조업용 취수량: 제철 공정에서 사용된 용수의 양



환경 목표 포스코는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형 사회,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 방침 아래, 매년 환경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환경 목표와 이에 따른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직 포스코는 본사,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의 환경부서를 비롯한 조업부서의 장들로 구성된 환경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이상 진행되는 정기회의에서 환경에너지위원회는 국내외 환경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며 전사 환경경영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합니다. 또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텍, 포스코경영연구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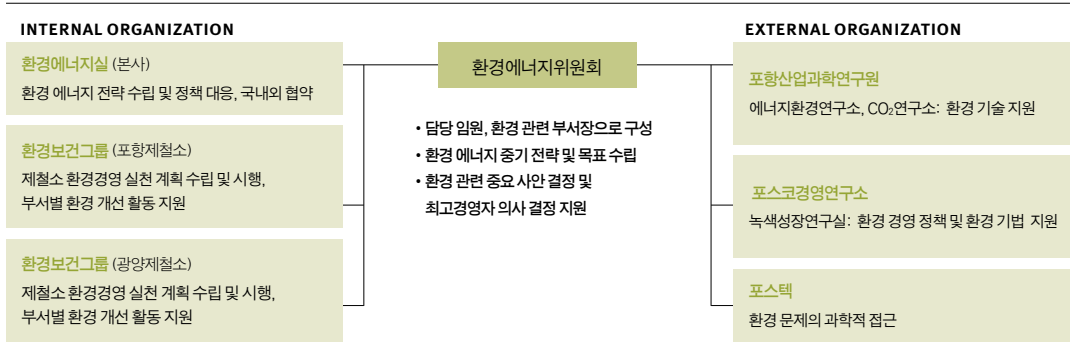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국내외 정책 및 경영 동향을 분석하고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스템 포스코는 환경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시스템(POEMS: POSCO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스템은 2001년 전사 PI(Process Innovation)를 통해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통합 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설치된 TMS(Tele Monitoring System)에서 집계된 환경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경북도청과 환경부에 전송되고 회사 환경시스템에 연계되어 임직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2009 환경 목표

목표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보	부산물의 친환경적 활용 가치 증대	인간과 생태 중심의 환경 관리 강화
실행 활동	CO ₂ 감축 혁신 기술 개발 추진 Carbon Management 체제 구축 에너지 절감 활동 지속 추진	철강 슬래그 바다숲 조성 사업 부산물 부가가치 향상 활동 대체 용수 개발 및 냉각수 저감 프로젝트	제철소 비산먼지 저감 활동 화학물질, 다이옥신 배출 저감 협약 이행 생태산업단지 구축 프로젝트

환경에너지위원회



대기 환경 관리

●선강 지역 미세먼지 저감 활동 포항제철소는 지역주민의 체감 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 하반기부터 선강 지역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인 Big-Y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선강 지역의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농도가 2007년 80μg에서 2009년 말 기준 45μg까지 낮아져 Big-Y 출범 당시 세운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선강 지역 대기 환경 설비 개선을 위해 1,2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포항제철소는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비롯해 냄새와 가시 오염의 근원을 차단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5월 7일 포스코 임직원을 비롯한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관련 활동의 성과를 보고하고 Jump up 실천 다짐식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원료 처리 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원통형 원료 저장탑인 사일로(Silo)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 각각 6기, 15기를 설치하여 총 21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 기당 6만 톤의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사일로는 비산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천후 조업이 가능한 연료 저장 설비입니다.

●화학물질관리시스템 포스코는 2004년 12월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체결 후 3년 이내에 화학물질 감축 30%, 5년 이내에 50%를 목표로 하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 30/50' 프로그램으로 국내 164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화성공장에서 발생하는 BTX(Benzene, Toluene, Xylene)와 암모니아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비산누

선강 미세먼지 Big-Y 주요 활동

- 집진기 성능 복원 및 노후/열화 개선
- 벨트 컨베이어 Washing, Turn over 장치 설치
- 부지 경계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준공
-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환경모니터단 운영('09.9)



출원관리시스템(LDAR: Leak Detection and Repair)을 도입하고 폐수처리장에 덮개를 설치하여 발생하는 화학물질을 포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8년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사업장 화학물질의 구매부터 운반,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관리 현황을 종류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수질 환경 관리

●용수저감 활동 포스코는 용수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 내 재활용을 높이고 방류수를 최소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방류수 최대 재활용 △담수 대체용수 개발 △냉각수 및 증발량 저감 등을 수행합니다. 우선 압연폐수를 염소가 높은 폐수와 낮은 폐수로 분리 수집하고 각각 재생 처리해 2만 5,000톤 분량을 재활용, 현재 방류수의 재활용 수준을 50% 이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냉각 설비에서 증발되는 물의 회수율 역시 현재 대비 2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증발수 회수 기술 개발을 도전 과제로 설정하고 진행하는 한편, 냉각수 부식방지제 등 약품 품질을 높이고 냉각탑의 물 순환시스템을 개선해 냉각수 회전 횟수를 현재보다 40% 이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포항제철소는 방류수 재활용, 대체용수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2012년경에는 담수 사용량이 현재 할당량인 13만 톤 수준으로 저감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 투자

2009년 7월 9일 포항제철소 제강부 2제강공장은 대기 환경오염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전로 Roof Dust 포집 설비를 준공했습니다. 전로 설비는 전로 취련중 돌발적으로 분진이 발생할 때 집중적으로 물을 뿌려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설비로, 대기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비 가동 이후 Roof 분진 농도는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자원 활용

●**자원 재활용 활동** 2009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총량은 1,861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슬래그가 76%이고, 더스트와 슬러지가 15%, 기타 부산물이 9%를 차지하고있습니다. 포스코는 부산물의 대부분인 99%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1%만 소각이나 고형화 매립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로 슬래그와 제강 슬래그의 경우 발생량 100% 모두 시멘트 원료 또는 골재 대체제 등 또 다른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고로 슬래그는 80% 이상을 수재 슬래그로 생산하고, 제강 슬래그는 해양 생태 복원용으로 재탄생하는 등 수요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고로 공정에서 발생된 용융 슬래그에 물을 분사하여 급냉, 모래 상태로 만든 수재 슬래그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 시멘트 클링커로 대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클링커 생산에 필요한 석회석 등의 광물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CO₂ 발

생을 줄이며, 다양한 용도를 가진 고기능성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포스코는 신일본제철과 공동으로 합철부산물 처리 설비(Rotary Hearth Furnace)를 2009년 준공하였습니다. 이 설비에서 제철소 제선 및 제강 공정에서 발생한 더스트와 폐수처리 설비의 슬러지 등으로부터 유효 자원인 철 성분을 회수하여 사내의 원료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광양제철소는 2007년부터 포스코의 자원 활용을 비롯한 환경 관리 기술 노하우를 외주 파트너사와 공유하기 위해 환경코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에는 지자체인 광양시와 외주 파트너사인 SNNC·부국산업 등 자원화단지 내 부산물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9개 사업장과 함께 환경코칭제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회에서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 시설과 세륜장 보강, 공장 설비 개선 등 광양제철소 자원화 단지 입주사들의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 부산물 수익성 향상 Mega-Y 추진반 발족 〉

포스코는 신수요 개발을 통해 부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전담 조직인 ‘부산물 수익성 향상 Big-Y’를 2007년 2월 발족하였습니다. 환경 조직 담당 임원 산하에 수요 개발, 신기술 연구, 투자 및 조업 적용 등 4개 TFT로 구성, 운영되던 ‘부산물 수익성 향상 Big-Y’는 이후 2009년 1월 원료비 절감 TFT 등을 포함한 Mega-Y 조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활동1. 제철 공정 부산물을 공정 원료로 재활용 포스코는 철 성분 및 탄소 성분이 함유된 제철 공정 부산물로 소결 공정의 철광석과 분코크를 대체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탄철 부산물은 미세한 입자상 물질의 특성상 제철 공정 내에서 재활용이 제한되어 외부 시멘트 원료로만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Mega-Y 조직 활동으로 포스코는 고탄철 부산물과 저가로 판매되던 고탄소 부산물을 입상화하여 가공하는 데 성공, 제철 공정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원료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09년 한 해 동안 44만 톤의 입상화 제품을 소결 공정 원료로 대체하여 377억 원의 원료비를 절감, 회사의 경영 성과 증진에 기여한 Mega-Y 추진반은 향후 설비 능력을 확대하여 부산물의 공정 원료 활용량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활동2. 매립 처분되던 산업 부산물을 공정 원료로 활용 포스코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협력하여 매립 처분되던 전자회사 슬러지, 다이아몬드 폐액 등 산업 부산물로부터 유가 금속인 니켈과 크롬을 추출하여 스테인리스 공정 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기존의 고온 용융 환원 건식 기술과 달리 세계 최초로 습식 추출 기법을 적용한 포스코의 고유 기술로서 국내 특허 10개, 미국, 중국, 유럽 등 국제 특허(PCT) 4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 공정 대비, 원가를 60~80% 수준으로 낮추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2010년 2월 제1회 국가녹색기술대상에서 국무총리상 금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건량 기준 5,700톤의 펠렛 제품을 스테인리스 원료로 대체하여 26억 원의 원료비를 절감한 포스코는 향후 설비 능력을 확대하여 연간 1만 2천 톤의 펠렛 제품을 활용함으로써 약 55억 원의 원료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가공 플랜트 전경



유가자원 회수 설비



임가공 펠렛 제품

기후변화 대책



2009 포스코 탄소 보고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포스코 탄소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html/sustain/environ>

기후변화 대응 활동 포스코는 2009년 12월 개최된 포스코 패밀리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포스코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내부 확정하고 2010년 2월 대외에 선포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조강 1톤당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CO₂ 원단위를 최근 3년(2007~2009년)의 평균인 2.18t-CO₂/t-s 대비 2020년까지 9%를 감축한 1.98t-CO₂/t-s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석탄 원료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미래 CO₂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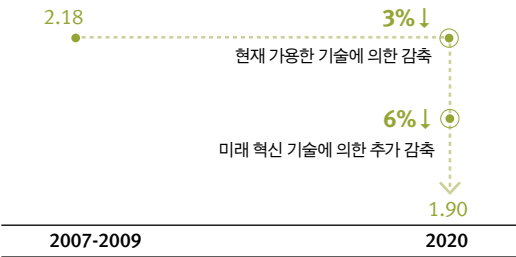
한편 자동차 연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고장력 자동차 강판과 모터 및 변압기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급 전기강판을 개발 보급하고, 친환경 시멘트 소재로 대체할 수 있는 고로 수재 슬래그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고효율 철강재 보급 및 철강 부산물의 자원화를 확대하여 현재 대비 사회적으로 연간 600만 톤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포스코 출자사와 함께 총 5조 5,000억 원을 녹색성장 사업에 투자하여 사회적으로 연간 800만 톤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태기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대단지 육·해상 풍력 발전 사업, 제3세대 연료전지 개발 및 국산화, 제철소 등 에너지 집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한 스마트 그리드 사업, 폐기물의 에너지화 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철강 공정에 특화된 3대 혁신 기술 루트를 정의하

여 CO₂ 감축 혁신 중장기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은 CO₂가 적게 발생하는 철강 공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대표적 예가 저탄소 FINEX 공정 기술 개발입니다. 두 번째, CO₂ 분리 및 포집 기술 개발은 철강 공정에서 발생된 CO₂를 분리, 고정시키는 기술로 현재 암모니아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수 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동해 해양지중 저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와 MOU를 맺고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소 환원 제철법은 철강 공정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포스코는 고로에 기반한 철강 수소 환원 기술 개발에 관하여 국제 철강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CO₂ 배출 원단위 감축 목표

(단위: t-CO₂/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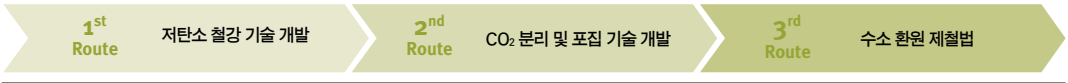


포스코 탄소경영 리스크 및 기회 요인

(S-Green Steel B-Green Business L-Green Life P-Green Partnership)

Risk	S	홍수, 해수면 상승, 기온 등으로 원료 야적장 등 운영 조건 악화, 공업용수 확보 곤란 및 관련 비용 증가 가능성
	S	철강 생산 공정 특성상 석탄 의존도가 높아 석탄 비용 증가 시 타 원료 대체가 어려운 리스크
	S	탄소 규제 또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관련한 감축 비용 부담 및 국제 경쟁력 저하 리스크
	B	정부의 강력한 탄소 규제 도입 시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쟁력 훼손이 국민소득 감소와 철강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S·P	정부 탄소 규제 정책을 최초로 적용 시 내부 탄소 관리 체계의 부분적 미비 또는 관련 임직원 교육 부족 시 법규 미준수 리스크
Opportunity	B	가전,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연관 산업의 저탄소 철강재 수요 증가 가능성
		-수송 부문(Transport Sector (Automotive Sector)): 수송 부문의 경량화 및 연비 중요성 증대로 고기능 강재에 대한 수요 증대
		-발전 부문(Power Sector):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소재로 고기능강재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부문(Renewable Energy): 풍력 발전기 터빈이나 연료전지에 소재 공급
	B	재활용이 용이한 철강재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S	수소 환원 제철,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신기술 선점에 의한 기업 경쟁력 차별화 기회
	L·P	기업 기후변화 대응 평가 등 이해관계자 인식 강화로 저탄소 친환경경영이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

기술 개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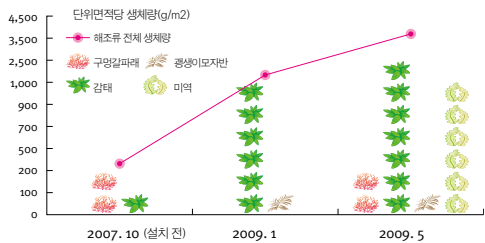


해양 생태계 보전 포스코는 해수온 상승에 따른 갯녹음 해역을 복원하는 데 효과가 있는 ‘트리톤(Triton)’을 개발하였습니다. 친환경 철강 슬래그 해양 구조물인 트리톤(Triton)*은 갯녹음 등으로 훼손된 해양 생태계의 해조류와 어패류 등 수산자원을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포스코의 주재료인 철강 슬래그는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해양에 유용한 미네랄인 칼슘과 철 함량이 일반 골재보다 높아 해조류의 성장 및 광합성을 촉진시키고 오염된 퇴적물과 수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트리톤으로 조성된 바다숲은 슬래그 탄산화 및 해조류 광합성에 의해 CO₂를 고정시키는 특성도 있습니다.

갯녹음은 해수온 상승이나 해수의 영양 성분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해양 조건설, 성게나 전복 등 조식성 동물이 해조류를 먹어 치워 소멸된다는 식해(食害)설 등으로 설명되나, 지역에 따라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조류 성장에 필요한 철 성분은 삼림으로부터 하천을 통해 바다로 공급되는데, 최근 삼림의 감소 및 댐 건설과 같은 대형 개발 사업으로 공급 경로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안에 철 성분(펄빅산철)의 공급이 부족하여 해조류의 생육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리톤은 일반 자연석에 비해 철, 칼슘**

* 트리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물고등 나팔을 불어 물고기와 돌고래를 부르고, 숲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능력을 보유.
** 철, 칼슘: 철 성분은 해조류의 포자 발아와 성장을 촉진하고, 칼슘 성분은 오염된 퇴적물 및 수질을 정화함.

시기별 주요 해조류 생체량 변화



슬래그 탄산화 및 해조류 광합성에 의한 CO₂ 고정

(10~20 t - CO₂/ha,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해안에 유용한 미네랄을 다량 함유한 소재로, 갯녹음에 의해 훼손된 연안 해역의 해조류와 어패류 등을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트리톤 바다숲 조성 기술은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전문 연구 기관들이 10여 년간 동해 및 남해 실험해역에 적용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트리톤 어초는 고비중, 고강도 특성을 지녀 물리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태풍이나 해일 등에 잘 견딜 수 있는 소재입니다. 트리톤 바다숲은 일반 콘크리트 바다숲과 동일한 비용으로 조성 시 해조류 부착 면적이 큼니다. 또한 탄산화 및 해조류 광합성에 의한 CO₂ 감축 효과도 가진 친환경 저탄소 소재입니다.

클린오션봉사단 포스코는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정화를 위해 2009년 11월 25일 ‘포스코 클린오션(Clean Ocean)봉사단’을 창단하였습니다.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은 100여 명의 직원과 가족으로 이루어진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확대한 것으로, 정화가 어려운 바다 속에서 페어망과 페타이어, 천막 등을 제거하는 활동을 합니다.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은 매월 포항과 광양에서 해상 및 수중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반기 1회씩 전국 이슈 지역을 찾아 대규모 연합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톤 바다숲 조성 해역



환경 성과

환경 투자 및 환경 비용 2009년 환경 설비 투자금은 2,971억 원으로 총 설비 투자의 10%에 해당합니다. 포스코는 창사이래 지속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총 3조 9,58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전체 설비 투자 대비, 9.1%에 해당합니다. 또한 환경 설비를 유지·운영하기 위해 6,292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에너지 회수 비용과 환경 연구 개발 비용을 포함하면 환경비

용은 총 6,944억 원입니다. 소결 배가스 청정 설비 도입을 비롯하여 집진기 설비 최적화 운영 등 대기 환경 설비에 집중 투자한 결과, 3대 대기 물질(SOx, NOx, Dust)의 배출 원단위가 2006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광양제철소는 SOx와 NOx의 배출 원단위가 60% 이상 저감되었습니다.

2009년 주요 환경 설비 투자 내역

(단위: 십억 원)

	투자 내역	금액
대기	1, 2 소결 배가스 청정 설비 개선, 집진 효율 향상을 위한 집진 설비 개선	166.1
수질	원료 야드 세륜장 시설 보완, 선강 지역 우수 재활용수 배관 개선	79.1
자원화 및 기타	고로 수재 설비 합리화, 슬래그 배재장 보완	51.9
합계		2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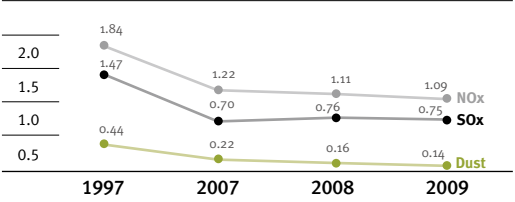
환경 비용

(단위: 십억 원)

	집행 내역	2007	2008	2009
환경 설비 운영비	전력비, 정비비, 인건비 등	231.4	239.9	237.1
자원화비	부산물 가공비, 운반비, 소각/매립비, 위탁 처리비 등	178.3	197.5	215.8
감가상각비	환경 설비 감가상각비	133.7	147.7	142.5
일반관리비	환경 주관부서 인건비, 물 이용 부담금 등	36.3	39.9	33.8
환경R&D비	환경연구개발비	14.0	14.0	13.3
에너지 회수비	부생가스 회수비, 온수/증기/전력 회수비	50.7	48.0	51.9
합계		644.4	687.0	6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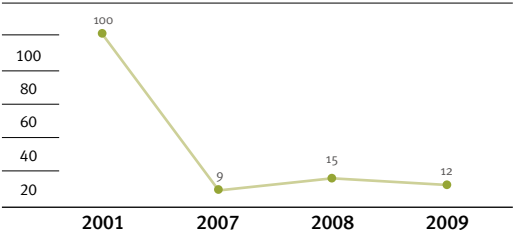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단위: kg/t-s) ■ 먼지 ■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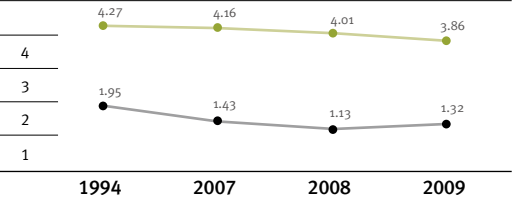
2001년 대비 다이옥신 저감 현황

(단위: kg/t-s) 다이옥신 저감 현황은 2001년 값을 100으로 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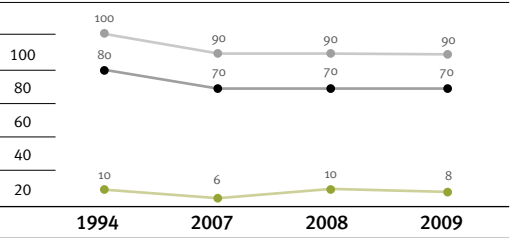
조업용 취수량 및 방류량

(단위: m³/t-s) ■ 조업용 취수량 ■ 방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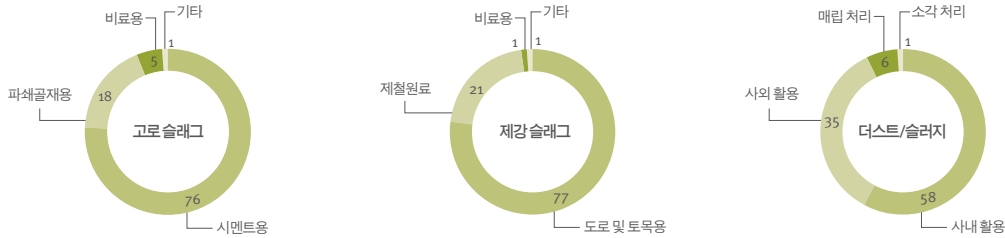
최종 방류수 COD 농도

(단위: mg/l) ■ 배출 농도 ■ 법 기준(강) ■ 법 기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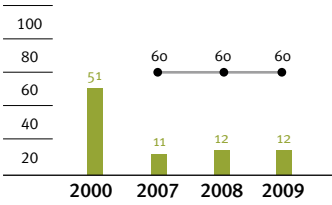
2009년 부산물의 자원화 현황

(단위: %)



최종 방류수 T-N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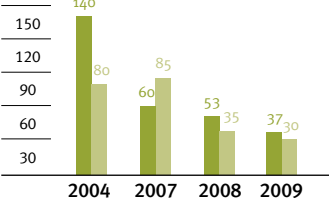
(단위: mg/l) ■ 배출 농도 ■ 법 기준



*2003년부터 T-N 농도 규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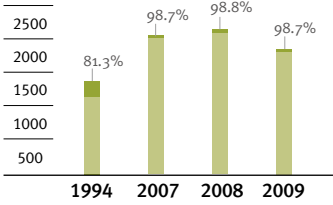
화학물질 배출 현황

(단위: 톤) ■ 포항 ■ 광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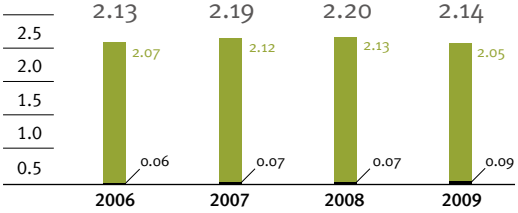
부산물 자원화

(단위: 톤) ■ 발생량 ■ 자원화량 ■ 자원화율



조강 톤당 CO2 배출량

(단위: t-CO2/t-s) ■ 직접 배출 (Scope 1) ■ 간접 배출 (Scope 2)



- WBCSD/WRI Greenhouse Gas Protocol 가이드라인(2004) 참고하여 산정
 - 산정 범위: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 직접 배출(Scope 1): 제철소 내 차량 운행에 따른 CO2 배출량은 포함하지 않음
 - 간접 배출(Scope 2): 구입한 전기의 사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CO2 배출량
- CO2 배출량은 탄소 배출계수, 산정 경계 조건 등 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코크스 설비 보유 및 부생가스 자가 활용 여부와 산출 시 적용하는 배출계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고장력 자동차 강판('08년)	저철손 전기 강판('08년)	수재 슬래그 ('09년)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천t-CO2 /년)	262	1,693	5,638
판매량(천t)	328	295	7,137

- 고장력 자동차 강판은 590 MPa 이상의 장력을 가진 HSS(High-Strength Steel)와 440 MPa 이상의 장력을 가진 AHSS(Advanced High-Strength Steel)를 의미함. 동 강판을 국내 A사 승용차(2,000cc급)에 적용 시 차체 중량 감소에 따른 연비 개선 효과를 가정하여 산정.
- 저철손 전기 강판은 0.98 W/kg 이하의 철손을 가진 방향성 전기 강판과 4.7 W/kg 이하의 철손을 가진 무방향성 전기 강판을 의미함. 동 강판을 모터와 변압기에 적용 시 에너지 효율 향상에 따른 효과를 가정하여 산정.
- 아-태 파트너십 철강 태스크포스에서 검토된 기준을 적용하여 고로 수재 슬래그 1톤을 시멘트 클링커 1톤으로 대체 시 CO2 감축 효과를 0.79t-CO2/tClinker로 가정하여 산정.

환경 커뮤니케이션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 목표를 비롯한 환경 개선 활동, 성과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담은 2009 탄소보고서를 2010년 2월에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경영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 공개 프로젝트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참여하여 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평가받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SAM-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에 참여하여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외부로부터 평가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국제철강협회를 비롯한 국내외 협회, 학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선진 환경 기술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과 상생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포스코 대중소 그린 파트너십 확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44개 공급사와 26개 외주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청정 기술 이전과 환경경영을 진단하는 활

동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2009년부터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글로벌 환경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9년 12월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협의회를 발족하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철강회사와 대중소기업 에너지절약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철강 분야 에너지 절약 기술 이전과 현장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10개사에 전문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가열로의 운전, 관리 기법 지도, 열효율 진단 등의 기술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 확대

포스코는 2005년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녹색구매 유형을 6개 타입으로 분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녹색구매 활동을 그룹사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의 자발적 협약 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포스코는 공급사와 함께 친환경 구매망을 구축하고 그룹사 녹색구매 네트워크 운영, 녹색구매 추진 활동 점검 및 3R(Reduce, Reuse, Recycle) 품목의 적극 발굴 등을 통해 녹색구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협력 활동

	활동	세부 내용
국내	한국철강협회 환경정책협의회	환경 정책 변화 대처 및 자발적 환경 개선 도모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환경 현안에 대한 논의 및 환경 보전 활동 도모
	에너지 절약 기술 정보협력 사업	에너지관리공단 주관,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한 기업 간 기술 및 노하우 교류
	기후변화협약 철강산업대책반	기후변화협약 공동 대응을 위한 철강협회, 지식경제부, 주요 철강 기업, 연구기관 등의 모임
국외	WorldSteel CO2 Breakthrough Programme	국제철강협회 회원사들이 공동 추진하는 CO2 저감 혁신 기술 개발 프로그램
	WorldSteel Climate Change Policy Group	국제철강협회 주도, 세계 철강 산업의 산업 섹터제 논의
	아-태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철강 태스크포스	아시아-태평양 7개국의 청정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녹색구매 유형 및 추진 실적 구매 금액

(단위: 억 원)

		정의	주요 품종	2007	2008	2009
공인인증	GP 1	환경마크 상품	윤활유, PCB,	45	16	18.6
녹색구매 유형	GP 2	GR(Good Recycled) 마크 상품	모니터, 인버터, 센서	1	1	0.4
	GP 3	에너지 절감형 물품	모터, 인버터,	133	224	101
포스코 고유	GP 4	유해물질(납, 수은, 석면) 저감 물품	활성탄, 화공약품, 수지류	327	396	733
녹색구매 유형	GP 5	폐기물 저감 물품 (포장 단위 조정, 폐기물 회수 기준 구매, Refill 계약 등)	롤, 수처리약품, Metallic Tube,	1,064	1,269	1,624
			열교환기, Knife류, 내화물			
	GP 6	기타(난연성, 외국의 환경 Label 품목)	컨베이어벨트, Flux Powder	121	119	148
합계			2, 047 품목	1,691	2,025	2,625

포스코의 사업 영역은 이미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경영권을 보유한 66개 출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 출자사와 손회사를 포함할 경우, 국내 42개사와 해외 121개사가 포스코 패밀리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해외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해외 코일 가공센터를 적극적으로 증강하는 등 투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출자사들의 중복 사업 분야 통합 및 위험 최소화 작업을 추진하여 출자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상향 평준화,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였습니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 아닌, Value Chain 간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포스코 패밀리가 하나의 비전을 추구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스코 패밀리 Win-Win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포스코 사업 영역이 글로벌화함에 따라 포스코 그룹 차원의 공급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글로벌 포스코 패밀리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법인의 현지인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현지인 직책 보임자 비율을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포스코 및 계열사, 외주 파트너사, 공급사 그리고 해외 법인의 경쟁력을 상향 평준화하여 글로벌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Vision 2018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패밀리 경영의 핵심입니다.

주요 출자사 현황



2009년 포스코는 철강이라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포스코 패밀리 차원에서 '業의 확장'을 실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내 출자사들의 경쟁력 상향 평준화를 위해 비수익 사업은 과감히 매각하고 유사한 사업 기능은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 국내 출자사 매출액은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13.8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순이익은 2천억 증가한 4.8천억이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글로벌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해외 코일 가공센터를 증강하는 등 투자 규모를 늘려 46억불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철강의 Life Cycle과 연관된 분야와 제2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될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등 주요 부문에서 출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수익성이 낮은 정비 사업 및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와이브로 사업을 정리하는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그룹사 간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여 중복되는 경영 지원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룹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IT 부문의 포스데이터와 자동화 부문의 포스콘을 합병하여 Engineering & IT 컨버전스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포철산기와 포철기연을 통합하여 산업 설비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로 재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고순도 Fe-Mn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포스하이메탈을 통해 차세대 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의 주요 이슈인 기후변화에도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대응은 계속됩니다. 포스코는 포스코파워를 통해 차세대 핵심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 등 에너지에 관한 국제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인 PNR을 신일본제철과 합작, 운영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철강 부산물인 슬래그를 자원화하는 포스화인을 출범시켜 재활용 사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경쟁력을 재정비하고 차세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과 더불어, 포스코는 친환경 스틸하우스 설계시공업체인 포스에코하우징을 설립하여 친환경 주택 자체 공급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포스에코하우징은 국내 최초의 자립형 사회적기업으로, 최초 채용 인력 50명 중 34명을 취약 계층에서 채용했으며 2012년까지 해당 채용 인력을 150명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2008년 국내 최초 대기업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포스위드에 이어, 포스코가 본업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소명을 함께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신설된 해외 코일 가공센터(SCM) 11곳을 포함하여 전 세계 글로벌 사업장의 업무 방식과 인프라를 표준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2009년에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수주 감소, 판매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사업 영역과 품목 다양화에 따라 경영 실적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되리라 예상합니다. 또한 M&A를 통해 글로벌 경영 시너지를 높이고 선행지표 관리 역시 강화해 Double dip 등 잠재된 리스크에 사전 대응하는 등 안정적 글로벌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출자사 하이라이트

포스코는 핵심 사업인 철강업과 관련된 출자사뿐만 아니라, 철강 수요처와 연관된 건설업, IT 산업,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주요 산업군에 진출하여 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파워** 포스코파워는 국내 최초의 민간 발전소로 출발한 종합 전력 회사입니다. 1972년 운전을 개시한 이래 현재 180만 kW의 국내 최대 규모 민간 발전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포스코파워는 독보적인 성장 배경과 한국 전력 공급의 선두주자라는 책임감으로 지난 40년간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는 수도권 전력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까지 240만kW 규모의 발전 설비 증설을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08년 12월 1,000MW 증설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120만 kW의 1단계 증설 사업, 2014년까지 2단계 증설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포스코파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포스코로부터 발전용 연료전지(MCFC) 사업을 인수받은 포스코파워는 이후 이 분야의 세계적 선도 기업인 미국 FCE사와 협력하여 2012년까지 180kW급 SOFC 연료전지 복합발전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2009년 11월 2.4MW급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파워를 중심으로 RIST, 포스콘, 포스코건설, 포철산기 등과 연료전지 사업에 협력하는 MOU를 체결하는 등 범포스코 그룹사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파워는 제철소의 부생 가스를 이용하는 300MW 규모의 부생 복합 발전 설비 건설 사업, 개발도상국 IPP 사업에 진출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인 연료전지 사업과 풍력·태양광·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은 포스코파워가 꿈꾸는 미래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맞닿아 있음을 설명합니다.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의 일관제철소를 설계,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 새롭게 출범한 엔지니어링&건설 기업입니다. 출범 이후 제철뿐 아니라 에너지 발전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LNG 터미널, 정유/화학 산업 등 에너지 플랜트, 수처리 시설, 자원 재이용 등 환경 사업, 도시 건설과 연관된 토목, 건축 사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통합 엔지니어링 및 건축 솔루션 업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창립 초기부터 베트남, 중국 등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글로벌 사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09년에는 베트남과 중국을 잇는 고속도로의 첫 구간 건설을 착공했으며,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제철 해외 플랜트 건설, 폐루 복합 발전소 건설 수주, 이란과 일본 제철소 가동 등 활발한 해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6월에는 포스코파워와 에너지 사업 공동 개발 MOU를 체결하여 에너지 사업 역량을 갖춘 포스코건설과 국내 최대 민간 발전 사업자인 포스코파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2007년 개발한 친환경 건설 소프트웨어인 POEMS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여 친환경 건설 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09년 6월, 국가환경경영대상에서 친환경 건설 부문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았으며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선정한 2009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종합 24위, 건설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ICT** 포스코ICT는 IT 전문 기업인 포스데이터와 설비 자동화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인 포스콘이 각각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2010년 1월 공식 출범한 기업입니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IT 서비스 등 3대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며 스마트 그리드와 u-에코 시티 같은 그린 IT 분야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포스코ICT의 3대 핵심 사업은 건설, 철도, 물류, 발전소 등 도시 산업 기반의 시스템 설계에서 사후 관리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제철소 생산 설비 자동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사업, 산업 시설 IT 솔루션 제공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사업장을 만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컨버전스 기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ICT는 이 같은 산업 특성을 미래 기술과 연결하여 차세대 에너지 효율 최적화 솔루션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기술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에도 참여하여 포스코그룹에서 녹색성장 사업을 주도할 것입니다.



범위 및 목적

포스코는 Two Tomorrows (Asia) Limited (이하, Two Tomorrows)에 2009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독립 검증 수행을 의뢰하였습니다.

검증은 AA1000AS (2008) 표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본 검증팀은 Type 1 검증을 제공하기 위한 검증 활동을 수행해 AA1000APS (2008) 포괄성, 중요성 및 대응성 원칙의 준수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재무정보 및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책임사항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전적으로 포스코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Two Tomorrows는 포스코의 보고서 작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와 별도의 계약 관계는 없으며 금년도 검증이 첫 번째 검증입니다.

본 검증 보고서는 검증팀의 독립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영진을 포함한 포스코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본 검증팀은 모든 포스코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균형 있는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프로젝트 리더인 전민구 심사원, 프로젝트 자문인 토드 코트 심사원, 양인목, 양세영 그리고 박상목 심사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검증 보고서는 검증팀이 영문으로 작성하였으며 Two Tomorrows (Asia) Ltd. 대표이사인 제이슨 펅스가 검토 및 승인하였습니다. 검증팀 개별 심사원의 적격성 등 추가 정보는 www.twotomorrow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의 근거

검증 활동은 AA1000AS (2008)에 정의된 Moderate 수준 검증 제공을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하였습니다. 검증팀은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포스코가 제공한 AA1000 원칙과 관련된 보고서 및 경영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검토함.
- 국문 및 영문 보고서 검토를 통하여 중요 주장을 파악하여 현장 심사 및 경영진 인터뷰 과정에서 추가 점검하고 확인함.
- 포항 본사, 서울 포스코센터에 4일간 총 4명의 심사원이 방문하여 보고서에 기술된 지속가능성 분야와 관련된 경영 시스템을 검토함.
- 총 5명의 고위 경영진 인터뷰를 통하여 경영에 대한 평가 및 포스코가 3대 Accountability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함.

검증 결과

본 검증팀은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검증팀은 상기 수행된 검증 활동을 통해 포스코의 보고서에 원칙 준수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검증 의견

검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의견을 제시합니다.

- 포괄성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법을 개발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 포스코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위한 중요성 평가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매우 발전된 시스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해당 중요성 평가를 사업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연계한다면 회사의 보다 포괄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아울러, 포스코는 회사의 중요 이슈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데 이해관계자가 공식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문 패널 등의 운영이 이러한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포스코는 주요 제철소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의 참여에서 우수한 활동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며 운영 사업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과 그룹 경영진 간의 보다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요 이슈란 이해관계자가 포스코와 그 영향에 관하여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이슈들입니다.

- 포스코는 광산 및 에너지 산업으로의 진출 등 새로운 글로벌 사업 출자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지속가능성의 위험과 기회를 고려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경영권을 보유하지 못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파트너와 협조해 우수한 사업의 관행을 수립하고 촉진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공시해야 합니다.
- 검증팀은 현재 회사의 중요성 평가에서 프로세스 또는 경영 접근 방안과 관련된 이슈들은 줄이고, 구체적 지속가능성 이슈에 보다 집중하여 중요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파악된 중요 이슈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활용하여 보고서의 구조를 결정할 것도 권고합니다.

대응성이란 이해관계자 이슈에 조직이 대응하는 범위에 관한 원칙입니다.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효과적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포스코는 에너지 환경 성과 분야에서 우수한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대응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여타 다른 측면들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검증팀은 포스코의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 저감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외 사회공헌, 임직원 개발 및 친환경경영 등 중요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우선 순위가 높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슈들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시점이 반영된 세부 목표를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Two Tomorrows (Asia) Limited			
한국 서울			
2010년 5월 13일			
제이슨 펅스 프로젝트 이사 그룹 이사	토드 코트 수석 자문 미국 대표이사	전민구 프로젝트 리더 아시아 이사	양인목 선임 심사원 아시아 이사



Two Tomorrows는 2009년 1월 Csrnetwork와 Sd3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과를 개선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컨설팅 기관입니다. www.twotomorrows.com 참조

■**슬래그(Slag)** 금속이나 광석의 불순물을 처리하는 제련, 다른 금속 가공 및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녹아 있는 금속 표면 위에 떠서 금속 표면이 공기에 의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와 제강 슬래그로 구분되며 시멘트 원료, 콘크리트, 도로 포장용 물질, 인산 비료의 성분으로 사용됨.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s)** 미국예탁증권. 미국에서 해외 주식을 담보로 국내 시장에 발행, 유통시키는 대체 증권. 외국 주식을 미국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의 불편을 덜기 위한 것.

■**BFG (Blast Furnace Gas)** 고로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약 750 Kcal/Nm³의 발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화력 발전, 열풍로 등 제철 공정의 열원으로 사용됨.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면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국제적으로 제안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열효율과 공정 개선, 조림 사업 등이 있음.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세계적 투자기관의 연합이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개 요청서에 서명하고, 이를 기업에 보내 배출량 공개를 끌어내는 프로세스.

■**CDQ(Coke Dry Quenching)** 코크스 건식소화설비. 코크스 오븐으로부터 나오는 적열(赤熱) 코크스가 보유한 열을 질소가스로 열교환하고 수증기로 회수하는 설비. 회수된 열은 발전에 활용됨.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오염된 물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 유기물질이 있어 오염된 물에 산화제를 투입하면 유기물질이 산화됨. COD는 이때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해당하는 산소의 양을 mg/ l 또는 ppm으로 나타낸 것.

■**COG(Coke Oven Gas)**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4,500~5,500 Kcal/Nm³의 발열량을 가지고 있음.

■**EVI (Early Vendor Involvement)** 고객사가 요청하는 철강재를 단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여 제품 및 품질 등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 활동.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국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기관으로서, 기업, 연구소, 민간단체, 투자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의 공식 협력기관이며, Global Compact와 제휴 관계에 있음. 2006년 10월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의 세 번째 버전을 발표.

■**FOG(Finex Off Gas)** 파이넥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로 발전소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 누출탐지보수시스템. 비산 배출원(fugitive emission sources)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누출 지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monitring)과 보수(repair)를 실시하는 활동 및 관련 시스템을 포함함.

■**LDG(Linz-Donawits Converter Gas)** 제강 공정 중 LD(Linz-Donawits) 전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의미함.

■**Mega-Y** 회사 전략 목표 달성(What) 을 위하여 CEO의 Sponsorship을 받은 오너(Who: 임원 중심)가 정해진 기간 내(When)에 6시그마 방법론(How)을 사용하여 부문간 Cross Functional 활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과제.

■**QSS (Quick Six Sigma)** 일상 업무에서 낭비를 발견하고 제거하여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자 하는 활동.

■**TRT(Top-gas Recovery Turbines)** 고로 노정압 발전기. 고로 노정의 가스 압력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설비.

■**포스코 패밀리** 서플라이 체인 대 서플라이 체인이 경쟁하는 시대에 맞추어, 포스코, 포스코 출자사, 외주 파트너사, 공급사를 아우르는 개념의 포스코그룹 차원의 정책.

포스코 안전 관련 제도, 시스템 및 활동

• **안전 마스터 제도** | 전문 역량을 갖춘 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 교육, 전문 교육, 심화 교육, Shadowing 등 6개월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 양성된 130명의 안전 마스터들은 현재 최고의 안전 전문가로서 소속 부문 및 부서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안전 방재 시스템(e-Safety System)** | 중요 기계 설비 및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점검, 진단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발굴해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e-Safety System은 진화·발전했습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안전 활동을 돕는 e-Safety System에서는 안전 보건 정보 및 기술 자료의 검색과 분석, 교육 자료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e-Safety System의 안전 정보를 조회·분석하고 진단 결과를 입력할 수 있어, 안전 분야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리라 예상합니다.

• **포스코 안전 진단 Tool(PSRS)** | 리더십, 조직, 실행 3개 분야, 12개 부문에서 인터뷰, 현장 평가, 설문 조사, 자료 검토를 통해 1~5등급까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포스코 고유의 안전 진단 시스템입니다. 포스코 안전 진단 Tool은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진단 결과 책자를 발간해 필수 요건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게 하고, 최초 진단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2차 진단을 실시해 변화 관리를 지원합니다.

• **10대 안전 철칙** | 포스코 내 작업장에서 모든 작업자가 자신은 물론 동료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10가지 규칙입니다. 구성원 모두 체질화, 습관화될 수 있도록 캠페인 및 지도 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가동중 설비출입관리시스템(가동중 ILS)** | 설비별 위험 정도에 따라 1~3등급까지 출입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안전 확인 및 조치 없이는 가동중인 설비에 접근 및 출입도 할 수 없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작업자가 임의로 출입할 경우, 설비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가동중 ILS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작업자를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과학적 시스템입니다.

• **레드 헬멧** | 작업중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붉은 헬멧을 쓴 안전 조치 책임자가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관계 직원 및 부서에 긴급히 연락해 안전 조치를 확인하는 등 유해 위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지휘하는 제도입니다.

• **TBM(Tool Box Meeting)** | 작업에 착수하기 전, 운전, 정비, 외주사 등 작업 관련자가 모두 모여 잠재 위험을 토론, 발굴하는 소그룹 단위 안전 미팅 제도입니다.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완벽한 안전 대책을 강구합니다.

• **작업 허가서 제도** | 작업 수행 전, 운전 및 정비 작업 책임자가 잠재된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또는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장구, 보호구 등 작업 준비 상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자 작업 전 허가서를 작성, 확인,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보고서 발간 현황



환경보고서 1994~2003



사회공헌활동백서 2003, 2006, 2009

지속가능성 보고서 2004~2008

환경보고서 포스코는 설립 초기부터 추진해온 환경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환경보고서를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발행하였습니다.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의 환경경영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그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백서 창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포스코의 사회공헌 활동을 종합, 정리한 사회공헌활동백서는 2003년과 2006년 발간되었습니다. 인재육성, 체육문화,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온 모습을 담았습니다. 2009년에는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2004년부터 환경보고서와 사회공헌활동백서를 아우르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본 보고서는 국제적인 발간 기준을 준수하고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습니다.

독자 의견 설문서

1. 포스코의 2009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2. 포스코의 2009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충분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모르겠음
서술한 용어에 신뢰가 간다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모르겠음
이해하기 쉽다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모르겠음
디자인이 좋고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모르겠음
보고서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모르겠음

3. 주요 관심 영역/ 요구 정보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포스코 전반 ☐ 이해관계자 참여 ☐ 성과 데이터 ☐ 기업지배구조 ☐ 기업윤리 ☐ 공정거래 ☐ 위험관리 체제
☐ 지속가능경영 ☐ 경영 전략 ☐ 경영 성과 ☐ 환경경영 시스템 ☐ 환경 성과 ☐ 환경 파트너십 ☐ 기후변화 대응
☐ 안전/보건 ☐ 직원 ☐ 고객/공급사 상생협력 ☐ 사회공헌 ☐ 지역사회 ☐ 출자사 성과

4. 포스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나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5. 다음 그룹 중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고객 ☐ 주주 ☐ 포스코 직원 ☐ 출자사 직원 ☐ 연구기관 ☐ 시민단체 ☐ 언론기관 ☐ 정부기관 ☐ 지역사회 주민
☐ 학생 ☐ 기타 _____

posco

포스코 2009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다음 보고서 발간에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포스코 사회공헌실 CSM팀(우편번호 135-777)
Tel : 02-3457-0377 Fax : 02-3457-1927 email : sustainability@posco.com

매출 및 주요 제품 판매 포스코는 2009년 경기 침체로 철강 시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액은 소폭 감소한 26조 9,539억 원, 영업이익률은 11.7%를 기록하였습니다. 철강 시장 위축과 심화된 경쟁 가운데 기존 시장에서는 전략제품 판매율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하여 동남아 시장 및 기타 시장 수요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주요 재무지표				
	2007	2008	2009	
매출액 (십억 원)	22,207	30,642	26,954	
영업이익 (십억 원)	4,308	6,540	3,147	
당기순이익 (십억 원)	3,679	4,447	3,172	
영업이익률 (%)	19.4	21.3	11.7	
ROE (%)	15.9	17.0	11.4	
EBITDA (십억 원)	6,029	8,448	5,207	
EBITDA Margin (%)	27.2	27.6	19.3	
자본총계 (십억 원)	24,503	27,784	30,951	
부채비율 (%)	24.4	33.3	29.2	

제품별 판매량 (단위: 천 톤)					
	2007	2008	2009		
			전체	내수	수출
열연(PO 포함)	10,264	10,700	9,809	6,089	3,720
후판	3,831	4,593	4,484	4,072	412
선재	2,018	2,020	1,960	1,453	507
냉연	9,607	10,416	8,834	4,594	4,240
전기강판	907	932	840	421	419
스테인리스	1,609	1,306	1,368	671	697
기타	1,345	1,198	1,142	1,090	52
계	29,581	31,166	28,437	18,390	10,047

자산 보유 현황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유형자산	현금성자산	8,768	13,693	12,918
	매출채권	3,566	3,722	6,754
	재고자산	1,895	3,559	2,684
		21,725	6,416	2,996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8,165	23,340	27,075
	유형자산	13,202	8,633	10,213
자산계	30,493	14,466	16,646	

주가 동향				
	2007	2008	2009	
주가(원)	575,000	380,000	618,000	
시가총액(조)	50.1	33.1	53.9	
EPS(원)	48,444	58,905	41,380	
PER(배)	11.9	6.5	14.9	

이해관계자별 경제 활동 포스코는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한다는 인식하에 이해관계자와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본 가치를 창출하는 구매, 생산, 판매 과정뿐 아니라 정부 세금, 자본 제공자에 대한 배당금과 이자,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포스코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매 비용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원료비	10,347	16,772	13,887	
재료비	1,308	1,648	1,569	
외주용역비	1,350	1,504	1,467	
매출액 비중 (%)	58.6	65.1	62.8	

배당금 현황 (단위: 원)				
	2007	2008	2009	
배당률 (%)	200	200	160	
주당배당금	10,000	10,000	8,000	
중간배당금	2,500	2,500	1,500	
주당순이익	48,444	58,905	41,380	

이자 비용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이자 비용	103	143	289	
이자 수익	126	191	208	

인건비 지급 내역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고정성 급여	930	954	929	
퇴직충당금	135	240	-2.2	
변동성 급여	177	323	181	

*포스코는 전 임직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최저 임금 기준 충족/ 신입사원 급여 최저 임금 대비 428%(현장 신입사원(상주)의 이론상 1년 연봉을 2009년 인당 평균 근로 시간으로 나눔)/ 성별에 따른 기본급 차이 없음

연금 지원 금액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국민연금(회사 부담금)	333	326	317	
개인연금 보조금	84	84	85	
개인연금 수혜 인원(명)	12,763	13,491	13,084	

세금 납부 현황 (단위: 십억 원)				
	2007	2008	2009	
내국세	6,442	5,276	11,453	
지방세	1,082	1,355	1,919	
관세	85	75	101	

발행일 2010년 5월31일

발행인 정준양

발행처 포스코 사회공헌실 CSM팀

(135-777) s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TEL: (02) 3457-0377 FAX: (02) 3457-1927

E-MAIL: sustainability@posco.com

디자인 DESIGNPLUS (02) 545-8081

인쇄 EAP Korea (02) 6309-6400

포스코 웹사이트(www.posco.co.kr)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를 포함해 이전에 발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Annual Report, 탄소보고서 등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